

2010
ANNUALLY | 제 26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돌섬 횟집

산악인우대의 집

점/심/특/선
물회 / 회국수

- ◆ 활어전문
- ◆ 승합차 무료운행
- ◆ 대형 연회석 완비

이상식 TEL. 033) 633-6996
〈백산알파인클럽〉 H.P. 011-239-2090



No.1
Visual Graphic & Environmental Design Solution
이정종합광고

217-08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92-15

T. 033-631-9831/9832

F. 033-631-9833

E. ejad@lycos.co.kr

W. ejad1996 / 6319831

플러스 디자인 컨셉

- ◆ 고객의 삶의 질에 플러스가 되는 디자인
- ◆ 상상 그 이상의 플러스 흐름을 주는 디자인
- ◆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만족을 주는 디자인
- ◆ 환경과 사람에게 동시에 플러스가 되는 디자인

상큼한 냄새, 유크리한 아이디어를 경험해보세요!

태광 [izm]
디자인

Visual Graphic Design Laboratory 시각디자인연구소

생산품목

- PE 이중벽관
- PE 다중벽관
- PE 충진벽관
- 이중벽, 다중벽 유공관
- 이음소켓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파이프랜드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각종 인증과 특허 출원까지!
전지역 납품가능(*수량에 따라 운반비 별도)

대표

강 진

속초시 대포동 934-5

Tel.033)638-1507 / Fax.033)638-1557

E-mail:pipel71@hanmail.net

Homepage:<http://www.pipeland.co.kr>



Contents

009 · 권두시 속초, 그리고 춤추라 / 김준만

010 · 권두휘호

· 金晴 / 박학성 · 清明日宴梅道士房 / 김만두

012 · 발간사 노광복

속초문화 365

016 · 문화로 재미와 감동을 배운다

020 · 어르신을 위한 문화놀이터

022 ·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024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마당

026 ·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

028 ·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

031 ·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동아리

2010 장릉사진공모전

033 · 금상_박상형

034 · 은상_남정이 · 원봉숙

036 · 동상_전창선 · 황병진 · 김숙자

특집 1. 2010사회문화예술교육

040 · 두근두근, 문화마루에서 보낸 1년 / 편집부

044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지원사업의 의미 / 이춘아

049 · 소감문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 김은주

제대로 놀줄 알게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 황영호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들의 소통이 중요 / 김청익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이정무

어느덧, 내 일상으로 들어온 문화, 고마워! / 최미숙



cover story

2010 장릉사진공모전 금상 수상작
(33p 관련기사)

■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033)632-1241

■ <http://www.sokcho-culture.com> · <http://www.sokcho-history.com> ·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속초문화원 ■ 발행인 노광복 ■ 편집인 김인섭 ■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 발행일 2010.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특집 2. 제45회 설악문화제를 말하다

058 ·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한 설악문화제의 도전 / 편집부

068 ·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리고 희망을 보았다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문화원 포커스

076 · 시원한 문화 풀!場에서 夏夏夏 / 김은중

082 · 옛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다 / 전우현



줌업, 속초문화

088 · 묵향을 나누는 사람들 / 속초 서우회

090 · 청각을 넘어 시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시낭송 / 김승아

092 · 사회적 나눔 실천하는 생활사진사 / 김진희



문화논단

094 · 속초 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 방안 / 장정룡

우리지역 옛이야기

126 · 사진으로 바라본 1950년대 속초모습 / 이수영



해외문화탐방

136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창조산업을 배우다 / 이정무

회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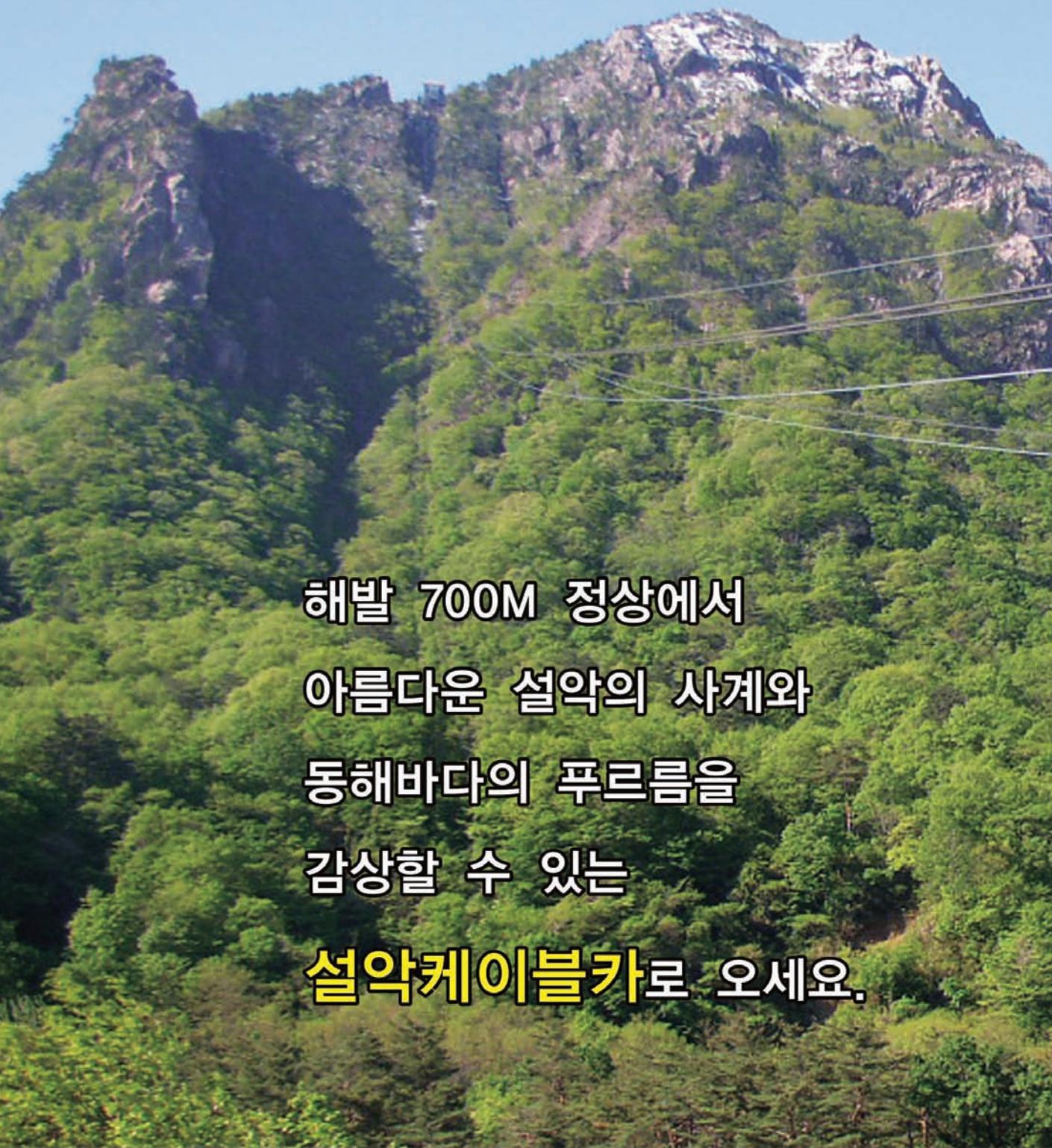
142 · (수필)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움 / 최관철

145 · (시조) 청간정 / 박명선

146 · 제22회 문화상수상

147 ·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해발 700M 정상에서
아름다운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오세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 : 033) 636-4300



통신공사업(LAN 설비) · 전기공사업 · 홈네트워크 시스템 · CCTV 및 방송음향 설치
삼성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풍림산업 협력업체



(주) 코맥스텔콤



대표이사 홍 육

TEL : 02)2268-3787~8, 9011~2
FAX : 02)2264-0681
E-mail : hongug1@hanmail.net
주소 : 서울시 중구 산림동 250-1

폴리싱, 포세린 타일 전문



한양
타일

대표 전호성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30번지
TEL : 02)2266-9222, 2272-1076
FAX : 02)2272-1076

복층유리! 다 똑같겠지!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일반복층(2중)유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주)두산GSP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 3중 복층유리를 만나보십시오

방음?



결露?



단열?



강원도 유일의 최고의 복층유리제품과 PVC창을 만나보십시오

이제 유리 건축물

Total Brand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One-stop service

향토기업을 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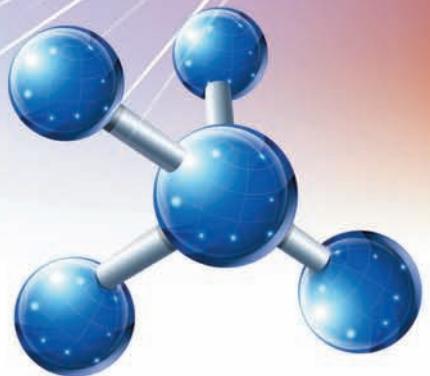


(주) 두산GSP산업

TEL. 033) 635-9933 / 633-9933 FAX. 033) 635-6666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47-1번지 (제2농공단지)

대표이사 임동환



2011 TOP OF SPINE

강남베드로병원의 맞춤형 종합검진

뇌, 척추, 관절 질환 전문병원
강남베드로병원입니다.



- 뇌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 胸부(심장질환, 폐질환, 각종 암)
- 복부(간, 담낭, 췌장, 십이지장, 콩팥 등의 질환 및 암)

뇌, 胸부, 복부 종합검진 패키지

● A형 (A Type)

- 신경학적 검사
 - 혈액, 간기능, 소변검사, 면역혈청검사
- EKG, 안압측정
- 체중, 비만검사
- Brain MRI+MRA (뇌혈관 및 뇌 정밀검사)
- 胸부, 복부 정밀 CT검사
- ※ 심장질환 의심시 심혈관 CT촬영 가능
→ 추가비용은 별도

● B형 (B Type)

- 신경학적 검사
 - 혈액, 간기능, 소변검사, 면역혈청검사
- EKG, 안압측정
- 체중, 비만검사
- Brain MRI+MRA (뇌혈관 및 뇌 정밀검사)
- 복부 초음파
- ※ 초음파결과 이상 발견시 CT추가
→ 추가비용은 별도

중풍, 척추, 관절전문센터
강남베드로병원

www.goodspine.org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0-27
Tel.02)554-3472 Fax.02)574-9414



속초, 그리고 춤추라

김 춘 만

미시령 정상에서 속초의 앉아 있는 자세를 본다.

듬직하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형상이다.

날아오르려는 기운이다.

대포리에서 사진리까지 유연한 해안선은

드나듦의 절묘한 조화를 부렸다.

성진 아저씨가 고기잡고

단천 아주머니가 오징어 널던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갈대밭 청초호변에 건물이 서고 공원이 앉았다.

다시 울산바위 위에서 속초를 본다.

장사동 뒷산은 함경도 추모공원

영랑호변에는 황해도 추모공원

원적지를 비문에 새기고 사라진

저 아픔의 흔적들.

참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이산의 서러움도 귀향의 한도 삼킨

청상의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이여!

너의 짊음으로

속초, 날아오르게 하라.

이제 춤추게 하라.



김 춘 만

1988년 월간문학지로 등단
시집 「산천어 눈빛 닳은 당신」외 1권
속초문협지부장 역임
현 설악문우회장

庭樹落陰梅雨晴
 半簾秋氣和禪生
 故國青山夢一髮
 落花深畫渾無聲
 一髮文殊在深處
 錦萬鵞先生詩
 湖亭朴鶴聲
 金晴 개인 날
 금 청
 庭樹落陰 梅雨晴
 정 수 낙 음 배 우 청
 半簾秋氣 和禪生
 반 렐 추 기 화 선 생
 故國青山 夢一髮
 고 국 청 산 몽 일 발
 落花深畫 渾無聲
 낙 화 심 주 혼 무 성

나무들은 뜰에 그림자 떨구고 장마비 개니
 밭로 스미는 가을 기운 선(禪)인양 서늘하다
 고국산천은 꿈 속이면 바로 거긴데
 대낮에 지는 저 꽃 소리도 없어



박학성

강원서예대전 입선 4회, 특선 3회, 우수상 1회
 동아예술대전 금, 은상 3회, 최우수상 1회
 현 속초서우회 회장
 속초시의회 3대 의장 역임

清明日宴 梅道士房

청명일연 매도사방

林臥愁春盡
임와수춘진開軒覽物華
개현람물화忽逢青鳥使
흘봉청조사邀入赤松家
요입적송가丹竈初開火
단조초개화仙桃正發花
선도정발화童顏若可駐
동안야가주何惜醉流霞
하석취류하

숲에 누워 봄이 가는 것을 근심하고
 창을 열어 풍광을 바라본다.
 홀연히 반가운 심부름꾼을 만나
 신선 적송자의 집으로 나를 맞아들인다
 도사가 사는 부엌인양 막 불을 지피는데
 복숭아 나무는 마침 꽃이 활짝 피었다.
 젊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신선이 마신다는 유하주가 어찌 아까우리



김만두

강원서예대전 특선 1, 입선 2
 동아예술대전 은상 1, 특선 1
 동아국제미술대전 특선 1, 특별상 1
 일본 벚부영화제 특별초대전
 중국 고당 휘호교류전

중국 제남 휘호교류전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주천작가
 동아국제미술대전 운영위원
 속초서우회 회원전 4회
 속초서우회 현 사무국장

可初逢林臥
 駐青鳥愁
 火仙使春盡
 懈桃邊入開
 流霞正發花
 童顏若可駐
 海草金萬斗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을 꿈꾸며



노 광 복

(속초문화원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26번째 속초문화를 발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속초문화원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거점사업’에 당선되어 전국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예술교은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어르신문화학교, 향토문화학교와 함께 속초문화원이 속초시민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도 앞장섰습니다. ‘제1회 장롱사진공모전’은 시민의 오래된 사진에서 지역문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총 18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속초고등학교 개교식’ 사진 등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진이 발굴되어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장롱사진 공모전은 2011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북청사자놀음은 새로운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속초시립풍물단을 비롯한 지역문화활동가 위주의 공연에서 일반인을 보다 확충하여 보다 안정된 기반을 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소교육을 받는 분이 10분으로 늘어나 북청사자놀음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결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컬처노믹스 시대에 우리 모두는 문화콘텐츠의 엄청난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속초처럼 열악한 경제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런 만큼 속초문화원의 역할 역시 중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속초시민이 우리들의 풍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화콘텐츠는 더욱 열심히 발굴할 수 있도록 묵묵히 문화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19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시기 : 2월
-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 별도)
※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 미달시)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회비 : 연 4만원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 365





문화로 재미와 감동을 배운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놀이터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마당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동아리



문화로 재미와 감동을 배운다

세대를 넘나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온정·청호·청봉 등 총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자원 콘텐츠(북청사자놀음, 도리원농악 등)를 이용하여 각 학교별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연중 프로그램인 국악심화학습과 방학캠프프로그램인 국악캠프, 운우풀회 등이 있습니다.





향토문화학교는 속초시의 전통 있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강좌로서 올해 18기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는 한지공예, 서예, 고전무용,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총 7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거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크게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네트워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수혜기관에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등 5개 기관에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크사업은 지역단체 간 문화를 통한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총 10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도모

어르신을 위한 문화놀이터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향유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위해,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문화학교는 실버예술단 '아바이,아마이'를 조직하여 가야금병창과 마당극 교육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아바이마을, 영금정 등 4개 거점에 상주하시며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자원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전통문화 콘텐츠사업



속초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며, 발전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속초도문농요, 도리원 농악, 북청사자놀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등의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마당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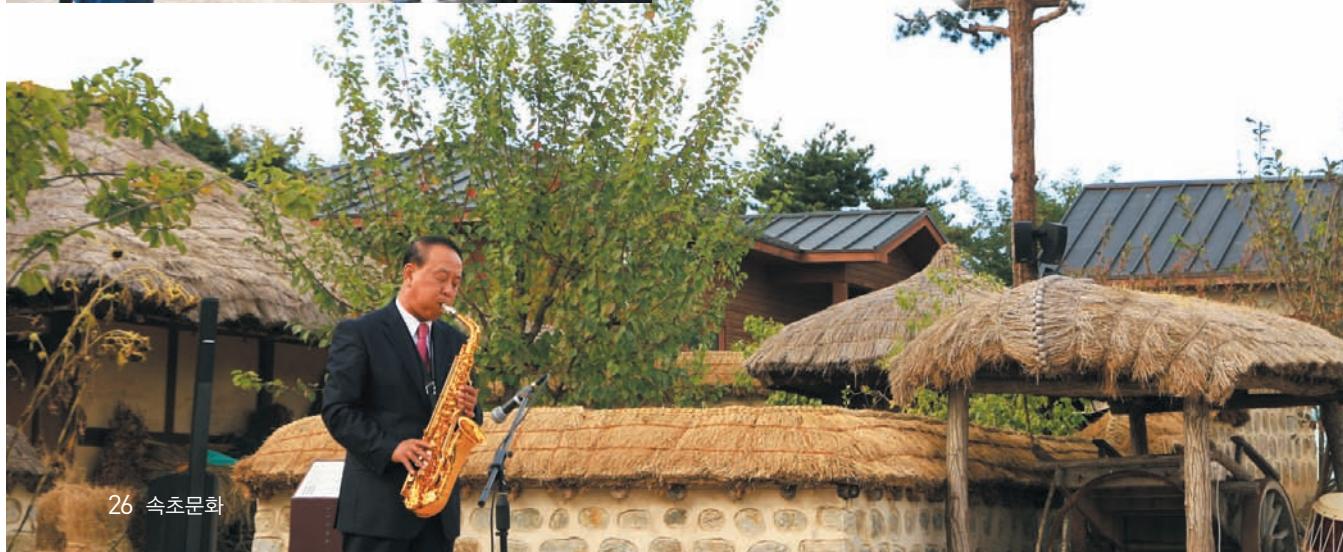
속초문화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다양한 창의적 체험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학교장 추천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시상하고,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제14회 청소년 여름풍물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방학동안 운영하여 학생들이 국악, 미술,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회 강원도 풍물겨루기는 전통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고, 청소년문화전수교육은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 문화를 나누다

시민대상 문화향유프로그램



속초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 전통,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제30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은 속초시 대표 겨울철 축제로서 속초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 전통문화체험, 동별 겨루기 행사 등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문화유적답사**는 80여 명의 속초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등을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속초8경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서 '속초8경, 문화로 거닐다'라는 공연을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총결산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

2010년 11월 27일(토) 속초문화회관 대강당과 제2전시실에서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1년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① [향토문화학교](#) 민요반 공연
- ② [향토문화학교](#) 한지공예·서예 작품 전시
- ③ [사회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센터 교육생 그림자극 공연
- ④ [향토문화학교](#) 노래교실 공연



- ① 향토문화학교 고전무용반 공연
- ② 학교문화예술교육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공연
- ③ 사회문화예술교육 환경운동연합
교육생이 촬영한 생태영상
- ④ 사회문화예술교육 행복한홈스쿨,
하나로아동센터 어린이 칭작북청
시자놀음 공연





- ① 속초북청사자놀을 보존회와 학교문화예술 교육 정호초 북청사자놀음반 어린이들이 함께 북청사자놀음 공연
- ② 향토문화학교 사물놀이 공연
- ③ 어르신문화학교 마당극 공연
- ④ 사회문화예술교육 워스타트 어린이들의 소리극 공연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동아리

주부풍물단, 실버예술단 가야금병창,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



속초문화원에는 주부풍물단, 실버예술단 가야금병창, 설악 주부풍물단 해울림 등 세 개의 문화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동아리는 지역 축제 및 각종 기관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으며, 특히 주부풍물단은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5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원장 동정

노광복 원장, 우리지역 문화 강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인사 초빙 명예교사제'에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이 명예교사로 선출되어 지난 5월 13일~14일 2일 간 속초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40분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창삼 속초해양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전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속초의 역사'라는 주제로 사진자료와 함께 강의 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와 이 지역만의 특수한 역사를 비교하며 속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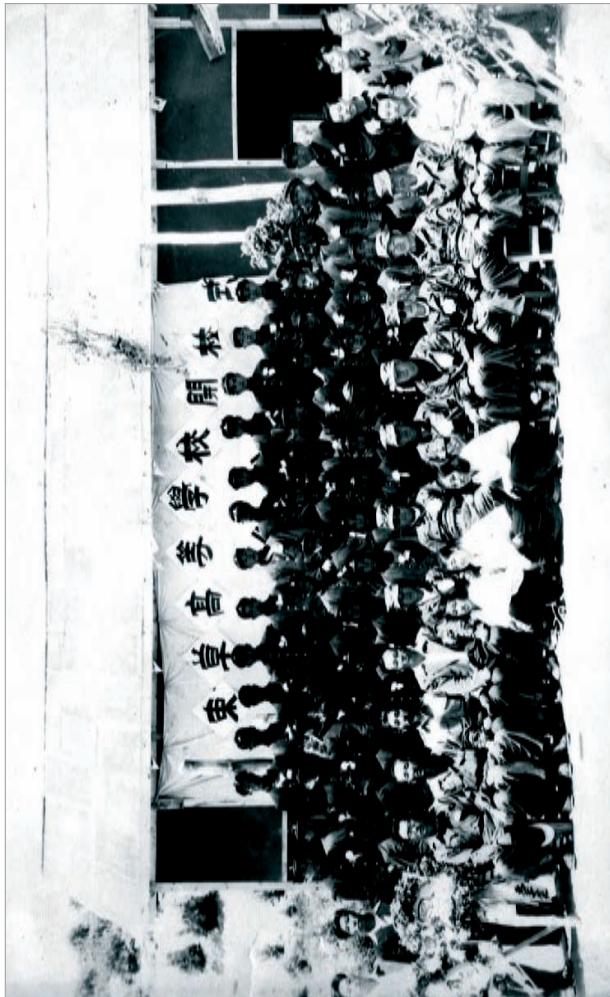


2010 장릉사진공모전

▷▷ 장릉에서 찾아낸 속초의 역사

속초문화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0 장릉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속초시민이 간직하고 있는 옛 앨범에서 속초 사람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총 144점이 접수되었다. 이들 사진에는 지금은 잊혀져가는 생활풍습이나 건물, 자연모습이 담겨있어 공모기간 내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속초문화원은 2011년에도 공모전을 진행하여 속초시민 생활사를 구축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금상_박상형 은상_님정이·원봉숙 동상_전충선·홍병진·김숙자



속초고등학교 개교식

박상현

1952년 6월 2일

1952년 6월 2일 속초고등학교 개교식(현 속초초등학교 위치). 양양군 속초읍은 군정시절 이형근(제1군단장) 군단장이 이끄는 수도사단이 주둔(부월리, 지금의 조양동)하고 있었으며 이때 개교 및 입학식에 참석한 이형근 제1군단장(앞줄 중앙)과 양양군을 대표하는 박종승 민정관(지금의 군수), 서청하 초대교장, 속초어업조합장 정주벽, 최홍열 29사단장과 참모들이 속초고등학교 제1회 입학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초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고등교육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졸업식 사전만 존재했지 이 사전처럼 입학식 사전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군정시절의 입학식 사전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무정 앞에서

남정이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 철영

학무정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쌍천변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 9년에 (1872)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연구와 인재육성에 전념한 매곡처사 오윤환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의 모양이 육각형으로 되어 육모정이라고 불렸으며 천통 한옥마을과 함께 어울려 고雅한 정취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철영일은 정희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구곡동천' 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도 이색적이다. 무엇보다 속초 8경의 하나인 학무정의 1930년대 사진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공보관과
속초문화관 표에서

원봉숙
1958년 출영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역의 경제, 문화도 새로운 재건을 위해 힘을 쏟을 당시의 사진이다. 사진 속 아이들의 뒤로 보이는 곳은 미국공보원과 속초문화관. 당시 미국공보원과 미국에서 미국정부의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대외홍보와 미국문화를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 기관과 함께 속초문화관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공보원은 서부영회같은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거나 반공영화, 대한뉴스를 상영하였다. 이 당시 영사기서는 1단었던 영광동의 땅뙈이간 육정이 아져쓰라고 불리는 뉴이 상영했다고 한다. 사진 속 3자매 중 한분은(오른쪽, 당시 6세) 현재 중앙동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다.



소방서 준공식

전창선

1962년 촬영

속초의용소방대(대장 박·공달씨) 준공식을 읍사무소 앞 광장(현 시청)에서 거행하는 모습이다. 언덕 위의 2층 건물은 1953년 8월 준공된 기존 건물이 전소(1955. 1. 4)된 후 새롭게 긴축한 읍사무소 건물이다. 그 아래 목재창고는 대현통운의 창고였다. 이 사진은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하기 전 속초읍사무소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진이다.



메뚜기

황병진

1975년 출연

학교에서 수업을 일찍 마친 학생들이 농촌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메뚜기를 잡는 모습이다. 당시는 추수하기 전에 메뚜기를 잡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진 속 풍경은 청대리 앞의 소야평야인데, 메뚜기를 잡는 모습 뒤로 청대산 정상이 아련하게 보인다. 청대산 정상의 소나무 2그루는 성황나무로 그 전에는 세 그루가 있었으나 한 그루는 말라 죽었다고 한다. 성황나무는 바단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어느 해 여름 바단으로 고사되었고, 지금의 청대산 소나무들은 새롭게 헬기로 운반하여 심은 것이다.



대포소방대발대식
기념사진

김숙자

1955년 철영

1955년 2월 10일, 당시 대포리 구장은 청대원씨였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 지역 유일의 사진사인 김오성씨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체육인이 많았는데 양양 철광석 운송선 노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집

1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속초문화원은 2010년 한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험하고 확산해왔다. 그中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 문화관광부 주최의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거점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뿌리내림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강조한 사업이다. 올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진행한 이 사업을 『속초문화』에서 살펴본다.

두근 두근, 문화마루에서 보낸 1년

편집부

우리동네 문화명품, 교육프로그램

속초문화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5월. 관내 3개 아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주 1회 예술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번 교육은 놀이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창의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량향상 위주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지역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

청호동 위스타트 아이들은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인 ‘도문농요’를 통해 소리극을 배웠다. 도문농요를 매개로 우리 민요와 전통 소리를 익히고 극을 만들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포스터를 그리고 무대에 사용할 배경막도 직접 그렸다. 몇몇 친구들은 영상교육을 배워서 작품 만드는 과



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발표회 때 함께 감상했다. 그야말로 소리와 국악, 미술, 영상이 어우러지는 통합문화예술교육이었다.

하나로 아동센터와 행복한 흄스쿨 아이들은 ‘따로 또 같이’ 북청사자놀음을 배웠다. 북청사자놀음에 들어 있는 애원성과 통소, 북 장단을 공통으로 배운 후 각각의 대본을 스토리텔링하여 작품을 만든 것. 하나로 아동센터는 사당거사와 사자춤을, 행복한 흄스쿨 아이들은 애원성과 칼춤을 배운 후 합동 발표회를 가졌다. 지역문화를 같이 배운 아이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를 보는 것도 이 교육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은 지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무심코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문화라는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자극을 만든다. 스토리텔링에 의한 대본작업에서 3~4개 작품이 나왔고 이 중 한편을 완성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7회 정도의 영상교육을 받은 후 속초의 생태문화를 담은 영상물을 만들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기에 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프레임에 담은 속초의 생태문화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했다.



협조에서 협력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본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문화예술강사 등의 문화기획 인력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중복을 막고, 단계별 향상 프로그램이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초문화원은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다양

한 기관 및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확산하고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수혜기관을 비롯해 다솜 아동센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참여 기관으로 만났고 총 40여명의 문화인력이 교류했다.



우선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실무자와 예술강사와의 간담회는 총 5회 실시했다. 5월에는 기관별 문화예술 교육의 현황과 본 사업의 이해를 공유했고, 7월은 3개월간 운영 결과 및 개선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10월과 11월은 통합발표회를 위한 준비과정을 공유했다. 본 간담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논의와 능률성을 올리기 위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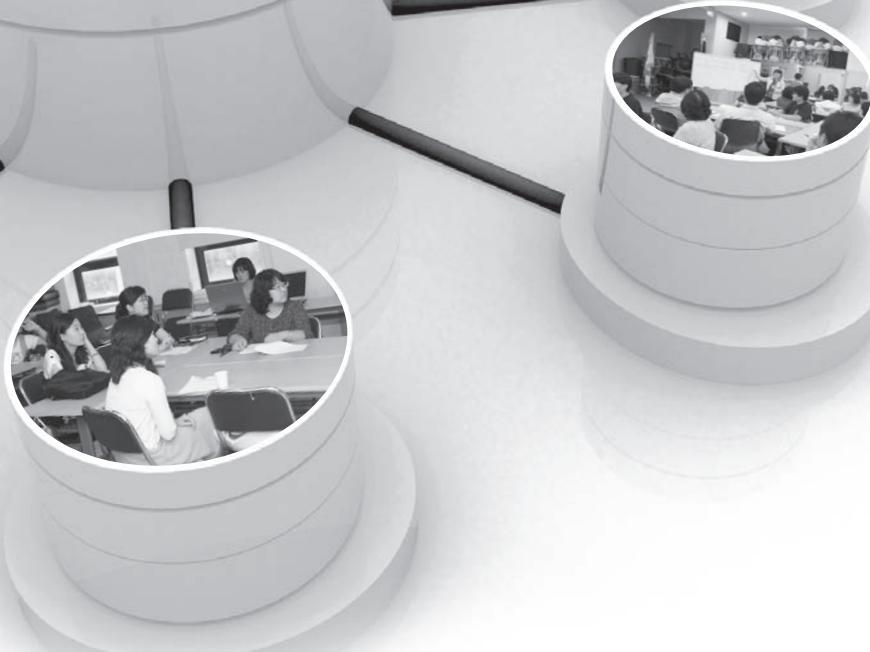
워크숍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1차 워크숍은 카톨릭대 임학순 교수의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과 네트워크사업에 관한 강의, 이춘아 컨설턴트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참가자들 모두 본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워크숍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문화 ‘사과’와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의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문화예술교육 사례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열정과 고민을 풀어놓고, 2011년을 준비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 걸음마를 떼다

이제 첫걸음을 떼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다.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문화학교를 기다리는 수강생들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 문화마루를 놓겠다는 예술강사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지역문화 속에서 예술이 꽂피는 행복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한꺼번에 만개한 행사가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통합발표회’였다. 이날 발표회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뿐만 아니라 속초문화원이 진행하는 모든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이 한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발표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어 6시 30분에 끝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참가자나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흥분을 안긴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 단체(기관)가 잘 하는 방법에만 익숙해 있던 곳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생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이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협조관계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질적 변화를 갖고자하는 것이었다.

지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한글문화마당 대표
이 춘 아

지역거점 네트워크 사업이란

2006년부터 시행되었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2010년 올해부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일반 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일반 공모의 경우 예전과 같은 형태로 개별 단체(기관)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자체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고, 기획 공모의 경우 거점단체(기관)가 지역단체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 경우도 자체와 매칭하여 지원되었다. 일반 사업의 지원규모가 2천만원 이하였다면, 기획 사업의 경우 1억원 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공고되었다.

2010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기획 공모 사업으로서 ‘지역거점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국 27개 단체(기관)였다. 광역 단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 2곳, 경기 지역 2곳, 인천지역 2곳, 강원지역 2곳, 충남 지역 2곳, 대전지역 2곳, 충북지역 2곳, 경북 지역 1곳, 전북지역 2곳, 대구지역 2곳, 광주 지역 1곳, 울산지역 2곳, 부산지역 2곳, 경남 지역 2곳, 전남지역 2곳이었다.

기획공모 사업의 핵심은 개별단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지역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범위는 기초단위 시·군·구로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강원도 속초시 또는 충남 금산군, 울산 남구 등의 지역 범위 내에서 선정된 거점단체(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기관과 수혜기관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거점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렵고도 재미있는 부분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물론 선정된 단체(기관) 모두 나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잘 명시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지금·바로·여기’에서 시작되는 네트워크의 의미는 각각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점 네트워크 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네트워크 사업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왜 네트워킹을 해야하는지?’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네트워킹인가 였다.

내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교육을 꽂 피울 수 있을 것인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려웠다. 내 단체(기관)

가 잘 하는 방법에만 익숙해 있던 곳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생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이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협조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질적 변화를 갖고자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었다. 선정된 곳 대부분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위상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기에 개별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개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단체(기관)들이 협조하여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가 평균 6개나 되었다.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거점 네트워크 사업은 협력기관과 수혜기관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선시 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거점네트워크 사업으로 선정된 27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트워크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를 반영한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한 결과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점 네트워크 사업의 취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지역의 사회문화예술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포괄하여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한 유형이다. 둘째,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만들기 위해 몇 개 협력단체들과 강사들의 역량강화에 주력한 유형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의 단체와 기관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수혜기관들을 지원해나가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주력한 유형이다.

이들 유형들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지역의 현실정에 맞춰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거점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한 결과,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어쩌면 개별기관 입장으로는 투입된 노력대비 손해였다고 할 수도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공공성과 당위성을 갖지 못하면 ‘내가 왜, 내 단체(기관)이 왜 고생만해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27개 기관 모두 협신적으로 노력해 주었다. 그 가운데 지역의 현실정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거점네트워크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비전과 목표설정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 이를 위해 달성해야할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 비전은 3년에서 5년 내에 이를 중기 비전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한다.

협력기관 탐색과 네트워크 구성 : 목표를 함께 이를 수 있는 협력기관(강사진 포함하여)을 탐색해내고 교육 대상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인식공유와 관계 형성 :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 이때 서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를 프로그램화한다.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다. 갑

과 을의 관계가 아니며, 서로 아는 처지에서 단순 협조 차원의 관계가 아닌 비전 달성을 동력자로서 진정한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네트워크 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아닌가 싶다.

네트워크 활동 : 문화예술교육 시행기관의 강사들과 문화예술향유의 대상 기관 담당자, 그리고 향유자(교육대상자인 학생, 시민 등 향유층)가 포함된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목표로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활동이다.

주요 방식은 사례발표 형식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진들의 강의발표 및 토론이다. 강사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좋은 교육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강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동센터,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교육대상 기관의 실무자 역시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대상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기관의 소통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들을 도모

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네트워크 결과로서 성과 :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는 협력기관의 범위를 넓혀나감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트워크 사업 우수사례

2010년 27개 선정기관 가운데 네트워크 사업을 가장 잘 운영한 인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산문화원의 경우, 학교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대상 층은 아동센터의 어린이, 문화원의 지역주민, 초·중·고등학교생, 학산소극장의 주부 등

이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대상의 통합형문화예술교육으로 ‘신나는



동네 움직이는 이야기’, 지역공동체문화학교를 위한 ‘주민이 가꾸는 마을’, 평생교육연계문화예술교육으로 ‘미술심리치료과정 마음지도’, 연극교실 ‘엄마, 연극여행을 떠나다’, 학교지역사회연계를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등 모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교육운영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오프 파티’>를 하면서 교육담당 강사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례발표를 하고 참가자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총6회 진행하였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팅 워크숍>을 하면서 협력기관과 수혜기관(교육대상기관)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구상,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획력 강화 프로그램을 총5회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만으로 급급한 현실인데 네트워킹 프로그램만 11회 운영, 진행자 뿐 아니라 참가자들도 빽센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네트워킹 과정을 보면 학산문화원의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자원을 총체적으로 보고 실행하는 훈련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하게 한다.

결론은 ‘인천 남구 주민들은 좋겠다’ 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김은주
행복한 훌스쿨
담임교사

처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정확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아동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센터에 오면 뛰어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동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을까?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다. 하지만 “북청사자놀음 오감체험”이란 프로그램은 생소하고 새롭지만 문화예술교육, 전통문화 등을 많이 접해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동들에게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아동들은 “북청사자놀음” 하는 날이라고 알려주면 환호성을 지르는 아동들은 있었지만 싫다고 짜증을 내는 아동들은 없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게임과 퀴즈 등으로 통해 아동들의 흥미를 일으켜 주며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매주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점이 지속성은 없어 보였지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다. 또한 매번 수업 후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흥미를 갖는 아동들이 생겼다.

아동들이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해도 애원성 춤도 배우고, 북으로 장단도 쳐보고, 통소라는 악기도 만져보고 연주도 해보면서 아동들이 많이 즐거워했다. 또한 후반부에 디지털 영상기기로 촬영도 해보고 아동들이 촬영한 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아동이 자신이 나온 부분에 웃기도 했으며 자존감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아동들을 볼 때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신 문화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직 몇 번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수업이 남아있지만 다음에도 지원해주세요 더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놀 줄 알게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황영호
소리극·그림자극
주강사

온 세상이 교육천지입니다. 여행도 교육이고, 공연관람도 교육이고, 어떤 것을 만들거나 체험하는 것 또한 교육입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결과를 향한 주입식교육은 제가 하면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 친구들은 무엇인지도 모를 수많은 이야기들을 과정이수라는 목표 때문에 단순반복학습과 주입교육으로 일관되는 것이 재미있을 리 없을 것입니다.

늦더라도 이해하게 하고 스스로가 창조하게끔 하는 교육이 다음 활동을 기약할 수 있고, 그 무엇이 되었던 흥미를 잊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흥미를 잊어버린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좋더라도 지속가능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스타트에 수업을 나가면서 처음부터 노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멀리 안동에서 속초까지 어린친구들과 놀기

위해 가서, 지도하는 저희들에겐 노는 것을 가장한 교육이었지만 말입니다.

함께 논다는 것.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이 익숙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혼자 마우스로 게임하고, 학원하고, 숙제하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을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도문농요를 활용해 소리극을 만들려 간 우리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밖에서 보고 있자면 놀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놀았으니까요. 그러나 놀 때 만큼은 학생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신나했었고, 큰 목소리, 열정적인 참여, 함께 해야만 한다는 규칙, 그들 속에서 생성되는 리더와 다양한 의견들 등 그때만큼은 어린친구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를 위해, 성과를 위해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노는 것을 관두자니 내가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놀이를 배웠으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놀 수 있게끔 맡겨야 할 때가 온 때입니다. 전 그저 남은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노는 것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좀 더 다양한 놀이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시만 해줄 뿐입니다.

부디 공연이라는 형태의 결과를 보고 어린 친구들의 일 년 과정을 평가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의 멋짐과 화려함을 요구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위스타트 친구들은 이제 갓 놀이에 대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우리의 교육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친구들에게 약간의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직업적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 보자고 계획했습니다.

우리문화 이야기는 돌아보기-둘러보기-드러내기를 통해 지역의 많은 소중한 문화들을 파악하고 현대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자극이라는 공연물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각자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접근해보면 공기와 햇빛처럼 우리주위에 너무 친숙하게 있었기에 소홀한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의 파악에서부터 공연까지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이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지역의 문화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수많은 숨은 이야기들을 꼬집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대본으로 만든 후 그림자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색입니다. 지역의 사투리, 음식, 관습들은 너무도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공식석상

또는 장소에 따라서 우리지방의 말인 사투리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지역의 관습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그림자극에 녹여내려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속초를 보아 왔던 지역민들이 지역의 구수한 사투리를 쓰면서 지역민이 느끼는 속초에 대한 이야기를 공연화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공연일 것입니다.

만들어진 공연은 내적으로는 지역 자립문화를 형성, 외적으로는 속초를 쉽게 잘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전문 공연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드는 과정의 행복함에 수업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전국 어디에 서나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속초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공연을 스스로들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일을 시도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일을 한 것이 아닐까요? 결과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의미만을 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시작함에 있어 너무 결과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의 무능함을 이렇게라도 해서 애써 책임을 회피해 보내요.

생활 속에 많은 문화, 예술, 공연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속초에 대하여 유를 가지고 사계절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탄식 하실테니까요!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들의 소통이 중요

김 청 익
·
보조인력
·
보조강사

이번 속초문화원에서 주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의 내용과 질 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기관, 사람들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기획 초기에는 관계형성인 네트워크 보다는 통합교육에 치중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문화유산인 북청사자놀음을 중심으로 미술과 영상, 스토리텔링, 국악, 연극, 무용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모인 “북청사자 오감체험”과 또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인 도문농요를 이용한 소리극 만들기가 중심적으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지역민을 중심으로 마당극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교육 수혜를 받는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이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본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한 그림자극이다. 기획 초기에는 마당극을 이용해 지역의 의미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원봉사 동아리로의 확장을 통해 지역 문화 인프라 형성에 기여하자는 의도였으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그림자극으로 수정 되었고 영상, 미술과의 교류작업도 수정이 된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그림자극이라는 프로그램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성과를 가졌다 고 하겠다. 지역에 그림자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장르가 도입되었고, 전문가가 아닌 지역민들이 이야기의 구성과 제작, 연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 인프라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혜 대상에 대한 깊은 고민이 모자란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다.

다음은 도문농요를 이용한 소리극이다. 기획단계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인 도문농요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아동들과 소리를 창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스타트라는 아동센터의 특성상 아동들의 이동이 많고, 한 번에 다수의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 주강사와 문화원의 협의 아래 핵심 컨텐츠인 도문농요를 과감히 포기하고, 수혜대상인 아동들과 새로운 농요를 창작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

다.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몸과 마음을 열고, 간단한 리듬꼴을 중심으로 농사 관련 가사 만들기를 병행해왔다.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아동들 스스로 만든 사설에 기본적인 국악 리듬꼴을 적용하고, 꾸미지 않은 듯한 연출로 아동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점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함에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수적임을 알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다음은 북청사자 오감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기획 단계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대상이 초등중심의 아동 센터로 바뀌면서 난항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북청사자놀음라는 중심 연행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북청사자놀음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인 프로그램인데 교육적 기대치가 유아와 초등학생이 너무나 달랐다. 거기마다 기획 단계에서 생각한 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기 힘들다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사례이기도 하다. 주강사가 북청사자놀음의 전반적인 부분은 강의 하되 탈은 클레이 아트와 종이죽으로 만들고 이야기 구성은 스토리 텔링으로 아이들과 창작하며 영상으로 이러한 과정을 촬영하여 간단한 다큐멘터리로 꾸민다는 설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다. 분야가 다른 만큼 각각의 파트를 책임질 강사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

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혜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접해보는 시간이므로 일관된 교육적 시각과 관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각 분야별 강사가 각각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아동들에게 혼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통합예술수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두 곳의 수혜기관에서 진행하였는데, 수혜기관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온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면 각각의 강사가 북청사자놀음이라는 컨텐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거점기관에서 요구하거나 기획한 부분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도 강사의 역량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수혜대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호기심이 가고 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혜자들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방법과 수혜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수혜자와 강사, 거점기관이 모두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속초문화원
이정무
사업과장

올 초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받고 사업공모를 받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사업준비하고, 워크숍 참가, 프로그램 진행하며 바쁘게 시간이 흘러 벌써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반 수혜기관과의 네트워크 문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방식의 변화, 네트워크사업(워크숍, 간담회)의 어려움 등.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준비 기간부터 지금까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돌이켜 보면, 초반에는 네트워킹의 부족이 정말 모두를 어렵게 하더군요. 한 수혜기관 교육은 교육시작로부터 장소문제, 교육생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른 곳은 그 날에 교육이

있는지 모르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등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졌다라는 후문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육이 진행 되면서도 교육생들의 문제, 프로그램 문제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다행이도 저와 보조인력 김청익선생님이 모든 회차 교육현장을 찾아가며 교육모니터링하며 강사들과 수혜기관 담당자 간에 대화를 지속하다보니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더군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고, 워크숍·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춘아 선생님의 말씀처럼 “무관심→관심→협조→협력” 이러한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너무 과대 해석하여 어떻게 해야 네트워킹이 될지를 고민하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며 이야기하다보니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더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지금은 편하게 서로의 생각을 논의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서로 필요한 것을 총족시키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작게는 본 사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원원할 수 있도록, 크게는 지역문화예술교육 마당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궁극적인 활동이 네트워킹의 활성화가 아닐까요?

이제는 사업 성과와 내년 사업의 기본 틀을 생각해 봐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성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선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속초에서 그동안 하지 못한 장르 교육을 개척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은 국악, 연극, 미술 등 한 프로그램에 한명의 강사가 기능발전위주로 교육하였다면, 통합문화예술교육은 한 프로그램에 국악,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각 장르의 강사가 교육하여 다양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올해는 처음인지라 강사간 교육 진행에 대한 공유가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수혜자 및 수혜기관담당자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극, 소리극 등 지역에서 교육하기 어려웠던 장르 교육을 실행한 점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아직 작지만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 방관의 자세로 마당 주위를 도시는 분도 계시고, 마당의 넓이도 아직 협소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첫 시작보다 적극적으로 노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마당 또한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네트워크라는 마당에 모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점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 교육프로그

램으로는 기존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포함하여 속초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환경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리움문화학교”를, 속초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교육 배움터 “유치한문화학교” 등 수혜기관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고 다른 수혜기관과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네트워크사업으로는 올해 네트워크 사업의 개선점을 참조하여 분야별 네트워크를 실시하려합니다. “문화예술교육강사 자율연구모임”은 각 프로그램 별 문화예술강사들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모임별 멘토를 두어 강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실무자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수혜기관 담당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네트워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 계획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많은 힘을 내야겠죠.

이렇게 본 사업의 어제, 오늘, 미래를 생각하니, 참~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현 활동가와 미래의 협력자들이 함께 걸어가면 어렵지만 재미있게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흐뭇한 상상을 합니다.

어느덧, 내 일상에 들어와 버린 문화, 고마워!

최미숙
그림자극 교육생

속초문화원이란 곳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때이고, 나와는 아주 무관한 단체라는 생각만 갖고 있을 때, 속초문화원의 공지를 보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림자극”과 “영상으로 그리는 속초”를 현재 수강중에 있다.

봄이 끝날 무렵, 우리문화이야기보따리 그림자극 배우기 교육이 있다는 안내를 보았지만 나의 일정과 맞지 않아 주저하였으나, 하던 일이 끝날 즈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활 했는데 고맙게도 흔쾌히 수강이 허락되었다. 어쨌든 그림자극 만들기란 생소한 말이 약간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든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속초를 제대로 알아보자 하며 겁 없이 도전했었다. 그러나 참여 못한 시간 동안 내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미 지나가버렸고, 바로 그림자극 스토리 작업에 들어갔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계속 했다. 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내게서 나온 시나리오에 초점이 맞춰지고(불행히도 숙제 한 까닭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빠질 수 없

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림자를 만들 때는 월요병이 생겨났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그림을 못 그리는데다 왕소심쟁이 A형인 나는 더더욱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리고 불이고, 때로는 장면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상상을 해가며 그림자를 하나 둘 만들다보니 신기하면서 웬지 모를 뿌듯함

까지 생겨났다. 게다가 이미지가 막힐 때는 머릿속으로 간결하고 쉬운 이미지를 상상하면 마음 또한 가벼워졌다. 아직 그림자극이 갈 길이 멀고, 월요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진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변화들이 강사님들의 배려 아닐까 한다.

두 번째 도전은 “영상으로 그리는 속초”. 이것은 인연이 날은 결과물이다. 어쩔 수 없음이 날은 선택이었지만 선생님의 자유로움이 날 편하게 했고, 영상으로 본 속초의 모습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REC도 제대로 고지도 켜지도 못하고, 화면도 흔들려 우습지만 야외에서 하나하나 풍경을 담아간다는 게 참 좋다. 때문에 속초의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내게 생긴 것 같다.

문화.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했었으나 속초문화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선택은 나의 몫이었기에 나는 속초에서의 이 행운을 맘껏 누리려고 한다.

특집

2

설악문화제를 논하다

45회 축제의 성공과 실패
46회 축제에 대한 짧은 기록

축제는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다시, 축제를 논하기에는 아직 먼 시간이다. 그 때 설악문화제는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 의뢰를 하였다. 45회를 논하고, 46회를 말해달라고. 물론, 향토사연구소는 축제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니다. 그저, 지역에서 축제를 들여다보고, 축제를 욕망하며, 축제를 말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뿐이다.

속초문화원은 그들에게 45회 축제를 모니터하자고 권했고, 46회 축제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45회 설악문화제는 역사적

으로 가장 변화가 큰 축제로 기록될 것이다. 3주간 6일 동안, 10월 한 달간, 속초는 축제로 들끓었다. 엑스포 광장을 뛰쳐나가 설악산으로 설악로데오거리로 마음껏 일탈을 하였다.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이르다. 어떤 이는 당혹했고, 어떤 이는 값진 경험이라고 말할 뿐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45회 설악문화제가 어떻게 기획되었느지에 대한 인터뷰를 읽고, 46회 설악문화제에 대한 제언을 볼 것이다.

판단은 당신의 뜻으로 남긴다.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한 설악문화제의 도전

설악문화제를 말하다

제45회 설악문화제가 시작되기 전, 향토사연구소 위원과 설악문화제 최백수 사무국장이 만났다. 올해 축제가 어떤 의도에서 기획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기획 및 성장관점을 중심으로 축제의 홍보마케팅과 조직, 주민참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지난 9월 28일(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사무국 시스템,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회자 :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저희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 제45회 설악문화제의 모니터링 용역을 준 이유는 지역의 문화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축제 평가용역은 방문객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와 행사운영 및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제언, 축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위원님들에

게 의뢰하고자 하는 모니터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설악문화제를 보고, 고민하셨던 지역의 준전문가들의 시선을 녹여내고, 특히, 설악문화제가 문화관광과 향토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 당일 참관하여 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았다면,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사전에 축제 기획자인 설악문화제 사무국장

과 함께 올해 축제의 맥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축제의 기획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종의 사전점검이 있어야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모니터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담이나 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쉽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통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

전에 전해드린 대당 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보니 논점과 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총 6가지의 주제로 압축하였고, 세분의 모니터 요원들이 각각 2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앞서 어쩌면 오늘 진땀을 흘릴지도 모를 설악문화제 최택수 사무국장에게 올해 설악문화제는 어떤 원칙과 지향점을 가지고 준비하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 축제의 의미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속성의 축제를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1966년 처음 시작한 설악제의 모습과 2010년의 설악문화제의 모습은 지속성도 있어야 하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난 2006년부터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설악문화제의 가장 큰 의미가 역

사성에 바탕을 둔 지속성이라면, 둘째는 변화발전에 두어야 되지 합니다. 지키고 가야할 것과 버리고 가야할 것을 정리하면서 현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화합,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문화소통, 속초시가 갖고 있는 문화의 흐름, 속초문화의 정통성, 도농 간의 소통을 통해서 속초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이번 축제기획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경선 : 이번 축제는 내용적 차별성이나 지속성 등에 있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장소와 시기를 바꾼 점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일단, 축제를 통한 지역민의 화합, 설악제에서 출발했다는 축제의 정통성,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점이 고민이었는데, 기획분과 회의에서 모 위원이 그러면 모두 자르자는 의견을 내주셨고, 거기부터 고민을 시작했어요. 지역민 화합의 경우 10월 2일이 속초시민의 날이니까 그 때 동별 대항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

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설악산으로 이동할 계획인 2주차 행사는 어차피 설악문화제가 설악산에서 시작한 축제니까 그 정신도 이어나가고, 10월 단풍전에 설악산에서 설악제 행사 를 가진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주차 행사의 경우 주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는 장소를 고민했는데, 그곳이 로데오거리인 거죠. 사실 축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무모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설악문화제의 가장 큰 의미가 역사성에 바탕을 둔 지속성이라면, 둘째는 축제를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엄경선 : 사실 44회까지의 축제 구조도 지난 2006년 지역특성화 전략에 의해 실향민, 해양, 산악이라는 테마를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그게 3주차로 나누면서 그 테마성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 일단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 :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테마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던 그 테마성이 서로 혼재되다 보니 이후에도 설악문화제의 색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는 점도 분명히 컸습니다. 그래서 설악문화제가 품고 있는 색깔을 장소와 시기 별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 때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과학축제나 책축제, 해오미21의 환경축제가 10월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대부분 설악문화제 기간에 같이 개최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축제를 적극적으로 껴안아서 '10월, 속초는 축제 중'이라는 콘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이라는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난 측면도 있지만, 향후 설악문화제가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계절별 축제로 나뉜다면 속초의 축제문화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3회는 주민참여행사를 본행사장과 분리하여 본

행사장은 문화관광축제로 제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는 시기를 달리하여 주민화합이라는 가치도 지켜내고, 설악산과 설악로데오거리라는 도시브랜드도 부각시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경선 : 다양한 가치가 혼합된 설악문화제가 짧은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다보니 주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설악산 행사가 그랬죠. 올해는 분리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나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앞서 말한 가치는 기획단계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김경석 : 테마성의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설악산에서 하는 행사는 산촌문화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이 가미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해양이나 실향민도 크게 부각된 행사가 없습니다. 그저 몇몇 먹거리체험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체험할 수는 있지만 속초라는 공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획서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축제를 강조했는데 그런 점도 볼 수 없어서,

축제의 처음 기획의도와 실제 프로그램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테마성은 지난 2006년에 실향민과 산악, 해양이라는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올해는 시기와 장소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접근을 하기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재환 : 예전에 우리가 설악문화제의 성격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테마성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실향민, 해양, 산악이라는 테마성은 올해도 계속 가져가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특징을 포지셔닝할 수 있는 메인테마가 없다는 점 때문에 테마성의 실종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인근의 강릉이나 양양은 단오와 송이, 연어라는 분명 하는 주제가 있는데 아직 우리 설악문화제는 그런 것이 없죠.

김경석 : 설악문화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인 점은 분명한데, 그런 설악문화제가 예전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

다. 다만, 그런 기획의도가 프로그램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점이 빈약합니다. 실제 지역의 향토문화를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참여할 때 감동과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재환 : 실제 그런 프로그램은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힘들고 지속적으로 축제에서 나타날 때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그동안 설악문화제가 민간으로 오면서 매년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하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하는데, 설악문화제의 구조가 그렇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획분과가 지난해에 구성되었고, 저나 엄경선 위원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속성이나 연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설악문화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획팀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 지금 테마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설악문화제 조직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일단, 조직 문제는 다시 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대한 사무국장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3주차에 걸쳐 행사를 나눴는데, 사무국에서는

대에서 이틀간 펼쳐서 속초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2주차 설악제는 메인이 산악인 등반대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실 설악제 초창기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간 설악의 능선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당일 프로그램이 되

올해는 시기를 달리하여 주민화합이라는 가치도 지켜내고, 설악산과 설악로데오거리라는 도시브랜드도 부각시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테마성이나 메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모니터링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사무국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 : 1주차의 콘셉트는 세대와 장르를 같이 녹여내는 점입니다. 과학싹잔치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종목별 동 대항 경기는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도 속초의 향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의 전시회나 발표회를 메인무

어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달마봉이라는 매력적인 코스를 개방하기 때문에 전국 산악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 설악산의 야경입니다. 법에 의하면 국립공원 야간개방이 금지되어 있는데, 1년에 단 한번 설악제 기간에 설악산 소공원을 개방하여 설악의 아름다운 별빛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콘서트나 엄홍길 대장과의 토크쇼 등을 배치하여 산악문화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3주차 행사는 '길 위에서 예술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속초의 축제는 행사의 편의성 때문에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점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악로데오거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공연을 배치하여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거리축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거리퍼레이드도 이런 측면에서 기획되었는데, 그 결과는 행사 당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시민화합의 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각 동별 대향경기 등의 행사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엄경선 : 시기와 공간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는 기획회의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여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3주차 행사 중 2주차 행사는 설악산이라는 테마가 분명히 드러나고, 부대행사도 테마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차 행사는 주민참여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테마의 충실성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시민화합의 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각 동별 대향경기 등의 행사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한 주민참여, 예전에는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설악문화제가 그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체육대회도 많았는데 그중 일부는 지금 다시 부활시

또 승부를 해야하는 대회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체육대회는 떨어져나가고 동대향 경기 중 문화행사에 가까운 프로그램만 남았습니다.

대동제라는 측면에서는 충남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 대회가 좋은 예입니다. 이 행사는 오로지 줄다리기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일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테마의 발굴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처럼 1차, 3차 산업 위주의 구조에서는 주민이 일시에 참여하는 자발적 참여문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무국 : 축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쌔름대회, 축구대회 등이 설악문화제 기념으로 개최되었는데 행사의 다양성이거나 집중성의 문제가 있고

엄경선 : 1주차의 메인테마가 결국 주민참여라면, 우리가 최근의 문화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생활체육을 보면 동대향 축구대회가 아니라 동호인 위주의 축구대회인데 설악문화제가 이를 동호인의 모임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합니다.

장재환 : 예전의 체육경기는 지

금의 동호인 위주의 생활체육과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체육경기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경연대회 특유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민한마당에 진행할 동대항 행사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얼마나 대변하여 차별성을 가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거리퍼레이드도 좋은 기획이긴 한데, 그 내용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뻔한 내용이면 몇 해 하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산악이나 해양, 실향이라는 고유성이 함유된 거리퍼레이드면 좋겠어요. 하지만 올해 거리퍼레이드에서는 그런 기획이 보이지 않다보니 지역문화를 반영한 메인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주민참여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 단계 설악문화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악문화제가 매년 진일보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재교육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국 : 동설악문화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예전에 가장 행렬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 퍼레이드를 지금도 개최할 수 있다면 좋고, 실제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같은 반응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를 이끌겠느냐. 그래서 다음 대안이 학교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원가기 바쁘죠. 주민참여라는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무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경석 : 속초시민 한마당 같은 경우에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이 동별로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랑동에 있는 전통문화를 개발해서 설악문화제 기간 중에 발표하여 속초 시민과 공유하는 일, 이런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설악문화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또 산촌문화나 해양문화 역시 실제 이름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바탕 아래 올해 개최하려고 하는 행사들이 덧붙여지면 좋을 텐데, 테마나 전통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3주차 행사인 로데오거리 행사의 경우

주제가 '거리에서 예술을 만난다' 인데,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현대적 거리예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보이질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엄경선 : 동 단위로 행사를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지역에서 문화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보면 획일적이예요. 고민이나 기획이 없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만든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정단위의 구분은 방해요 소일 뿐입니다. 설악문화제는 이런 동호회 문화, 동아리 문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주차는 사실 과제입니다. 1주차 2주차에 비해 색깔이 약한데, 거리퍼레이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 : 장기적 전망으로는 속초의 매력을 홍보하게 보여주고, 외지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토마토축제같은 테마가 하나 있다

면 좋은데 아직 그 테마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장재환 : 토마토 축제에서 퍼레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마토라는 주제가 중요하듯이, 우리 축제도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건 퍼레이드만으로는 부족하고, 퍼레이드의 내용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소재나 주제가 있어야 관광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제는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설악문화제의 모습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거리퍼레이드의 주민참여 부분을 예로 들면,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설악문화제가 주민참여의 방향을 정하고, 거리퍼레이드 테마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한다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기존의 문화동호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설악문화제는 지역의 문화역량이 분출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하기엔 설악문화제 사무국의 조직이 너무 허약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설악문화제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 : 위원장단을 제외하면 기획실행분과, 지원분과, 설악 산악제전, 해양민속제전, 실향 민제전, 사무국, 동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장재환 : 현 조직구성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특히 아까 말이 나왔던 주민참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현 조직구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현재의 조직구조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위주의 조직이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기획 실행분과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의 젊고 유능하신 분들을 모셔서 올해와 같은 축제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부분은 결국 동설악위원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사실 애매한 것이 있어요. 소통과 참여라는 측면에서 아쉽죠.

사회자 :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참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긴데, 거기엔 사무국 조직의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이 모

든 일을 끌고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사무국 :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동설악위원회와 대화를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참여의 부분을 모색해보고, 소통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사회자 : 잠깐 정리해볼까요. 올해 설악문화제는 예년과 크게 다른 기획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긍정과 우려가 뒤섞였는데, 그중 아쉬운 점은 테마의 개발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측면과 지역문화 지원의 활용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한계는 설악문화제라는 조직의 한계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가 저희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의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악문화제위원회가 연중 회의를 하는 조직은 위원장단과 기획실행분과인데, 이중

기획실행분과는 설악문화제의 테마나 주제를 개발하는 성격의 조직이기 보다는 주어진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의견개진 정도로 한정됩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무국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사무국 : 올해 설악문화제 정기총회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획실행분과장이 설악문화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한 점입니다. 저는 기획실행분과를 통해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사무국 위주의 설악문화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 전문가 혹은 문화활동가의 시각이 담겨 있는 설악문화제를 지향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기획실행분과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기획을 할 줄 아는 분들을 모셔서 설악문화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설악문화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리퍼레이드의 연출을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가에 맡기고, 퍼레이드카도 임차하기 보다는 지역분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당장에 모

양이 안나고 연출이 역량이 떨어질지 몰라도 해를 거듭하면 그것이 우리 속초의 문화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분과 역시 워크숍이나 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매년 나아지는 설악문화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재환 : 저도 기획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활용은 조금 아

은 모습이 될 듯합니다.

사무국 : 바람직한 설악문화제의 조직구성을 말한다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홍보파트, 행사장 조성이나 디스플레이 등 실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가동되고, 사무국은 그걸 돋는 행정조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설악문화제의 조직구성을 말한다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홍보파트, 행사장 조성이나 디스플레이 등 실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가동되고, 사무국은 그걸 돋는 행정조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쉽습니다. 말씀한대로 지역에서 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인력들이 모여서 설악문화제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기획분과인데, 올해의 경우 45회 설악문화제를 준비하는 모임이 되다보니 모든 회의가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각자가 제 영역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론은 부족했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한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있으면 좋

장재환 : 설악문화제 조직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업의 실행이 전반적으로 늦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엄경선 : 예컨대, 설악로데오거리 축제는 주민 및 관광객 대상이어서 홍보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채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무국 : 관광객 대상의 홍보가

행사의 테마성이 관광객에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홍보물 하나라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개발이나 먹거리 개발 등도 함께 연계되어야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툴게이트에서 팸플릿 나눠주는 정도나 현수막 부착입니다. 다른 축제의 경우 언론 홍보를 위해 팸투어 등을 하는데 설악문화제는 현실상 불가능하고, 가장 큰 홍보는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장재환 : 언론사 팸투어는 장기간 진행되는 축제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설악문화제는 예산뿐만 아니라 팸투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김경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전국 축제를 보면 설악문화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 축제에 비하면 설악문화제가 아직 초라한 수준인데,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온라인 홍보도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면 관광객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엄경선 : 축제홍보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설악문화제는 연중 계획된 홍보플랜이 없습니다. 타겟별, 시기별 마케팅을 통해 플러스 알파를 창출해야 하

죠. 예컨대, 관광객 대상의 팸플릿과 주민대상의 팸플릿은 달라야 하고, 올해 설악문화제의 주제를 부각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홍보위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 사무국장 1인 체제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홍보위원회는 절대 공감하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의 경우 축제의 메인이 없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팸플릿의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없는거죠. 또한, 현재 홍보예산을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홍보예산을 많이 쓰다보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다보니 고민되는 점이 많습니다.

사회자 : 테마의 부족, 사무국 인원의 부족이 효율적인 홍보에 걸림돌인데, 현수막 차별화나 홍보계획은 연초부터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설악문화제의 한해 계획이 너무 늦게 세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무국 : 그래서 홍보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연초부터 상설화 시킬 계획입니다.

엄경선 : 연초에 어느 정도 기획이 나온다면 홍보 타이밍이 더욱 빨리질 수가 있겠죠.

사무국 : 올해 예산이 당초에 잡혔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에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보는 보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경선 : 메인행사는 기획 초기부터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일반 음식점이나 특산물 등의 매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도 있죠.

사회자 :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축제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축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분류는 문화형과 산업형으로 나누는 분류입니다. 산업형 축제의 경우 가장 큰 모델은 보령머드축제인데 관광객들에게 축

제 특유의 일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성공한 축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설악산과 동해바다 자체가 일탈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객 유인요소가 적은데다, 도로발달 때문에 무박 2일 코스의 여행 패턴이 자리잡고 있어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재환 : 설악문화제라는 축제의 성격을 볼 때 경제성을 너무 앞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축제 자체의 차별성이나 테마를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무국 : 사무국 입장에서는 세금만 축내는 낭비성 축제라는 비판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엄경선 : 관광객들을 위하는 행사라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설악산 행사가 끝나고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이벤트가 있어야 하죠. 또한 관광객을 위하지는 않더라도 행사의 테마성이 관광객

에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홍보물 하나라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경석 : 우수축제의 특징이 외지관광객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하는 점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의 경우 설악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때, 설악동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개발이나 먹거리 개발 등도 함께 연계되어야 합니다.

장재환 : 예산 운영도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에는 힘이 들고, 비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석 : 그동안 설악문화제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홍보전략이나 재교육 등의 기획비용이 발생할 수 없었는데, 이젠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면 앞으로 설악문화제의 발전이나 폭넓은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일찍 편성되어 보다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어야 합니다.

최택수 : 홍보나 기획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안을 연초부터 편성하여 가도록 노력하겠다.

장재환 : 예산을 1년 동안 준비된 사업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설악문화제 기간 즈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재교육비나 워크숍, 홍보비 등이 초반에 편성되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의 준비도 연초부터 계획하여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의 기획의도, 홍보마케팅, 조직구성, 예산 등의 이야기를 통해 설악문화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이 우리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인터뷰가 준비되었습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리고 희망을 보았다

설악문화제를 말하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1. 절반의 성공

제45회 설악문화제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지난 2006년 정립한 ‘실향’, ‘해양’, ‘산악’이라는 테마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화합형 축제, 축제의 정체성(산악), 산업형 축제의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3주간 6일 동안 펼쳐진 행사는 그동안 다양한 가치가 복합되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축제를 자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었다.

시민화합의 성격이 강한 시민한마당은 특성상 관광경제적인 측면은 미약했지만 울산바위 힘겨루기 등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토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올해는 시기를 분리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올해 처음 시도된 왕장기 대회도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설악제는 산악제례의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촌문화를 보여주고, 설악산이라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이 산을 매개로 복합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올해 처음 시도한 메이플콘서트와 夜行星은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악로데오거리 페스티벌은 속초시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로데오거리에서 차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는 축제를 통해 일탈의 재미를 선사하였다. 또한 그동안 엑스포장에서 열리는 축제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행하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시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행사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 사무국 인력이 1명뿐인 상황에서 기획분과를 가동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신흥사와 로데오거리 상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성공적으로 만든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홍보 등 제한적 의미에서의 홍보전략을 선보인 점도 흥미로웠다.

2. 절반의 실패

제45회 설악문화제는 축제의 집중과 분산, 정체성의 정립, 지역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면, 한계점 역시 분명히 드러나는 축제였다.

속초 시민한마당은 북청사자놀음이나 속초도 문농요 같은 차별화된 전통문화콘텐츠를 확인하고 동별 경기대회를 펼쳐 공동체 의식을 고취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다. 하지만 동별로 동원된 특정 시민들만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축제

의 주인으로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 참여의 다양화와 축제 프로그램의 보강, 지역 먹을거리 장터 개설 등의 과제가 시급했다.

설악산에서 개최된 설악제는 단풍철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설악산의 매력과 속초의 다양한 로컬푸드를 선보인 행사였다. 향후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독특한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올해 행사는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었다. Maple콘서트는 남궁옥분 외에 큰 호응을 받은 가수가 없었고, 엄홍길과 함께하는 夜行星은 코스가 너무 짧아 아쉬움을 남겼다. 등반대회 후 소공원에서 개최한 하산식은 설악제에 어울리지 않는 술판을 벌여 관광객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설악로데오거리 페스티벌은 찬반이 큰 행사였다. 시내구간을 행사장을 만든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금, 토 이틀간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시민불편을 끼친 점이 많았다. 그렇다고 관광객을 수용하고 확보할 수 있는 축제 기획은 부족했다. 메인공연장 위치 선정의 실패, 책축제의 공간을 행사장 가운데에 배치했으나 일찍 종료하면서 야간 프로그램이 부재하였고, 시식프로그램도 지나치게 많았다. 거리페레이드는 화려함과 이색적인 요소로 큰 박수를 받았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 제45회 설악문화제 장 · 단점

구분	잘된점	개선점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개최 – 정체성 확립 ○ 새로운 홍보전략 – 스마트폰 활용 ○ 기획분과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개최의 어려움 ○ 홍보마케팅의 시기 및 체계성 결여 ○ 행사장 내 종합상황판 부재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상품화의 가능성 ○ 왕장기 대회 성공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 로컬 푸드 체험공간 부족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 배경의 브랜드 축제 가능성 ○ 신규 프로그램 가능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 홍보부스의 부족 ○ 산촌문화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 거리페레이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향민, 해양 테마의 발굴 부족 ○ 차량통제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 ○ 거리페레이드에 지역 특성 반영 및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측면에서 가장 큰 실패는 홍보마케팅이다. 최소한 축제 개최 6개월 전에는 행사 일정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충분히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해야 하지만 행사 기간에만 홍보를 집중하였다. 그밖에 행사장에 행사를 안내하는 부스나 종합홍보판이 없었던 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였다.

지금까지 제45회 설악문화제의 장 · 단점은 위 표와 같다.

3. 46회 설악문화제 제언

백선혜는 2006년 발표한 논문(『도시문화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점과 구성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문화축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지리학연구』)에서 지역문화축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시공간성, 지역성, 문화성, 제도화, 경제성, 유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시공간성은 축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제의 패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지역성은 축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애 및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고취하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주민이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강화되는데, 참여와 교육을 통해 축제운영을 경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학습하면서 가능해진다.

문화성은 축제의 문화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참가자가 경험하여 문화적 수준을 높 이게 하는 요소이다. 여기에는 축제가 담는 문화콘텐츠를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교육적 기제를 마련하여 문화학습욕구가 높은 축제관객들의 기대를 채워주어야 한다.

제도화는 축제의 성과와 노하우를 다음 축제에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는 장치와 관련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축제의 발전적 재생산을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성은 축제의 개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요소이다. 축제의 경제성은 단순히 개최기간의 한정된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의한 관련사업의 파생, 즉 문화산업이나 음식숙박업, 전통공예 산업 등이 파생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유희성은 관람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즐거움과 해방감을 주어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특성으로 축제의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는 요소이다.[이상 내용은 「해외 불축제 사례분석을 통한 속초불축제 발전방향」,『속초불축제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김병철, 2008)에서 발췌한 것임]

위와 같은 측면에서 제46회 설악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성의 극복이다. 올해 설악문화제는 그동안 접근성이나 행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개최장소로 환영받은 엑스포 공원에서 설악산과 속초로데오거리로 공간적 확장을 하여 속초 전 지역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 확장만 일어났을 뿐 설악산의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악로데오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다. 공간의 확장에 따라 축제 시기도 3주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시공간의 확장에 따른 플러스 요인은 적었다.

46회는 축제공간의 확장은 유지하되 개최기

간은 3주에서 2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시민한마당과 거리페레이드를 함께 개최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축제의 시간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개최되지만 3월부터 축제 홍보이벤트를 하고, 10월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거리페레이드에 주민참여와 지역고유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각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에 설악문화제 거리페레이드반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매개자, 아마추어 동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면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성의 확보이다. 설악문화제는 어떤 축제보다 지역성을 포함하고 있다. 설악제의 역사적 근거는 물론 속초도문농요, 속초 북청사자놀음이나 울산바위 힘겨루기 등의 동별 경기, 실향민문화체험,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프로그램 모두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들 프로그램은 컨텐츠의 개념에서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속초도문농요나 북청사자놀음은 1회 공연에서 매일 공연으로 확장하여 관광객에게 문화상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문농요를 통한 농사체험이나 북청사자놀음의 실향민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

는 것도 과제이다. 올해 실시하지 못한 갯배끌 기대회나 어선무료체험 역시 관광객에게 노출시켜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공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열정적 참여를 통해 지역성을 드러내고, 그 지역성이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성공포인트가 된다. 시민의 삶과 역사가 녹아든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 스스로 축제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 단초는 앞서 언급한 거리페레이드를 통해 자기 색깔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화성의 확립이다. 축제의 유형이 문화관광축제이든 문화예술축제이든 또는 지역화합축제이든 간에 축제의 주제가 명확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축제가 개최지의 향토특성과 고유성, 역사성과 전통성을 표출하고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악문화제는 그동안 테마의 복합성 때문에 뚜렷한 메인테마가 없었다. 메인테마의 부족은 축제의 매력을 감소시켰고, 지역 향토문화축제에 머물게 만들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설악문화제의 매력적인 테마 발굴과 이를 통한 중심프로그램의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설악문화제 사무국의 조직구성으로는 요원하다는 의견만 덧붙인다.

축제의 자기확장성과 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

는 중심프로그램의 개발은 오랜 시간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악문화제는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직구성이 우선이다. 사무국 인원의 보강과 외부 전문가 기획단의 활발한 참여, 축제 사무국의 재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축제의 문화예술적 완성도는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의 강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 유명한 대중 가수의 초청도 단기간 성공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공고히 될 때 축제의 지속성이 확보된다.

설악문화제는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수준높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갓 마당과 굴령쇠같은 지역의 예술단체가 설악문화제 기간에 뛰어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면 속초의 문화역량이 축제를 통해 응집·발전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제도화이다. 앞서 설악문화제위원회 사무국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설악문화제 추진체계의 연속성,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행정은 재정적 지원과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에 주력하고 사무국은 행사기획과 진행, 마케팅 영역을 총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리는 것인데, 설악문화

제 사무국과 행정의 협력을 현재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축제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면 내년에는 일반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니터링은 비판보다는 적극적 참여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청소년의 참여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축제참여는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악문화제 청소년문화 기획단을 연초부터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들이 축제전문가와 워크숍을 하고 홍보 UCC를 제작하거나 홍보팸플릿을 기획하는 교육프로그램, 축제 기간 중 청소년 존을 만들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획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를 권한다.

다섯째, 경제성이다. 축제의 경제성은 본 모니터링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다만, 올해 시공간의 확장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설악문화제의 경제성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욕심이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설악문화제가 속초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매력을 심어주는 매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신규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메인 테마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축제의 가치는 지역문화의 응집과 발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의 발달을 파

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

앞서 몇 차례나 언급되었듯이 설악문화제는 홍보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너무 늦게 시작하여 신규 관광객의 창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6회부터는 최소 6개월 전부터 다양한 계층을 타겟으로 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설악문화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상품판매 전략도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메인 테마의 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설악문화제 캐릭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유희성의 제공이다. 성공한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일상의 일탈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탈일상성의 체험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축제가 갖는 또 다른 측면인 지역문화의 응집된 발전이라는 측면이 간과됨을 많이 보았다. 즉, 탈일상성이라는 미션에 치중하여 규모에 집착하게 되고,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한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유희성의 제공은 프로그램이나 테마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축제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설악산이나 동해바다, 청초호 같은 자연환경은 속초의 주요 타겟층인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 자체로 탈일상성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설

악문화제의 탈일상성은 테마와 결부된 지역문화의 차별화된 경험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속초의 매력적인 마을을 경험하고 향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관광 전략이 설악문화제의 기획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 옹골딸기마을이나 장사어촌마을 같은 잠재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을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설악문화제를 통해 체험홍보를 실시하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마을은 설악문화제가 함께 그 마을의 매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축제문화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 컨설팅을 통해 가능한 일이지만 설악문화제가 지역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제46회 설악문화제 제언

■ 시공간성

- 개최기간 축소 : 현행 3주에서 2주(설악제는 유지하고 시민한 마당과 설악로데오거리 함께 개최)
- 홍보마케팅 시기 6개월 이전부터 시작
- 거리퍼레이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지역주민, 동호인, 문화매개자의 참여 폭을 확대함.

■ 지역성

- 도문농요, 북청사자놀음 등의 전통문화콘텐츠 공연 축제 기간 중 상설화 배치
- 실향민문화, 해양문화 등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로컬푸드의 전면적 배치로 특성화 강화

■ 문화성

- 메인테마 및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국 조직의 확장
- 지역문화 인프라와의 협력체계 유지 및 과감한 지원 시스템 마련

■ 제도화

- 모니터링 강화 : 전문가 및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문화기획단 운영으로 지속적 발전의 동력 획득

■ 경제성

- 다양한 계층을 타겟으로 한 과학적 홍보시스템 마련
- 설악문화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상품 판매 전략 마련

■ 유희성

- 잠재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응골딸기마을, 장사어촌마을, 콩꽃마을 등



시원한 文化풀場에서 夏 夏 夏



속초문화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해 오고 있다. 기존의 문화학교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열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래서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세대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의 꽃을 만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차별화되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은 사업 목적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어르신문화예술교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속초시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하나로 아동센터와 행복한 홈스쿨의 ‘북청사자놀음 오감만족’, 위스타트의 ‘도문농요 소리극 만들기’, 자원봉사센터의 ‘우리문화 이야기마당’ 등 아동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 4개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진행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량향상 위주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지역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 매회 새로운 문화체험을 하며 색다른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밖에 문화매개자와 예술강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속초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가 6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3월 중순부터 관내 4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과는 달리 북청사자놀음, 속초도리원농악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악교육을 통해 문화정체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점이 특징이다.



어르신문화학교는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를 결성하여, 연극과 가야금 등을 익힌 후 문화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들 어르신은 10월까지 가야금 병창을 교육받은 후 설악문화제 메인무대와 갯마당의 정기공연에서 초청공연을 실시한 바 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위한 세 가지 원칙

학교와 사회, 어르신까지 연령별,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을 춤춤히 만들어 이들 프로그램이 상호 발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속초문화원이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여름이 다가왔다. 매년 속초문화원은 속초시의 지원으로 방학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09년까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문화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맛보기로 진행했다. 초등 3~6학년 대상으로는 '별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2박 3일간 진행했다. 시행 초기 이들 프로그램은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이 퍼지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009년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학부모들에게 원망도 많이 들을 만큼 인기를 얻었다.

2010년 6월. 다시 여름이 다가왔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다. 지난해의 성과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향점을 그려나갈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는 2~3번의 내부회의를 거쳐 지난해와는 다른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강사를 만나자. 그동안 속초문화원은 지나치게 특정 장르에 치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역시 강사풀



의 한계를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계획을 가진 지역의 예술강사들과 폭넓게 만나자는 원칙을 세운 것.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했고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둘째,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비록 속초문화원은 자체 건물도 없이 문화사랑방이라는 교실 1곳만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양하게 만나 이들의 욕구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셋째, 재미는 있지만 문화원이 꼭 전파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자. 우리는 이것을 지역의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원이 매년 만들어내는 향토문화컨텐츠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전통문화공연을 ‘문화’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녹여내고, 예술이라는 감성의 도구를 통해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속초문화원에 ‘문화 풀場’을 만들자!

위와 같은 세 가지 기초 아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속초문화원의 어름방학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 초등 1~2학년을 위한 ‘어린이방학프로그램’은 정원 20명씩 2회의 일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독서 및 한문교육을 중심으로 미술, 공예 등의 교육이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다. 초등 3학년은 교과와 연계된 ‘운우풍뢰(雲雨風?)’를 통해 사물놀이에 깃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단한 울동과 우리 민요, 사물놀이를 배우고 부모들 앞에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회당 3시간씩 6일을 진행하였고 2차에 걸쳐 40명을 선발하였다. 초등 4~6학년은 ‘문화예술체험 캠프’를 떠나도록 하였다. 2회에 걸쳐 70명을 선발하는 이 행사는 영월의 박물관 3곳과 평창의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연극과 영상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가장 많이 바뀐 이 프로그램은 다행히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물관 기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만들기 위해 큐레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살아있는 문화강의를 했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도에 인기 있었던 별자리 프로그램을 포기한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6월부터 학부모들의 전화를 간간히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속초 YMCA가 영월 별마루 천문대를 방문하는 캠프를 만들어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지역의 몇 안되

는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만큼 낭비는 없기 때문이다.

방학은 끝나고 아쉬움은 남다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다. 7월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의 교육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문화원 안에서 밖까지 진행한 수업은 그야말로 난리 북새통이었다. 평소 학생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기에 아이들의 목소리와 후다닥 뛰어다니는 요란함은 가장 더웠다는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고민거리 를 갖고 회의를 하였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인지, 아쉬움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결과자료집이었다. 애초에 자료집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만들 어본 적도 없었지만 자료집을 올해 사업의 결과이자 내년 사업의 시작으로 만들 생각 이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정산용 사진에 익숙한 우리였기에 사진의 상태는 좋지 못

했고, 문장으로 풀어쓴 강의계획서를 받지도 못 했다. 당초 목표 및 기대치에 맞지 않는 자료집 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자료집이라고 해서 단순히 수업 진행의 사진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정리하는 글 한 줄과 사진 에 담겨 있는 의미의 코멘트를 적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의 조직위원장인 이어령 교수의 초 대글을 인용한다. 창의도시를 표방하고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은 우리 삶과 따로 떨어진 듯한 오늘의 우리가 새겨야 할 글 이 아닐까.





사람들은 부국강병의 하드 파워의 시대에서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화두는 경제로 쓸려있고 그 시선은 무력의 패권경쟁으로 쓸려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예술의 상상력과 그 창조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직도 산업시대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다양성과 상생(相生)의 새로운 교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소프트 파워는 발을 디딜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동화이고 노래이고 춤이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는 것이 즐겁고 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쁘고 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 구구단을 외우고 해가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는 과학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노래와 춤을 잊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몸에서 절로 솟아나던 신명은 억압되고 맙니다. 환상적인 동화는 가열한 현실의 이야기 속에서 숨을 멈춥니다. 노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책을 보면 어른들은 “놀지 말고 공부 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예술은 소수자의 관심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구나 상급학교로 올라가는 입시경쟁이 치열할수록 점수로 수량화 할 수 없는 상상력이나 창조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회로 진출한 뒤에도 예술은 패배와 낙오의 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에 사회성을 주고 교육이 창조성을 키우게 되면 세계의 물꼬는 분명 평화의 소프트 파워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놓고 봐도 현실의 변화는 확실히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그 감성과 상상력의 발걸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품도 품질로만 경쟁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어떤 정치 도 물리적 힘이나 관료 시스템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매력, 그래서 와! (wow)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공룡의 운명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옛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다

우리의 전통 예술

장구

I. 교실 안으로 들어온 창극

음악은 인간의 삶과 언제나 닿아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를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서양 음악에 길들여져 있어 우리 음악은 다소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많은 어린이들에게 전통 음악 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민족 문화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해 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전통 뮤지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창극은 우리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전통가무극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우리 문화 중에서도 단연 흥미로움이 큰 예술이다. 단순한 ‘소리’가 공연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재미를 표방하는 ‘극’과 ‘춤사위’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속초문화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창극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교사인 나나 우리 학급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3월, 다소 생소한 소리와 몸짓에 어색해하며 웃던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옛 것으로의 배움은 시작되었다.

II. 교육 활동

1. 국악을 생활화하는 학급 분위기 만들기

어린이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국악을 만날 수 있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년 초, 아침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았으며, 전문가의 지도 이후 교실에서 수시로 한 대목씩 추후 지도하여, 우리 음악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모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2. 지도 계획

1. 지도 목표

- 어린이 창극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국악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도에 가까운 공연작품을 만들 수 있다.

2. 연간 지도 계획(중요 내용만 수록)

차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준비물
1	창극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창극 DVD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2시간	대본, DVD
2	창극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창극 DVD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2시간	대본, DVD
3	남도의 창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전에 힘을 주는 방법을 연습한다.· 육성으로 내뱉는 발성 연습을 한다.· 남도의 창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습한다.· 쉬운 남도민요를 예를 들어 연습하게 한다.	2시간	유인물, 장구
24	판소리 배우기 기본 안무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성연습을 통해 목소리를 끈다.· 대본에 있는 판소리를 부분적으로 쉬운 소리부터 배운다.· 음의 높낮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쉽게 알려준다.· 발 딛는 방법을 배운다.	2시간	장구
25	대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특징을 살펴본다.· 인물의 특징에 맞게 목소리 톤을 달리하여 읽는다.· 띠어 읽는 방법과 발음을 알아본다.· 소리로 찾는 움직임, 소리로 만드는 즉흥극을 한다.	2시간	대본, CD
26	대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특징을 살펴본다.· 인물의 특징에 맞게 목소리 톤을 달리하여 읽는다.· 띠어 읽는 방법과 발음을 알아본다.· 소리로 찾는 움직임, 소리로 만드는 즉흥극을 한다.	2시간	대본, CD
38	대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특징을 살펴본다.· 인물의 특징에 맞게 목소리 톤을 달리하여 읽는다.· 띠어 읽는 방법과 발음을 알아본다.·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 인형을 만들어 보고, 인형극 공연을 해 본다.	2시간	신문지, 호일, 스카치테입, 싸인펜, 대본

3. 아이들의 소감문

New Born Baby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관객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공연을 또 해보고 싶었다.

- 김정현
1년 동안 재미있었다.

계속하면서 참 좋았다.
다른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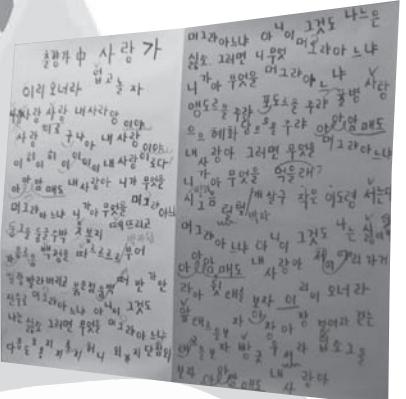
- 오찬영

많이 어색했었는데, 막상하고 나니 재미있었다.
분장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 한승우

창극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조상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며 즐거웠다. - 모나영

처음 공연할 때 떨리고 힘들었는데,
두 세 번 하니까 할만하다. ... 이재성

창극 공연을 하기 전에는 떨렸는데, 하고 나니 자신감과 용기가 커지는 것 같았다. - 나현우



III. 옛 것에서 찾아낸 새로움

교육의 힘은 놀랍다. 음악의 힘 또한 놀랍다. 그러므로 교육과 음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실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이끌어 간 ‘창극수업’이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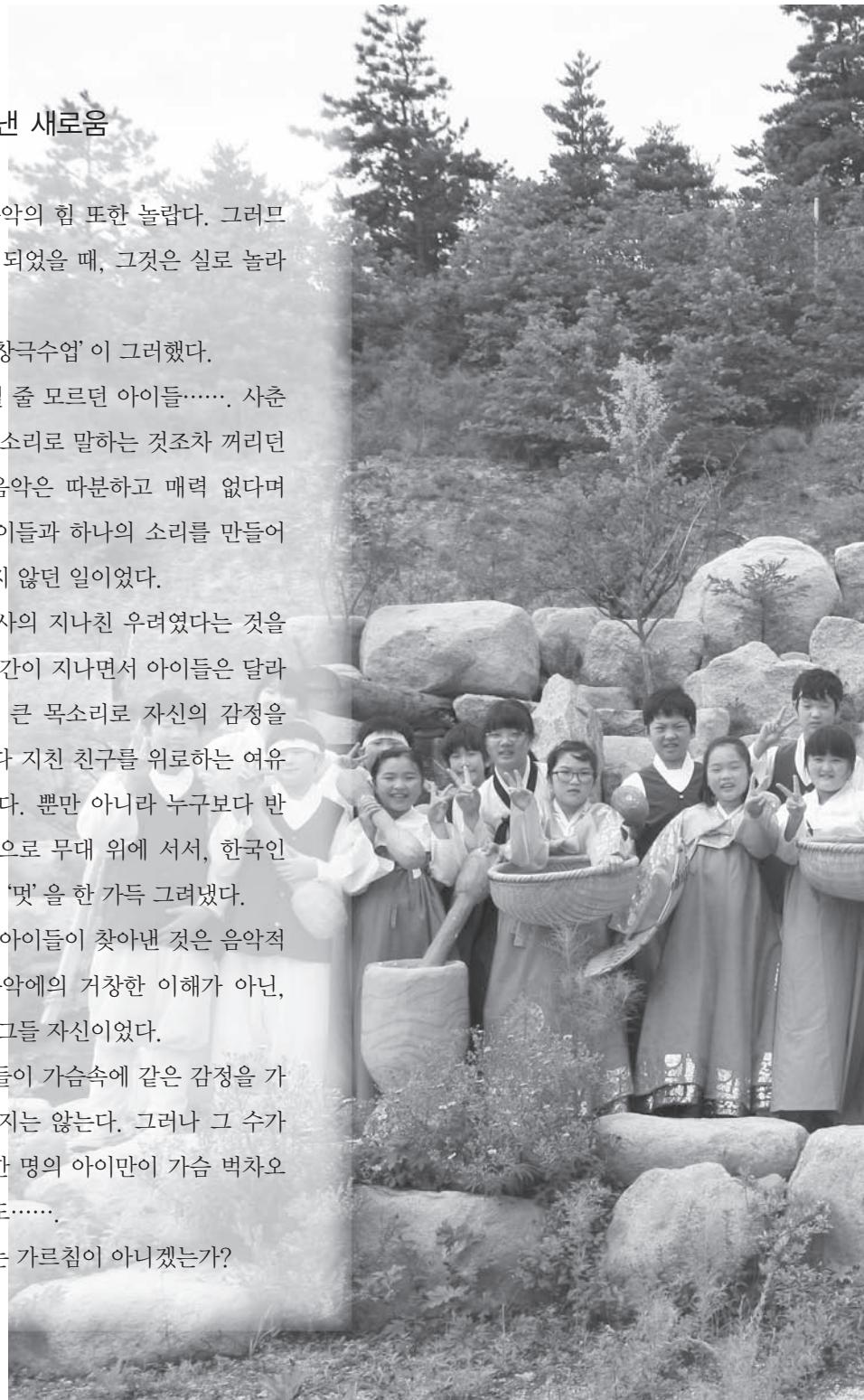
처음에는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던 아이들……. 사춘기가 접어든 시점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조차 꺼리던 아이들……. 우리 전통 음악은 따분하고 매력 없다며 툴툴거리던……. 그런 아이들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교사의 지나친 우려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달라졌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공연을 준비하다 지친 친구를 위로하는 여유와 배려를 가지게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반짝이고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무대 위에 서서, 한국인 만이 가질 수 있는 ‘흥’과 ‘멋’을 한 가득 그려냈다.

결국 이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찾아낸 것은 음악적 기능의 향상이나 전통 음악에의 거창한 이해가 아닌, 그동안 숨겨져 있던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물론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가슴속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교감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수가 적다고 하여도, 오직 단 한 명의 아이만이 가슴 벅차오르는 경험을 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묵향을 나누는 사람들

속초 서예동호회

서우회

세상이 각박하다. 물질이 우선되고 정신은 뒤처진다. 느림의 미학을 말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의 삶을 노래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래서인지 사람살이의 각박함에서 벗어나 일상의 여유와 정신의 공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예도 그런 예술활동의 하나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서예에 담긴 삶의 이치와 여유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새삼 떠올릴 필요는 없다. 한지에 번지는 묵향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를 자유로운 경건함에 빼지게 한다.

속초서우회(회장 박학성)는 이러한 묵향의 아름다움이 속초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서우회가 탄생한 것은 지난 1992년. 서예를 일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나다 보니 경력 10년 이상의 회원들이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친목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1995년 1회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5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속초시 전통서예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했다. 특히, 속초 서우회 회원들의 작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는 서예의 아름다움과 멋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속초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한글과 한문 등 30여점을 만나는 전시회는 모든 회원들이 틈틈이 익힌 솜씨로 준비한 작품들. 이를 작품 모두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문방사우를 벗삼아 옛 선조들의 예와 기를 전수하고 계승발전함으로써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펼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회가 서우회 회원들의 작품을 한눈에 감상하며 서예의 예술성을 만날 수 있는 행사라면 가훈과 사자성어 휘호 써주기 행사는 속초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설악문화제를 비롯해 해맞이축제나 로데오거리 축제에서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족자에 가훈과 사자성어를 써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설악문화제는 준비한 300점이 한번에 동시에 나서 원망아닌 원망을 들었을 정도.

박학성 회장은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전시회를 열고 가훈 써 주기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볼거리 더하자

는 측면보다는, 짧게나마 옛 것을 알고 나아가 우리 가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며 “특히 1세대인 우리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후대인 2, 3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다”고 전한다.

지난 2008년에는 국제 교류행사도 가졌다. 속초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노인문화예술제에서 중국의 노인들에게 서예작품을 써 나눠 준 것. 이 날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서예를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열어주었다.

필자는 앞으로도 서우회가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더욱 거듭나면서 새로운 문화의 길로 안내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더 나아가 속초시민 정서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습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본다.



청각을 넘어 시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시낭송

김승아

설악 시낭송회

풀니음

한 편의 시에 어울리는 옷을 입히고 알맞은 목소리와 몸짓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 시집 속의 활자로 박혀있는 시가 아닌, 생동감 있게 독자와 교감하는 역동적인 ‘동사’로서 시를 표현해내는 이들이 이곳 속초에 있다.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시낭송이라고 하면 즐기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낭송자의 맑은 목소리를 감상해야 할 것 같지만 풀니음 회원들의 낭송회에 참석해 보면 ‘시가 내게로 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시의 분위기에 맞는 의상과 음악은 물론 시의 스토리를 단막시극과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준다.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 쇼가 따로 없다.

‘풀니음’은 지난 2007년 평생교육정보관의 동화구연 수강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 시를 읽고 공부한 이들이 만든 단체. 단순히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 낭낭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시낭송이라 하기엔 너무 진부했기에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시를 선택하고 시인의 마음이 되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곱씹으며 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동화구연을 통해 내공이 쌓인 덕에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해 12월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의 평생교육축제에서 첫 낭송회를 하게 된 그들은 해마다 상, 하반기 각 1회씩 지금까지 일곱 번의 정기낭송회를 개최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테마가 있는 시낭송회를 열게 된다. 이들은 정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단순한 낭독에서 벗어나 시낭송을 하나의 공연 장르로 자리매김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에 관심을 갖고 시낭송을 즐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다. 그렇게 탄생한 시낭송회의 주제는 ‘꿈과 추억이 담긴 교과서 시낭송회’, ‘관광객과 함께 하는 숲속 시낭송’, ‘시의 반향 – 세상의 벽과 소통하다’, ‘문득 詩奏에이션, 詩詩한 여자들 가을과 놀다’ 같은 재기발랄한 제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속초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만해마을시낭송회,



대조영 세트장 발해복식쇼 행사에서 발해시 낭송, 속초 연탄은행 후원을 위한 시낭송회, 경동대 다(茶)와 함께하는 시낭송 등 활동의 폭을 넓히며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평균연령 40~50대, 각자 본업이 따로 있는 주부들이 대부분인 풀니음 회원들에게 시와 시낭송이란 무엇일까?

“생활의 활력소이며 내 삶의 한부분이예요. 즐거우면 즐거워서 슬프면 슬픈대로 한 편의 시를 낭송하며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라는 박혜성 회장의 말처럼 시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회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행복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그 저력이 모여 점점 더 멋진 낭송회 무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듈다.

낭송시를 선정할 때도 너무 잘 알려진 시보다는 숨은 보석같은 시들, 유명작가의 시들 중에서 덜 알려졌지만 좋은 시들을 고른다고 한다. 관객에게 재미를 주고, 시의 스토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은 물론이고 의상과 몸짓, 눈빛, 연기까지 해내야 하므로 박혜성 회장의 “시낭송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라는 얘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앞으로 풀니음은 입시에 찌든 청소년의 정서와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위해 몸과 마음으로 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별 동아리를 통한 청소년을 위한 시낭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요양원이나 의료시설에서의 낭송회 등 지역사회 곳곳에 그들의 낭송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한다.

회를 거듭 할수록, 시를 알아 갈수록 더욱 어려워진다는 박혜성 회장의 말과는 달리 풀니음 회원들의 낭송 실력과 연기력은 점점 진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8회 낭송회에는 어떤 테마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지 내년이 기대된다.

사회적 나눔 실천하는 생활사진가

김
진
희

사진동호회



‘사진에 관심있고 즐길 줄 아는 사람다면 사진기가 없어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어딘가로 떠날 것처럼 등산복차림으로 나타나 넉넉한 웃음으로 인사하는 이 사람, ‘속초 SLR 클럽’ 김주현 회장은 자신들의 동아리로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사진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요즘은 사진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자기 개성의 표현이고 나아가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속초 SLR 클럽’ 사람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지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표현도 풍부하다.

이른 아침 해돋이, 천체별자리, 계절이 변하는 풍경, 일상의 소소한 삶같은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열심이었다. 특히 이 동아리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속한 카페가 아닌 독립적인 도메인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하드웨어의 용량이 크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찍은 회원들의 작품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김주현 회장은 은근히 자신의 동아리에 대한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속초 SLR 클럽’이 처음부터 동아리였던 것은 아니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삼십 명 정도가 주축이 되어 2006년 8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동호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정기 출사는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늘어나는 신입회원을 좀 더 잘 끌어안기 위하여 임원진을 꾸리고 총회도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월 둘째 일요일에 꾸준히 출사를 나가게 되었다. 그 결과 올 2010년 8월부터 사진 강좌를 8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열어,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에게 사진에 대한 배움의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11월에는 속초문화회관에서



전시회도 가졌다. 현재 속초 고성 양양 지역 회원이 250여명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오륙십 명 정도다.

처음엔 그저 사진 찍는 것이 좋아 시작했지만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마도 기술이나 정보,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스스로도 발전하고 동아리도 발전하나 보다.

김주현 회장은 2년 전 'YMCA 부부의 날' 행사에 촬영 지원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때 아무 댓가없이 촬영을 한 뒤 속초시청에서 전시회도 했는데, 관계자들이 사진의 질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나눔도 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 해에 이어, 사진 강좌와 사진전을 여는 등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기획간사와 재정간사로 임원진이 만들어져서 회원들의 활동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역량도 되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속초 SLR 클럽', 그들의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폭 넓게 확장되기를 기대해도 될 듯하다.

제 새끼들 먹이 물어다 주는 어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 산다는 것도 멋진 일임에 틀림없다. 김주현 회장은 그 날 밤에도 달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했다.

밥벌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들에게 축복을!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강릉원주대
교수
장정룡

1. 속초실향민의 문화표징

실향민(失鄉民)이라는 포괄적 용어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고향을 북한 땅에 두고 월남한 사람들이기에 월남민(越南民)이라고도 부른다. 월남(越南)이 베트남을 뜻하기도 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재난을 피해온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피난민(避難民, refugee)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6.25전쟁의 재난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일반적 주민이동인 이주(移住, migration)와 다르다. 이러한 여러 용어상의 여러 혼란을 피하고 피해의식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실향민’이다. 물론 이것 또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전라도나 경상도 출신이 직장 일로 서울에 가서 살거나 미혼 여성이 속초로 시집와서 산다면 통틀어 실향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무시로 고향을 찾을 수 있기에 엄격히 말하자면 실향민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속초실향민’이라는 용어는 고향을 찾거나 혈육을 만나기 위해 쉽사리 국경을 넘을 수도 없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북녘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세대를 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남북분단의 현실적 상황에서 피난 1세대를 중심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향민 민족이라 함은 이북 5도민들이 이주하면서 지니고 온 이주민속(移住民俗)을 표현한 용어라고 하겠다. 속초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북쪽에서 지니고 온 언어, 음식, 놀이 등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누구나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하고, 특히 반강제적으로 일가 친척이나 정든 고향풍경을 두고 와야 했다면 그 감정을 남다를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인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도 굉장한 귀향본능을 지녔다고 한다. 북극곰은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설빙위에서도 500km 떨어진 자기 집을 여지없이 찾아가고, 연어는 자

기가 태어난 양양 남대천을 다시 찾기 위해 대양에서부터 무려 3,200km를 헤엄쳐 와서 생명을 갈무리 한다. 남극 제비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려 35,200km를 날아가며 새장에 간 힌 새는 언제나 자기고향이 있는 북향으로 늘 앉는다고 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나의 부친은 1.4 후퇴 때 평북 강계의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혈혈단신 월남하신 분이다. 몇 해 전 마지막 생명을 다하실 때 부탁하신 말씀은 고향의 선산과 그곳에 남겨진 혈육을 언급하셨다. 아버님은 속초실향민과 마찬가지로 평생 고향을 등짐처럼 지고 다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신 속초에서 사셨고, 단 하루도 고향을 잊지 않으신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자리로 돌아가서 과거와 화해하고 창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인간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이끈다.”는 언급과 같다.¹⁾

속초에 살고 있는 피난 1세대는 50%이상이 고향방언을 사용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2세대는 40%내외로 속초방언과 북한방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二重言語,bilingualism)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함경도민들이 주로 모여 사는 청호동은 난민취락(難民聚落,refugee settlement) 모습이 남아 있는데 실향민끼리 동향의식을 공고히 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실향민 민속은 이들의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와 일정한 연계를 갖는다. 해방이후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한 피난민과 6.25전쟁 때 월남한 북한주민 가운데 바다를 통해 용이하게 이주했던 함경남도 사람들이 대거 속초로 왔다. 이들은 자유의사로 월남했며 난민취락을 형성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였다. 초기 이들의 이질적 언어관습과 행동양식, 생활풍습, 문화방식은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해나가고 속초지역발전에 힘을 합쳤다. 따라서 대부분 실향민들은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공지나 해변가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통일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려는 일념으로 일시적 주거생활을 하였다.

경제활동도 대부분 어로생활에 종사했으므로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난민의 섬(refugee island) 언어의 섬을 형성했다. 실제로 2000년을 기준으로 속초시 인구 8만여 명 가운데 30%정도가 북한에 원적을 두고 있으며 청호동의 경우 전국 실향민 정착촌 거주세대인 2,300여 세대의 35%에 해당하고 있어 실제로 속초실향민 민속은 함경남도 해안의 민속문화가 그대로 이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민속이 토착문화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선택 가능한 것들만 잔존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속초 실향민의 민속은 1945년 분단이후, 1950년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남하한 1세대의 주민들 민속으로 시기와 전승자를 한정하고자 한다. 실향민 민속은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신앙, 민속극, 민속놀이, 구전민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향민 세시풍속은 어촌풍속이 주류를 이룬다. 정초 뱃고사나 바람신인 영등할머니제사와 같은 것이 있는데 함경도 어촌출신이 많은 것과 연관된다. 세시명절의 인식도 북방형인 단오를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도 전통명절로 받아들이는 적응성을 보인다.

통과의례에서는 상장례에 강한 집작을 보이는데 실향의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례의 경우 3일장이 대부분이나 장지는 월남

1) 송봉모,《야쁜강을 넘어서 – 집념의 인간 야곱》 바오로딸, 2002, 158쪽

한 주민들이 조성한 망향의 동산 같은 향우회 공동 묘지를 선호하고 있다. 민간신앙은 성황제가 대표적인 형태로 용왕제나 수살굿 같은 것이 어촌마을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용왕제는 풍어굿으로 몇 년마다 어촌제를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배성주제를 모시거나 영등풍신을 모시는 것도 이주민의 습속이다.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대표적 탈춤으로 속초가 남쪽의 시원지라고 할 수 있다. 북청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속초에서 도청을 만들어 탈춤을 전승하여 확고한 전승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것이 날로 발전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민속놀이는 든대질놀이와 같이 배를 진수하면서 행했던 작업과 어로요를 합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함경도 어로요가 많이 섞여서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향민민요는 어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속초실향민 문화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상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복합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필자는 수복탑 모자상과 갯배를 선정하고자 한다. 속초시에는 어머니와 그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자상이 있는 수복기념탑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지향성과 실향민문

화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갯배는 분단의 아픔과 실향의 고통을 실어 나른 거룻배다. 이 갯배가 50여년 세월동안 여전히 실향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고향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멈추는 곳,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달래며 왕래하는 무동력선 갯배는 여전히 분단한국의 오늘을 상징한다.

실향민의 고향 속초 동명항 입구에는 북쪽을 향해 걸어가는 모자상(母子像) 탑이 있다. 이 탑의 공식명칭은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이다. 따라서 속초시가 북한공산치하에서 수복된 고장임을 말해준다. 예비역장군으로 한국참전시인협회장을 역임한 장호강(張虎崗)시인은 이 수복기념탑을 세울 당시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항전(抗戰)의 조국(祖國)』에 실린 모자상부(母子像賦)다. 이 시는 시집의 관동소묘(關東逍遙)에 들어 있으며 그 내용을 원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

母子像賦

-束草中央로-타리 收復紀念塔에 부쳐-

빼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날이 본시 북녘
아낙네 살성좋은 얼굴에 주름끼 고이게 하기로
서니 삼단 검은머리에 흰까락 끼이게 하기로
서니 항상 머리위에는 넓고 푸르른 하늘이 펴
져있기에 가진 풍난 욕된 시름에도 곧은 뜻
굵일줄 몰라 끝내 벽찬 젖기슴 두던처럼 부푸
리울은 것이랍니다

〈어머니 우리집뜰앞 복사꽃도 이젠 활작 피었겠지〉
〈아무렴 제비도 처마끝 깃에 나래를 쉬일 거야〉

오른쪽 팔에는 고로웁지않은 세월과 더부러 낡고 주려만가는 봇따릴망정 그래도 악착같이
삶을 간직해야할 다사로운 미련이 싸릿거늘 그

2) 張虎崗, 『抗戰의 祖國』人間社, 1955, 83~87쪽



갯배(속초 시내와 청호동 아바이마을 사이에 놓인 속초형 수로를 건너는 교통수단)

어느날 가마귀 우짖는 산모퉁이나 익기 푸르
른 바위틈에 못내 병들어 쓰러지는한 있다칠
손 목숨처럼 함부로 내버릴수 없는 정에 무
거워 새라 새날이 닦아올수록 소중스럽게 끼
고 섯는것이랍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실까〉
〈아무렴 너를 맛날때까지는 살아계서야지〉

왼쪽 팔로는 짐짓 이땅의 태를 받은 어린이
란다- 그렇드시 종내는 조국의 통일을 이
룩해야할 피비린내 풍기는 운명을 물려받어
야 하기에 앗된 눈동자 샛별처럼 뻔짝어리는
이거나 아들의 간않은 주먹을랑 둘도없는 단
하나의 거창한 희망처럼 출곧 봇들지않고서야
산의 고사리마냥 움켜잡지 않고서야 쓰라린
가시길 결코 믿고 갈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어머니 나도 어서커서 늠늠한 국군이 되야겠어〉
〈첩아 아버지 원수는 반드시 네가 갚어야하느니〉

북으로 오로지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
는 비록 연약하건만 거센파도 휘모라치는 밋
친 바람에 쌓이고 또 덮이는 모랫길 해치며
저멀리 우람스런 산맥을 겨누어 끊임없이 움
직인다는 지구를 밟고 한거름 한거름 앞을 향
하여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오늘도 횡훈이 깃
든 물결위 갈매기 노래를 엿듯노라면 아롱진
향수도 무지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속초시의 상징,³⁾ 속초문화경관 1호⁴⁾ 등으로 불
리는 수복기념탑은 속초시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탑은 휴전후인 1954년 5월
10일 민족통일의 염원과 월남 실향민들의 희망과
한을 달래는 복합적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속초읍과 육군 제1군단의 지원으로 함경도
에서 피난 온 태반의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웠다.

이 수복기념탑은 이형찬(李亨贊) 씨가 설계하였
고 조각가 박칠성(朴七星) 씨가 모자상을 제작하여



1954년 건립된 수복기념탑

탑 위에 올려 속초항 북녘을 향해 건립하였다.
모자상의 조각가는 “자신이 공산당이 싫어 6.25
때 월남한 실향민으로서 이 중책을 맡고 고민하던
끝에 같은 판자집(하꼬방)에 기거하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현지 입대한 동향선배 가족의 숙명적
인 애절한 이별과 기약을 실상화시켜 보려는 뜻에
서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한다.⁵⁾

이 탑은 김근식(金根植) 당시 속초읍장과 이형근
(李亨根) 제1군단장,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노
력의 결정체라는 평가와 함께 “탑 정상의 모자상은

3) 池一權, 〈收復紀念塔의 由來와 復元〉《東草文化》創刊號, 東草文化院, 1984.49쪽 “속초시의 상징, 수복기념탑-, 이 탑에 얹힌 사연은 한마디로 離散家族들의 피맺힌 憤이 응어리진 母子像이 대변해준다.”

4) 박영도, ‘모자상애가’ 〈주간설악신문〉2007. 7.9~7.15 기고문 “속초의 유명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설악산, 대포 횃집단지, 청호동갓배와 실향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 다시 속초문화경관 1호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단연 수복탑이라고 말한다. 흔히 수복탑으로 부르는 수복기념탑은 일명 모자탑으로도 불리며, 속초가 북한지하에서 수복된 고장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5) 池一權 앞의 글 51쪽

남루한 치마와 저고리의 여인이 오른손에는 피난보따리를 들고 왼손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녘을 향해 걷는 모습으로 서있다. 비록 몸은 지쳤으나 북녘을 응시하는 눈길은 실향민들의 한결같은 눈길이리라.”라고 하였다.⁶⁾

이 탑은 전쟁유적탑인데도 군·경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 휴전 후 외국 종군기자들의 뉴스초점으로 각광으로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전쟁기념탑으로 유일하게 ‘총칼이 새겨지지 않은 탑’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탑은 휴전 후 수복지구 유일의 반공 전적기념탑으로 6.25사변의 처절했던 참상과 분단의 설움을 영원히 아로 새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수복기념탑은 지난 1983년 4월 27일 동해안을 휩쓴 강풍에 의해 사라졌다. “타향살이 30년, 고향을 못가는 신세타령으로 동해에 빠져 자살했다”고도 하며,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은 마음의 고향인 이 탑이 귀향 길에 보이지 않자 “불안할 뿐 아니라 고기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녔다. 이에 따라 1983년 5월초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장에 김종록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30여명이 기금확보에 나섰다.

모금은 6개월 만에 시민성금 4천여만 원과 김광용 시장이 시비 1천만 원을 제공하여, 1983년 9월 2일 원래 모자상을 조각했던 박칠성 씨로 하여금 수복기념탑과 모자상 전체를 복원하게 하여 동년 11월 17일 역사적인 복원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복원된 이 탑은 화강암 좌대폭 4m, 답신높이 7m, 모자동상높이 2.55m, 총 탑높이는 9.55m로서 과거보다 2m정도 높게 만들었다.

새 탑의 특징은 동상좌대높이가 국내에서 제일

높으며, 수복기념탑 휘호도 처음 만들 당시 제1군단 민사처 소속 서예가 김형윤(金亨胤)소령이 쓴 글씨를 오석에 옮겨 조각하였다. 또한 탑신 전면좌대에 대형 군경민 입체 북진상을 조각하고 뒷면 탑신에는 한상갑 동우대 학장이 쓴 ‘民族統一’이라는 휘호를 새겼다. 복원 당시 기업체 뿐 아니라 시민, 학생들이 자진하여 성금을 기탁했고, 청호동 익명의 어부는 명태 한 두름을 맡겼으며, 아이들은 병어리저금통을 가져왔고, 포장마차 친목회 등에서도 성금을 내놓는 등 속초시민들이 수복기념탑 복원에 많은 애정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의 상징이며 실향민의 마음을 대변한 수복기념탑은 지난 1954년 5월 10일 건립되었으나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사라졌다가 동년 11월 17일 재건되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장호강 시인이 쓴 수복기념탑 <모자상시>에 잘 드러난다.

첩첩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굽이굽이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순도순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순이 그 앞길 가로 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빼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고운 북녘 아낙네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6) 『속초의 옛과 오늘』 속초문화원, 1997, 83쪽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냘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 가며 걸음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름진 향수가 담백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⁷⁾

1983년 속초시 동명항 입구 수복기념공원에 새로 세운 수복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시 들어갔다.

이 탑은 6.25가 끝나자 이 땅의 수복을 기념하는 뜻과 이곳에서 망향의 恨을 달래던 실향민들의 염원을 모아 당시 이근식(속초읍장), 박상선(피난민대표), 박칠성에 의해 서기 1954년 5월 10일 세워졌습니다. 피난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이 모자상은 당시의 정황이나 고향을 잃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마음의 한 표상으로 내려오던 중 서기 1983년 4월 27일 강풍에 파손되어 복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탑은 수복기념탑 복원건립위원회를 구성, 김광용 속초시장의 도움과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시민의 성금에 청동으로 원형을 재현하였습니다.

서기 1983년 11월 13일

위와 같이 수복기념탑에 새긴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피난길에서도 오로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이북도민들의 간절한 심정이 모자상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재순 시인은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어린 아들 손잡고 북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의 모자상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분단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활용되었다. 수복기념탑은 마치 종교적 표징처럼 고향을 상징하는 대물(代物)이고, 모자상은 귀향을 꿈꾸는 심리상태가 형상화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갈피 동인으로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 채재순과 극작가 최재도 씨는 바람의 도시 속초, 떠도는 섬 청호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실향의 상징으로 갯배, 수복기념탑, 공원묘지를 꼽았다. 그리고 실향의 형상화로서 명태, 오징어, 북청사자를 선정하였다. 오래전 북청사자놀음 예능보유자 앞 사자 김수석 선생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자울음은 여전히 필자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울고 있다.⁸⁾

청호동, 그리고 북청사자는 실향과 분단의 한국적 상징물이다.⁹⁾ 실향민의 정서적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홍남시민공원>에서 시인 이상국은 “살아서는 사는 일이 바빠/우리는 죽어서야 공원에 온다/이남 고성군 토성면 신평가는 보둑솔밭에/홍남시민공원이라고 큰 바위하나 세워놓고/피난살이 서럽던 몸 숨 끊어지고/흔백만 훨훨 날아 휴전선 넘어가면/우리는 공원 보둑솔 밑에/함경도를 묻고 흙은 덮는/넓은 홍남 다 어디 두고/월남하던 LST위에 서나/청호동 갯배머리 살 때처럼 땅이 좁아/죽어서

7) 池一權, 앞의 글 51쪽

8) <북청사자 아바이 김수석>(1998. 4. 19, 장정룡 시) “무스그 고향? 함경남도 북청읍 죽평리, 열 댓살 때 앞사자 하다가 서리 피난 나왔지비!/ 1997년 10월 10일/그는/유난히 기침이 심해/순때 묻은 갯배 머리에 사자 등을 대고 말았다/오십년간 앞사자 마냥 오뚝하게 건너던 갯배/지독한 현기증에/초중종장 사자놀이도 끝났다/청호동 아바이 그는/날머리 백사장에 판자로 벽을 붙이고/고향 이바구로 도배하고 살았다/안방 문밖 바로 큰 길가/언제든 맨발로 고향 달려갈 품길에서/떠나올 때 묻어온 흙 내음/한 몸 뺏가루 바다에 뿐릴 때 섞어주시게/애원성 소리 끌자락/통소구멍 속에 멍하게 흘어지는 아픔을/돈돌라리 돈돌라리/동틀날 다시 돌아와 살아날 때, 불러주시게/나는 북청사자다/그는 포효도 없이/어디서도 제대로 사자 놀리지 못한 채/떠나올 때처럼 그렇게 혼자/우리 곁을 떠났다/1907년 7월 19일생, 중요무형문화재 15호/북청사자놀음보유자”

9)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 1991년 7월 16일,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 23호, 속초문화원, 2007, 141~154쪽

도 다리 오그린 채/보둑솔 밑에서 우리는 쉰다”고 절창했다.

채재순은〈속초〉라는 시에서 “우리는 아직 피난민이다/철조망 거두고 늠름히 걸어갈 수 있다고/그날 이 곧 온다고/살아갈수록 잡들지 못하는 북청사자들이/실향의 겨울을 울고 있다/두고 온 북녘하늘 부르며/무너진 원산행 철교 위를/청초호 갈매기 때 끼룩이고/위대한 봄은 도착하지 못했다/숯처럼 쓰러져 있는 이 도시의 성/길조차 함박눈이 지워버리려는데/피난민 실은 목선이/어슴 새벽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였다.¹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과 같이 고향을 잊지 못한 채 가슴에 실향의 한을 품고 생애를 마감한 실향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민족분단이 가져온 씻지 못한 통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모자상은 고향을 잊고 남쪽에 살고 있는 이북도민들의 마음의 한 표상으로서 이북도민들은 남쪽에서도 여전히 이북도민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생활은 토착민들의 민속과 습합되기도 하고, 갈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유성을 간직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북도민들의 방언은 경상도, 전라도 방언처럼 독특한 북한방언권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혈육이 갈라져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으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쪽으로 피난 온 북한출신 주민들의 피난민촌이 만들어졌으며 아직도 피난민의 집거촌이 부분적으로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다. 상처는 차츰 아물어간다고 하지만 한반

도의 민족분단은 상존하고 북한은 여전히 북침설을 강변하고 있다.¹¹⁾ 우리들이 결코 잊을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한국전쟁이기에 강원지역 6·25비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¹²⁾

이 책에는 〈설악산 478고지 전투〉(김영찬), 강릉에 침입한 패잔병들의 22명 학살현장을 기록한 〈아! 이 잔인한 학살의 현장〉최종고 의 기술을 비롯하여 강원도편에는 〈원산형무소 대학살사건〉노승용, 〈죽음의 행진〉서홍국민학교, 〈화랑공작대〉유동균, 〈설악산에서 백의종군하다〉홍성학, 〈자기부모를 죽인 공산당〉홍종국, 〈장남리 반공결사대의 최후〉홍명한, 〈푸른당의 의거〉최창화, 〈지옥에서 탈출〉박용후, 〈영랑호에 잠들다〉최명길, 〈되살아난 한청단원〉최상배, 〈운곡 공비토벌대〉박일신, 〈내가 할일을 했을 뿐이다〉김철수의 글이 실렸다.

이 가운데 지금도 속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 최명길(당시 속초영랑국교 교사) 씨의 글 〈영랑호에 잠들다〉는 잊혀진 전사와 이북출신 용사들의 살신성인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는 속초지역 전투에서 속초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공대열에서 목숨을 바친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 다섯 용사의 이야기다. 이들은 40여명의 적군을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1961년 8월 15일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에서는 순국5용사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혔다. “1952년 10월 22일 영랑호반에서 공비들과 교전타가 반공전선에 목숨을 바친 다섯 용사가 여기에 잠들었으니 그 충의야말로 천추에 빛나리” 그리고 묘 하나마다에는 죽음의 임자 이름을 적은 또 하나의 묘비가 있다.

10) 채재순,〈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속초시 거주 피난민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321~375쪽

11) 국제문제연구소,《역사가 본 조선전쟁》조선펑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68~69쪽

12) 『六·二五 秘話』自由評論社, 1979

“김덕범(金德範) 고향 함경북도, 지창하(池彰河) 고향 함경북도, 이기구(李基九) 고향 함경남도, 김병선(金炳善) 고향 평안북도, 김화수(金化壽) 고향 평안남도” 이 다섯 개의 무덤은 속초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속초시민들은 고향을 떠나 먼 남쪽 땅까지 내려와서 공비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준 이 다섯 용사를 위해 해마다 그들이 순국한 날 10월 22일이면 이 묘를 찾아 용사들의 영혼 앞에 반공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한다는 것이다.¹³⁾

한국전쟁이후 1980년대까지 피난민 정착촌은 전국적으로 93개소였으나 현재는 점차 줄어들어 30여개만이 남았으며 강원도 내에는 속초시 청호동,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시 목호동 등지가 있으나 속초시 청호동 신포마을도 이주가 확정되었으며, 주문진 수용소촌은 철거되었고, 동해시 목호동의 경우도 점차 해체되고 분산되는 실정에 있다. 1954년 수복 당시 강원도내 인구는 132,908명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는 188,602명으로 늘어났고 1967년에는 389,682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타 지역 출신들이 유입된 것으로 1967년 당시 속초시의 경우 토착주민 33.3%, 타향인 66.7%의 구성비를 보여준 것과 같이 휴전과 더불어 북상한 피난민의 집경, 전방경기를 찾아 남으로부터 이주한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한 것이다.

특히 어민의 경우 강원도 내 전체 2,669가구에서 9,093가구로 무려 세 배가 늘어난 것을 보면 타 지역 출신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강원도 동해안으로 몰려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67년 당시 속초시 인구 60,313명 가운데 30%인 토착주민을 빼고 70%가 외지에서 들어 왔다. 이 고장 직업인구 22,582명의 42.4%인 9,087명이 어업에 종사하였

으며 어선은 속초에만 450척이고 오징어 철에는 500여척이 원정을 와서 천여척이나 되었다. 따라서 당시 속초시 인구 6만여 명 가운데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가 무려 2,300여 가구나 되었다. 이처럼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주문진 수용소촌은 문화적으로 난민의 섬, 언어학적으로 언어섬(language island)으로 파악되는데 6.25이후 월남한 피난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이주문화와의 토착화 과정을 실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속초 청호동 함경남도 주민의 집단거주지인 아바이마을은 2000년 당시 신포마을 짜고치마을 등 8백여 가구가 살았으나 신수로 확장과 다리개설, 호수매립 등 속초항 개발에 밀려 사라질 예정이다. 180세대 370여명이 아바이마을의 상징인 신포마을을 떠나야 하므로 며잖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국내 최다의 실향민집단정착촌도 해체될 단계에 놓여 있다.

‘열흘 후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북쪽 고향을 떠나온 피난생활은 실향민(失鄉民, 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신분으로 반세기 훌쩍 넘겼다. 실향민들이 피난민 행렬에 들게 된 것은 해방이후 38선을 경계로 북쪽에 소련군정이 들어서자 시작되었는데 북한주민들은 전쟁준비 동원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행렬은 1949년 10월 64,000가구 283,400명이 넘어오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에는 급속히 늘어나서 1951년 6월말에는 5,710,972명으로 5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미현병 검문소에서 심사를 받아 통과 후 구역 검문소에 잠시 머물다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살았으며 북한에 살았던 동향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생계를 이어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계로 피난민이 아닌 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실향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

13) 최명길,〈영랑호에 잠들다〉위의 책, 173쪽

다. 자유의사에 따라 월북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에게 귀향할 수 있는 조약체결이 진행되었으나 정치군사적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피난보따리를 풀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피난민증(속초시립박물관 소장)

강원도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실향의 내적아픔과 함께 토착민의 편견과 문화적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난민촌을 형성하여 굳은 결속력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북쪽문화를 견지했으며 토착문화를 수용하면서 독특한 접경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남북한 혼용문화권,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북한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에 정착한 이북도민의 생활사는 분단 60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집단거주지가 와해되고 피난 1세대들이 고령화로 줄어들고 있어서 시급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피난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민족분단사의 중요한 스토리텔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북주민의 피난과 정착 그리고 분단과 통일은 여전히 민족통합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避難民)의 삶을 역사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피난에 대한 어원적 의미는 재난을 피해 멀리 옮겨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피난민 이들은 난민

(難民, refugee)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일반적 주민이동인 이주(移住, migration)와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억압내지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가오는 적을 피해 달아난 사람” “국가 내 피난,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온 종족 집단” 등으로 정치적 사실, 기아, 홍수 등에서도 기인된다.

사실상 강원도내의 피난민들은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흔히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한 북한주민들에게 강원도는 고향과 가장 가까운 제2의 고향이었다. 특히 함경남도와 이어진 동해안은 어민들의 월남통로였으며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업을 계속이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의 땅이었다. 이북도민들의 강원도정착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이북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다. 다음은 고향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여 의지할 곳이 있다는 이유였으며, 그리고 군 제대 후 근무지 인근에 정착하게 된 것, 결혼이나 직장 소재지, 친척들이 산다는 이유 등이다.

강원도 차원에서 수복지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68년이었다. 이것은 접적 및 수복지구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특수성에 적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는 자연분과, 산업분과, 사회분과로 나누어 강원도 수복지구인 철원(2읍9면1출장소), 화천(5면1출장소), 양구(4면2출장소), 인제(5면4출장소), 고성(6면1출장소), 양양(6면2출장소), 속초(11개동)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구성과 심리동향에 대한 내용이다.¹⁴⁾

누구보다도 개척정신에 불타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접적 및 수복지구로서 60년대

이 지역의 숙원사업은 ①후방지역과의 지역적 격차를 시정하고 ②사회공공시설인 전기, 철도, 교육 등 기관을 복구함에 주력할 것 ③수산진흥 ④농지확대 ⑤관광진흥 ⑥후생보건 및 의료권 확대 ⑦애향심과 관민협동 ⑧반공의식함양을 추진함에 국가적 뒷받침이 기울여져야 할 것 등이었다. 이 내용은 수산과 농업 등 기초적 생활과 관련된 것, 반공의식과 애향심 등 정신적인 것, 보건·의료·관광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강원도 지역 이북도민의 특수성 가운데 지리적 영향이 특히 강한데, 강원도와 함경남도가 해안선으로 연결되어 피난민들의 집단이주와 그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피난민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¹⁵⁾ 반공정신이 강하고 같은 북한사투리를 사용하며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는 등 향토애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越南동포들을 일너 避難民이란 이름으로 呼稱한다. 또한 우리 自身들도 亦시 避難民 然하여 自己의 位置와 존재가치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집 떠날 때부터 피난민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8.15후 쏘련군정이 되면서 그 정책면에서 나타난 현실은 우리나라로 쏘베트 연방화하려는 음모가 노골화하게 되니 건전한 정신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과 진보된 사상을 가진 인사들은 이에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던 결과로 투옥학살의 무자비한 탄압을 피하여 월남했고 기외 많은 사람들은 또한 자유를 찾고 정치적 이상향을 찾어 남하했고 6·25 후 1·4후퇴당시 대거 월남시에 우리 함경도에서는 고려군의 그림자도 못보고 국군과 함께 자유대한에 귀의한 것뿐이다. 피난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군함선에 편승하거나 검풀은 하늘아래 좁은 어선을 타고 희생을 무릅쓰면서 남하할 필요없이 삼수갑산 처녀림 혹은 농촌에 소개

하면 그만일 것이다.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후퇴 철수하는 전황이 불리한 군대의 뒤를 딸아온 우리들은 사기왕성한 국군의 후보자들이 엉섰다. 우리들 수십만이 월남당시를 회상해보라.

고향을 놈들에게 빼앗기든 때 ‘이놈들 두고 보자 내 이제는 큰 힘을 길러 권토중래의 좋은 때를 가지리라’ 이를 갈며 3·8선을 넘은 우리들이기에 피란민으로 불리기를 끄리며 그리고 打共을 第一義로 삼는 亡命 동지들인 때문에 정당 종파를 초월할 수 있었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도민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었고, 손을 잡을 수 있었는 것이다.¹⁶⁾

지난 1952년에 발간된 강원도 함경남도민의 기관지 『관북(關北)』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발간사에 의하면 “행정적 지역(함남북도)을 초월하여 사투리 상통하는 우리들 관북인끼리 와신상담하면서도 권토중래를 자맹(自盟)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경도민회 기관지로서 향토수복과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립각한 반공사상전에 전초병이 될 것을 자임”한다고 하였다.¹⁷⁾

2005년부터 강원도는 6개 시군, 35개 읍면에서 181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지역별 전략사업과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시범지역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취지로 위스타트(We Start) 운동으로 접경지 및 실향민 마을인 속초 아바이마을, 철원 민북 3개리인 화지·월하·관전리가 선정되었다. 위스타트의 위(We)는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복지와 교육이 운

14) 《接敵 및 收復地區 實態調查報告書》江原道, 1968, 31쪽

15) 沈基淵, 〈우리는 避難民이 아니다〉 《關北》第二輯, 咸鏡道民會, 1956, 12~13쪽

16) 沈相烈, 〈모래와 세멘과 벽돌〉 《關北》第二輯, 咸鏡道民會, 1956, 42쪽

17) 〈關北誌의 發刊에 際하여〉 《關北》第二輯, 咸鏡道民會, 1956, 9쪽

동의 핵심영역이다. 민통선 안팎에 있는 철원군 화지·월하·관전리는 광복직후 북측치하에 있었다. 6.25전쟁이후 이 지역이 수복되면서 농민들이 정착했다. 특히 민통선 북방인 월하리는 1959년, 관전리는 80년에 주민들이 입주하여 대다수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들은 영세농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속초 아바이마을은 북한에 고향을 둔 주민들의 집단정착촌이다. 행정상 청호동인데 1.4후퇴 때 창의배라는 나룻배를 타고 남하한 함경도 일대의 피난민들이 임시로 정착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게 되자 백사장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함경도 출신 가운데 특히 피난 1세대 노인들이 많아서 이들을 부르는 ‘아바이’를 따서 속칭 ‘아바이마을’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아바이마을 사람들은 잠시 거주하다 고향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에 집을 제대로 짓지 않아 허름한 판잣집이 많고 도로나 기반시설도 열악하였다. 아바이마을의 어려운 현실을 알려주는 대표적 상징이 갯배라는 직사각형 모양의 거룻배다. 속초시내와 아바이마을을 연결하는 이 배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연결된 쇠줄에 고리를 걸고 잡아당겨 전된다. 타지 인들에게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낭만적인 모습이지만 얼마 전까지 아바이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외부와 고립된 실향민의 섬, 언어의 고도(孤島)는 외롭고 가난한 마을로 상징화하였다.

대부분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북한지명을 딴 신포마을, 짜고치마을, 외고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

북한의 고향지명을 딴 9개 마을로 나뉘었으나 현재는 신포마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함경도 피난민의 삶을 엿보고 있으며, 인근에는 함흥냉면집, 아바이 오징어 순대집, 함경도식 가리국밥집, 아마이젓갈집, 아바이낚시집, 건어물 집 등이 들어서 있지만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월 소득 12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260명을 대상으로 위스타트 운동은 방과 후 교육과 체험학습 등으로 월 남한 피난민으로 구성된 아바이마을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피난민 후손이나 2~3세대 자녀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분단한국의 현실이라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기도 하다.

속초지역 피난민이 모여 사는 동네인 청호동 아바이 마을민속과 언어연구가 시도되었다.¹⁸⁾ 필자는 실향민의 자식으로 오래전부터 속초민속에 함경도 민속접합현상을 주목하여 글을 작성했으며 언어학전공자와 함께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속초지역 피난민에 대한 최초의 집중적 연구는 지난 2000년에 이루어졌다.¹⁹⁾

속초에 거주하는 피난민에 대한 정착과정을 문화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필자는 집필위원회장을 맡아서 이 일을 주도했다.

목차를 보면 제1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역사와 사회에는 한국전쟁과 속초(전상인), 피난민과 난민법(박용길),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김귀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정(박철환),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형성과정(옥한석), 속초시 거주

18) 장정룡·김무림,『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19) 장정룡 외,『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사득환), 속초시거주 피난민의 산업구조(심상목)연구가 있었다. 제2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에서는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음식(황재희), 속초피난민의 민속(장정룡),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김무림),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사회복지·환경·교육(신재주),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정재국), 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채재순)이 연구되었다. 제3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과 속초발전에서는 피난민 정착이 속초경제에 미친 영향(김영식), 속초의 남북통일 및 북방교역활성화 전망(김영식), 피난민 문화의 복원과 전승(장정룡)이 논의되었고 제4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에서는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양언석), 속초시 거주 피난민 체험기, 제5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사료, 연표(장재환), 부록에는 이북5도민회, 시군민회 현황,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속초지역 피난민 마을인 아바이마을을 현장조사한 성과로 논문이 나온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 김귀옥의 박사학위논문은 현장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한국전쟁기에 남하한 주민들이 정착촌에 모여 살면서 생활경험을 통해 형성한 정체성을 파악한 것이다. 월남한 피난민들은 정착촌에서 자신들의 생업기술, 정보, 계층, 언어, 음식문화, 관습, 사회의식 등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으며 한편으로 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며 정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착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그것은 이북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새로운 언어와 음식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점이다.

교류하고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것으로 변용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어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이야기’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냈다는 의의를 찾았다고 하였다.²⁰⁾

이 내용은 책자로 다시 간행되었고 이후 이산가족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속초 월남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쟁과 공간, 인간의 사회학적 만남으로 속초의 변모된 사회적 성격, 공간적 성격변모요인, 실향민의 고향을 넘어서 등으로 속초를 조명하였다.²¹⁾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는 지난 2007년 3월~9월까지 실시되었다. 이는 강릉대학교와 속초시박물관에서 공동 추진하였는데 1차에서 3차까지는 강릉대학교에서 19명을 구술 및 영상촬영을 하였으며, 4차는 시립박물관에서 구술 및 영상촬영 23명, 구술조사 227명을 실시하였다.²²⁾ 따라서 구술 및 영상촬영은 42명, 구술조사는 227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강원도 지역을 맡아 전국적으로 이북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속초시립박물관의 주관으로 첫 사업이 시도되었다.

분단이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하여도 여전히 혈육이 갈라져 만날 수 없으며, 지척의 고향을 두고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다. 육로와 해로로 월남했던 피난민들에게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배고픔이었다. 전염병과 추운 날씨, 해로상의 높은 파도도 진퇴양난의 피난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다. 북한군이든 한국군이던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전쟁포

20) 김귀옥,〈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재 ‘옹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귀옥,《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1) 김귀옥,《이산가족》‘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22) 장정룡 외,《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 보고서》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9

로시절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이다.²³⁾ 그리고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또 다른 이산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겼으며, 여전히 전쟁 중 목격한 비참한 상황들은 피난의 생생한 오늘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피난생활은 문학작품으로도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파초의 시인 김동명,²⁴⁾을 비롯하여 소설가 박완서, 문학평론가 유종호에 의해 피난체험과 한국전쟁은 참전군인의 체험기, 종군기를 비롯하여 문학작품으로 여러 번 재연되었다.²⁵⁾

속초출신 극작가 이반은 속초 청호동 피난민촌인 신포마을을 그의 희곡작품에 담았다.

속초는 동남쪽에 바다같이 넓고 평온한 호수가 있다. 바다에서 좁은 수로를 따라 호수로 들어서면 모든 어선들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하고 조용한 호수다. 수로의 동쪽은 넓고 긴 모래사장이 자리 잡고 있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모래사장엔 해당화와 잔솔들이 빽빽이 차 있었다. 호수와 바다 사이의 넓은 남쪽지역은 군인들이 경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하였다.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타고 온 목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 겨울이나 늦어도 봄까지는 고향에 갈 수 있겠다고 믿고 보트피플 생활을 면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피난민들은 선착장 수로 건너편 넓은 모래사장을 새 삶의 터 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당화와 잔솔, 모래뿐인 그곳은 허허벌판으로 텅 비어 있었고, 일제시대 사용하던 정어리 공장의 양철 거죽만 비비람에 녹슬고 있었다. 그 벌판에 가서 맨 처음 판잣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진취적이며, 덤비기를 잘한다는 북청군 사람들이었

다. 십 여 채의 판잣집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잡았다. 신포마을이 생겼다. 곧 단천마을이 생기고 홍원, 서호진이 뒤를 따랐다.(이반 희곡선집 1권 226쪽에서) 1951년 11월에 지금의 수협공판장 앞에 배를 정박시키고 속초에서 살기 시작한 필자의 눈에 비친 신포마을이 생겨나는 모습이다.²⁶⁾

김광주 등 문학인들이 낸 수필집 『피난민은 서글프다』라는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오직 살아야겠다는一念에서 당황히 남쪽으로 흘러온避難民 신세—모든 것이 不備한 셋방살이 數端에 의식주는 나날이 窮迫해 질뿐이요, 철없는 어린 것들도 눈치만이 남게 되며, 한동이 用水에조차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저녁이 되면 호소할 바이없는 한숨이 이 방문 저 창살에서 새어나오는 피난생활은 진정 서슬퍼지기만 한다. 그래도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가며 전쟁은 時時刻刻 새로운 면을 가져오고 있다. 多福하였던 前日에, 安樂하였던 내 살림에 대한 회상할 여유조차 주지 않으면서 급각도로 회집하는 歷史. 이미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 살기위한 엄연한 생활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떨치고 나아가는 자만이 '새로운 앞날'에서의 생존이 기약될찌니, 우리들 피난민은 밤마다 가슴을 조리는 '서글픈 그 무엇'에 하루바삐 결말을 짓고, 전진하는 현실에 따라서야만 될 것이 아닐까? 새로운 희망에서, 새로운 삶길을 찾아서…²⁷⁾

이주일의 시〈실향〉과 〈피난민〉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고향에 대한 국군장성의 회한을 보여준다.²⁸⁾

23) 裴東傑,《北韓捕虜收容所를 찾어서》永昌原色印刷社, 1962

24) 金東鳴,〈避難回憶記〉(一)(二)(三)《思想界》1957년 1월~3월호, 金東鳴,〈越南記〉《모래위에 쓴 落書》신아사, 1965, 267~325쪽

25) 이주일,《혈화의 전선》희망사, 1955 / 문제인,《종군기 남북삼천리》낙산각, 1956
김광주·조연현·한무숙,《피난민은 서글프다》수도문화사, 1951

하근찬 편,《한국전쟁소설 9인집》, 오리와 계금정》금리출판사, 1977

장영창,《한국전쟁실기》, 서울은 불탄다》동지사, 1978

26) 이반,〈신포마을을 푸르게 푸르게〉《설악신문》903호, 2009. 4. 20 오피니언

27) 金光洲·趙演鉉·韓戊淑,《피난민은 서글프다》首都文化社, 1951, 서문

28) 李周一,《血火의 戰線》希望社, 1955, 33쪽

〈실향〉

북진! 북진! 내고향 땅
울분과 희망을 지니고
전망의 진격!!
이 어인 총격!
겨레와 일기를 데리고
또다시 고향을 떠나니
오늘은 이력저력
올해는 어떻게?(1951년 4월 28일)

〈피난민〉

분한 마음 안고서
충청도에 이르니
일년에도 두 번
피난민의 심정은
원망을 마세요
또 다시 광명은 오리다
백마재를 오르니
다음은 추풍령인가 하노라(1951년 1월 7일)

을 가지고 있다. 남단 구릉지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며 전체 지표가 모래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면이 얕고 염분이 많아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 이웃 부월리에서 떠다 먹는 등 자연발생적인 취락형성의 조건이 극히 열악하고 청초호와 동해에 노출된 탓에 바람과 파도의 피해도 빈번하여 마을전체가 파도에 휩쓸리는 등 어촌으로서도 입지가 좋지 않다.

속초시 청호동 피난민촌인 아바이마을은 취락 입지 상 주민들이 살기는 적합지 않았으나, 기초시설이 구비된 항만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공지라는 점, 해안이라는 입지조건으로 고기잡이와 어물건조가 가능하다는 점, 월남한 함경도 어민출신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내려와서 이곳에 한명 두 명 모여들면서 집단 정착지화 했다는 점 등이 거주지로 선택된 이유였다. 특히 주문진 수용소촌은 해안에 인접한 철도부지라는 점, 묵호 피난민촌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야산 절개지로서 일반 주거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함이 오히려 이북도민 정착마을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총족이 되었다.

따라서 이북도민 정착마을은 원래의 주민들이 살지 않는 해변이나 모래성의 공지, 철도부지 등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는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속초와 주문진, 묵호의 경우 모두 동해안 항포구를 끼고 난민취락(Refugee Settlement)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마을 형성의 주요한 생업과 연관성을 보여준다.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된 이후 6·25전쟁으로 이곳에 유입된 이북주민은 무려 48,722명이었다. 1956년 당시 양양군 속초읍의 인구는 5,255가구에 22,567명이었던 것으로 본다면 전쟁난민들이 한때 다수가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88년 조사한 청호동 출신지별 가구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함경남도 출신자가

2. 속초실향민 정착과 문화전승

함경도 실향민의 집단거주지인 속초시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이 들어선 곳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은 백사장 모래섬으로 6·25전쟁 이후 북한거주 난민집단이 유입되어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서 지역개발이 규제되어 발전이 침체되었으며 도로가 좁고 불량노후 임시주택이 밀집되어 버스의 운행이 어렵다. 따라서 청호동의 명물로 알려진 ‘갯배’는 고립된 이곳과 시내를 연결하는 거룻배로서 수복기념탑과 함께 분단의 상징으로 남겨졌다.

청호동은 중앙동과 항로로 분리된 모래섬인 사주(砂洲)다. 그 모습은 고도 10m, 광폭 300m, 연장 1,000m, 전체 10만평에 이르며 남북으로 긴 지형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

92.9%를 차지하며 북청·영흥·홍원·이원군 순이었고 이들은 주로 해안지역 출신자들로 월남직전 어업종사자가 응답자의 69.6%를 차지하였다.²⁹⁾

이북도민들은 청호동을 중심으로 거주하다가 속초항과 동명항 부근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청호동은 초기 개척촌으로서 단천마을이나 신포마을을 중심으로 동향인들의 집단 모둠생활이 가능하였으나 생업기반이 취약하고 피난민의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여유모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외고찌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 이곳은 마치 함경남도를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중방언이 사용되는 언어의 섬(Language island)이 되었다.

따라서 강원도 내 동해안 지역에 형성된 이북도 민들의 집단촌은 문화적으로 난민의 섬, 언어적으로는 강원방언권 속에 속한 ‘함경도의 섬’ 심정적으로 ‘북한실향민의 고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속초시의 이중적 정체성과 북한 주민들의 집단거주지인 청호동 아바이마을 형성의 중심적 전기는 군정(military government)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월남인의 속초이주라는 현실적 동기가 맞닿았고, 여기에 더하여 속초 원주민문화의 약회라는 제3의 요인이 작용했다고도 분석한다.³⁰⁾

김귀옥은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한 지역사회 의 성격과 구성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점에서 공간사회학의 구체적 사례로 속초와 청호동을 활용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도내정착의 이북 주민들은 이질적 언어와 행동양식, 생활풍습 등으로 토착민들과 융화되기 힘들었지만, 전쟁 중 모두가 함께 생존해야 한다는 명제 하에 대집단을 형성하였고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해변가나 야산농선, 철도부지 등에 거주지를 택하여 직접적 마찰을 피하고, 경제활동도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특색이 강한 ‘난민의 섬’ ‘피난민촌’을 형성할 수 있었다.³¹⁾

함경남도 영흥에서 피난 내려와 속초에 와보니까 저짝 건너도 집이 불과 얼마 없었어요. 민간인들도 없었고, 여기 가 청호동이라는 마을이 된 이유는 그때는 북진 북진을 해서 고향을 가지면서 북진을 따라 동해를 따라 실향민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속초 이상 더 갈래도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 우리 실향민들이 땅이 있습니까, 뭐이 있습니까? 없으니 이 청호동 백사장에 그때 우리들이 집 한 칸 맨들래도 돈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다 판자를 사다가 각구목을 사다가 짐짓는 것이 돈이 제일 안 들고 빠르구 혈했던 말입니다. 그때 또 여기 공터이고 지금은 시유지나 도유지지만 그때만 해도 군정하니까 누가 못 짓는다 짓는다 하는 것도 없고, 실향민들이 각구목 이다를 사다가 그저 방한 칸 꾸려 이렇게 살다가 차츰차츰 이다 집을 늘궈 나가다보니까 결국에는 갈데없는 실향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맹근기래요…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청호동에 아마 대한 민국 80%가 한 동네에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일 겁니다.(윤덕훈, 남·76, 속초시 청호동, 1990.11.16)

29) 김형재, 〈속초시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지리교육논집》20집, 서울대 사대 지리교육과, 1988 참조

30)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역사비평사, 2004, 12쪽

31)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분단강원의 이해》한울아카데미, 1999, 220쪽 참조

속초지역에는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 군 간이비행장, 명태덕장 등이 있었으므로 어업이나 조선업 등을 제외하고는 요즘의 청호동처럼 젓갈 가공산업이나 함경도 음식의 먹거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60년대 이후 이북도민들은 흘어져 동명동 등대 밑 삼호마을, 감리교회 밑 단천마을과 시내를 질러가는 구 철도부지,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산언덕 비탈에 이북도민들이 옮겨 살았고,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웅덩이를 메워서 중앙시장과 청학동, 청호동 옆 교동 만천동에 택지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북도민들이 정착하였다.

실향민 2·3세대들이 고향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2005년 11월 속초아바이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아사모)을 결성하고 매월 20여명이 아바이마을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실향민 마을인 아바이마을의 역사와 탐방정보, 초등학교 앨범 사진 등을 올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바이마을 출신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었으며 훌륭한 관광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봄부터 아바이마을에 자전거를 배치하고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해마다 1월1일 해맞이행사, 5월 어버이날 경로잔치, 출신모교 행사 등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월 두 번씩 회원들이 모여 백사장 청소를 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생필품 바구니를 전달하는 ‘사랑의 장바구니사업’도 후원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도 돋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신수로 개설로 고립되는 청호동 신포마을에 집단이주와 존치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갯배가 다니는 신포마을은 청호동의 상징적인 실향민 마을로서 알려져 있으나 속초시의 ‘청호동 아

바이마을 이주대책 및 관광선 부두 종합위락단지 조성’ 사업에 의해 신수로가 개통되는 2011년 이전까지 180세대 370명의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신포마을 224가구 가운데 67%인 155가구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이 가운데 62%가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하였고 청호동이 74%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응한 신포마을 150명이 이곳에 살기 시작한 시점은 전쟁직후 31%, 출생당시 37%, 이사온 후 32%로서 10명중 7명이 피난민 1·2세대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이 고향인 경우는 29%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 존재의미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함경도 출신 피난민 1·2세대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국내 유일의 함경도 피난민이 집거해서 살아온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역사가 보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수로가 개통되면 청호동 9통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철거되어 신포마을은 또다시 고립된 섬마을화가 될 처지다. 또다시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야 할 이들에게 과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인 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신수로 사업과 신포마을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려해야한다. 이제 속초실향민의 상징인 갯배와 그 도선장이 있는 신포마을이 개발논리에 밀려 그 역사를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다.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이 그 아쉬움을 달래준다고 해도 분단역사의 쓰라린 흔적을 어떻게 현장에 보존하고 교육 자료화 할 것인가는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사실상 영원히 사라질 피난민촌 아바이마을 신포마을이 분단한국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접근 노력이 문화파괴지상주의와 맞물린 앞만 바라보는 개발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가을동화 드라마 및 영화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 아바이마을에는 함흥냉면, 오징어

순대 등 함경도 음식문화를 맛보고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 실향민인 ‘아바이’들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홈페이지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갓배는 엄마의 눈물을 실어 담고 다니던 배이다. 혼자 살면서 생선을 이고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리어커를 끌어 싣던 배, 마른 오징어를, 마른 명태를 실어 담았던 배, 그러기에 더욱 정든 배이다. 우리 엄마의 혼이 스며 있다.” “아쉬운 것은 개발이라는 구실아래 그 옛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각 골목, 옹기종기 옆집 숨소리까지 들리는 피난민 오막살이 집들… 아바이 마을을 개발하지 않고 그 모습대로 보존한다면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 이익을 위해 관광사업 브랜드를 이룬 것처럼 좋은 소재였을 것인데…당시를 복원한다면 나도 한 뜻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이곳에서 자랄 때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한도 끝도 없이 밤을 새워 얘기해도 모자를 입인데,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이곳이 주놀이터요, 무대였는데 이제사 다시 보금자리를 찾아왔네요. 시내로만 돌아치다가 다시 내가 자라던 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³²⁾

청호동은 피난민들이 백사장 위에 세운 새로운 희망의 땅이었다. 그리고 간절하게 통일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빨리 북한 고향을 가고자 했던 임시거처였다. 주문진 피난민촌 역시 철도 부지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다. 수용소촌이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은 도시정비지원에서 철거가 능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마을에 대한 사회학적, 문화적 측면의 전반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못한 채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속초아바이마을, 주문진 피난민촌, 동해시 묵호동과 벌한동 피난민마을 등에 살고 있는 피난민 세대는 여전히 남북분단의 피해자다. 이들의 삶은 사실

상 빙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이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하다. 대체로 깊은 주름살에서도 느껴지듯이 백발의 고령이므로 이곳에 ‘남겨진 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난민의 삶을 그들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화전민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지 못한 채 화전정리사만 존재하는 학문적 빈혈증을 느껴야 했듯이 피난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정리사업과 연구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부 부분 조사는 되었으나 개발논리를 앞세운 아바이마을이나 수용소촌, 피난민마을의 이주와 철거에 앞서 더욱 중요하게 이들 분단문화의 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회학적, 민속학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 그동안 조사된 구술자료 DB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북도민 개인인적사항, 고향의 풍경, 기억 및 과거사, 월남이전 거주지의 사회문화적 생활사 문화적 특성, 피난과 정체험담 및 현 거주지 정착과정의 생활변화과정, 월남 이북도민으로서의 정체성, 고향의 그리움 수록, 통일을 염원하고 가족 친지 혈맥잇기 기초정보자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화될 때 분단문화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 분석이 가능하며 나아가 통합의 한민족사가 재건될 것으로 믿는다.

이북도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을 정착촌이라 부른다. 이들이 혈연, 지연, 동향의식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를 추구했으므로 지역적 근접성이거나 친밀성에 따라 거처를 옮겼다. 따라서 이들은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의 정보제공이나 경제적 제공 등의 인연을 고리로 연쇄이동(chain migration)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북 출신 실향민들은 피난민 생활을

32) 엄경선,〈설악신문〉설악에서 희망을 찾는다(9)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08.10.13 14면

겪고 힘들게 정착하면서 그들 나름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비교적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이북 피난민들은 당시에 ‘석 달이면 돌아간다’ ‘꽃피는 춘 삼월이면 간다’ ‘이십일 피난’이라 하며 고향회귀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적 연고를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힘든 생활 가운데 한줄기 빛과 같은 위안을 얻었다. 이들의 문화는 점차적으로 기존의 토착문화를 대체하는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북출신들의 공통적 정체성을 공고하게 표출한 것은 언어, 음식, 놀이라고 판단된다. 외부적으로 들리는 북한 사투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분별하게 해준다. 또한 북한음식의 혀끝에 감도는 지역적 특징과 민속예술이 지닌 감성적 예술성이 남쪽 문화와 접합되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색채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유지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청호동 함경도 ‘아바이 마을’이다. ‘아바이’는 함경도 남성을 부르는 사투리다. ‘이(E)-봄세’는 속초지역 이북도민 역사문화 포털사이트 구축명이다.³³⁾

역시 함경도 사람들이 타인을 부르는 말이다. 이들은 정착초기 북청도청을 만들어 결집하였으며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음을 추고 통일이 되어 동이 틀 날을 기다리며 돈돌라리를 불렀다. 함흥냉면의 질긴 면발처럼 강인한 생활력으로 ‘북청물장수’의 근면성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음식문화는 강원도 토속음식보다 ‘명태순대’ ‘아바이식혜’ 등 그들의 문화를 이식하여 기존의 토속적인 속초문화를 수렴하

는 문화이식 현상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이곳은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만, 함경도 음식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자원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청호동에 살았던 김형준의 뱃소리는 장사동 속초출신 김봉준의 뱃소리와 다르게 불린다.³⁴⁾

이 분들은 타계하였지만 노젓는소리, 그물당기는 다리어 소리 등을 들어보면 확인하게 구별된다.

피난민의 초기 정착단계에는 국유지에 속한 공터나 백사장 근처에 연탄재를 메우고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일정한 좁은 공간에 땅굴형 움집, 반지하형태의 집이나 가건물, 판자집을 지었는데 주로 군용목재나 드럼통, 나무박스 등으로 집을 지었다. 점차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혹시나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북녘을 그리워하면서 피난민 생활과 생활고 등으로 불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가옥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대부분 지상점유권이나 가옥소유권만 인정을 받게 되고 각종 규제로 중개축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난민 마을과 피난민 가옥의 특성이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착촌은 초기 형태인 좁은 통로, 가로와 담장이 없이 지붕과 지붕이 이어지고, 겨우 한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지니게 되었다.

어쩌면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살 만큼 이북도민들은 타지에서 외로움을 탓을 수도 있고, 불분명한 지변으로 인해 아는 이북고향사람의 집 옆에 불법으로 자기 집을 덧대어 짓고 사는 자가들만 아는 ‘남몰래’ 방식을 취하였다. 청호동 짜고치마을에 함께 모여 사는 북청 창성리 출신들에게 이곳은 제2

33) '이북도민 역사문화 포털사이트(E-봄세 시스템) 구축최종결과 보고회' (2009.3.18) 자료에 의하면 정보제공측면(이북도민의 구술사 문화역사적 보존, 친족관계회복을 위한 협력정보제공, 이북도민 정착사 교육적 정보제공) 서비스제공측면(이북도민실 향민 세대의 커뮤니티 공간, 소모임 운영, 청소년들의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관 및 학술정보) 문화이해측면(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근현대사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화해의 무드형성, 사실적 문화발굴)을 위한 사업배경을 갖고 이북 도민의 구술조사 DB구축, 이북도민 실향과 정착과정 가상현실구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4)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속초문화원, 1997, 137~140쪽

의 고향과 다름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역시 ‘옮겨다님’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가 고향이예요. 1.4후퇴 때 피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경상도에서 한 삼년나마 살다가 아군들이 북진하다하니까 이내 따라 올라와서 어디 갔나 하니까 주문진에 와서 한 이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기 모두 백사장이구, 솔이 모두 낭구 요막씩 한 게 있을땐데 실향민들이 들어와서는 ‘아군들이 올라 간다’구 해서 뒤쫓아 와서 빨리 간다구 여기와서 정착한 기 어전은 40여년이요. 고향에서 배타고 모두 내려왔어요. 집이가 한 70호 됐는데 한 집이가 인민군대 간 아들이가 둘이 있으니까 고 하나만 아니 나오고 70호가 몽땅 다 나왔어. 처음에는 신포마을에 살았어요. 지금으는 청호동 사무소 바로 옆에 사는데, 첫 번에는 저 신포마을에 살다가 축향이 좁으니까 넓게 하여 배가 들어오게 하느라고 1차, 2차, 3차까지 하니까, 다 헐어서 나도 여기 나와서 집을 네 번 옮겼어요. 나도 집을 많이 옮겼어요. 저기서 한 3년 살다보니 여기 또 헐린다네. 그거 알았으면 객지 어디 멀리라도 갔을텐데. 모르니까 여기는 또 ‘아버지 동네’라고 함경도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데 가기 싫으해니까, 모두 사투리가 그만 딱 똑같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우리 함경도 사투리하고 들으면 다르니.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틀리니까 여기 와서 살으니까 ‘아버지 동네’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이들 때 보름날, 설쉬고 대보름날 사자놀음을 하거든요. 북청 사자놀음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지요.(김태수, 남.79, 속초시 청호동, 1998.11.20)

이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환경조차 확보되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은 북청사자놀음과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면서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억세게, 힘겹게, 눈물나게 이들은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되는 악착같고 장인한 생활력으로 집단 정착함으로써 사회적, 세대간의 상호작용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

지고 정치·경제적 분야를 주도하면서 한편으로 끈질긴 생명력의 실향민의식을 형성하는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³⁵⁾

우리 청호동에 정착한 실향민들은 참 황무지 땅에서 판자집을 짓고 뭐 오늘은 생활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배타고 나가 고기잡이하고 오면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들이 잡아오는 고기들을 손질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시기별로 오징어 나는 시기에는 오징어 건조시켜서 수입하고 겨울철에는 지금은 명태가 많이 잡히지 않지만 명태가 날 때는 명태를 할복해서 그 안에 창란, 명란, 아가미 이런 거 팔아서 정말 억세게 힘겹게 눈물겨운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그 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실향민들이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호동은 전국적으로 흩어진 실향민,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메카나 마찬가지입니다.³⁶⁾

한국전쟁 중 월남한 피난민들에게 임시로 생활할 공간이 필요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찾아 나섰다. 대부분 제한된 공간이고 신축허가가 나지 않는 백사장 인근이나 철도부지 등이므로 적당하게 좁은 가로를 따라 각 방을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능한 가옥은 대부분 남향 일자형이며 90%이상이다. 이것은 피난민촌이 주로 동해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므로 서쪽에서 연중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구조로 보인다. 가장 단조로운 기본형은 2칸 구조로 온돌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다. 규모도 협소하고 건물모양도 임시주택의

35) 김귀옥,《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속초시 거주 피난민정책사』 속초문화원, 2000, 92~93쪽

36) 장정룡,《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 생애사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115쪽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식구가 늘어날 때 3칸 형, 4칸 형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의 중개축이 늘어났으며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마을에 창고가 없으며 담장을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해산물 건조대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³⁷⁾ 이러한 모습은 동해시 묵호동과 발한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좁은 골목, 슬레이트지붕, 판자로 만든 대문 등은 피난민 가옥의 실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옥상 건조대 또한 이들의 생업을 말해준다.

실향민들도 배를 타던 사람들이라서 흥남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펜데나 돌리고 공부한 사람들은 서울 가 살고, 피난민 생태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 항구가 생긴 게 나무로 삼밭이라는 데 가서 다리 놓고 똑딱배가. 고기잡던 사람들이니까 참 잘해. 우선 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낙수질을 하던, 배가 한 척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누가 끌어 모은 거야. 아저씨가 있다, 누가 있다 큰 엄마 있다, 작은엄마 있다 이렇게 굶어 모은 거지. 지붕을 걷어낸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슬래트 위에다가 나무를 얹었어요. 창문에다가 작은 지붕 만들어서 비 맞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건 보온재, 대문 쪽에 사이다병 깨진 조각들을 붙인 것은 여기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거지.(조성황, 남·72, 동해시 묵호동 15-167, 2009. 4. 24)

이북도민이 지은 피난민촌 가옥은 대부분 정상적 삶의 이동에 따른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임시적으로 축조된 것이므로 이것 나름대로 독특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진행된 일시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주거형태는 남북분단이 지속화됨에 따라 점차

정착주거형태로 바뀌고 개별정착에서 집단정착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피난 초기에는 움막이나 천막생활도 했고, 씨레이숀 통, 휴대식량상자, 구호목재, 기름통 등으로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살았던 시대와는 전연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는 갯배가 없었고 덴마로 왔다 갔다하고, 전부가 모래벌판인데 덴마는 전쟁 때니까 이 앞바다에 미군 수송선 용역배지. 기름을싣고 위에다 널빤지나 스기목을 깐다고. 배가 기름을 다 부리고 갈 때는 바다에 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덴마도 만들고 소형 어선도 만들고 생계기반이 되었지. 휴전이 되니까 물량이 줄고 이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땅을 한 절반 파고 돌과 흙을 이겨서 이렇게 쌓고 위에다 흙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는 전부 시레이션 박스로 지붕을 만들었지요. 시레이션이 기름을 먹어 있기 때문에 몇 년 가도 비가 안센다고. 그 이후에 드럼통으로 이었고…(동문성, 남·63, 속초시 동명동, 1998.12.23)³⁸⁾

피난민 가옥의 구조를 보면 원추형 움막, 핵경도식 2칸 판자집, 일자연결형 공동주택, 블록 등을 활용한 극대건축 등으로 변화·발전하였다.³⁹⁾

정착초기에는 임시주거공간으로 군용폐기물이나 비닐 등으로 만든 원추형가옥을 짓고 살았다. 그러다가 남녀공간의 구분, 기능에 따른 허용공간 소유 등으로 원추형 가옥내부의 높낮이 조절, 간이벽설치를 통해 실내를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나아가 거주와 부엌공간을 분리한 2실구조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하꼬방'이라는 형태로 외부재료는 판자, 깡통을 두드려서 편 것, 종이박스 등을 벽에 붙였고, 지붕에는 루핑이라는 아스팔트 기름종이와 비닐장판 등을 잇대어서 만들었다. 내부에는 신문지

37) 장정룡,《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 보고서》속초시박물관, 2007, 34쪽

38) 장정룡,《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 생애사 조사연구》강원발전연구원, 2005, 119쪽

39) 정재국,《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속초시 거주 피난민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309~316쪽

나 기름종이를 붙여 습기를 피했으며 작은 쪽문을 내고 온돌을 놓았다.

속초 청호동의 경우 방과 부엌이 부뚜막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함경도식 주거형태를 보여주었다. 연결형주택은 어로공동작업으로 인한 단체생활로 몇 명이 잠만 잘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만 있었으나 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측면에 부엌을 증축하고 화장실, 세면실 등 공동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평면형식은 토지공간의 여유가 생기면 3칸, 4칸, 5칸 까지 늘어났다. 동시에 정착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내구적인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대부분 주거공간과 편의공간 등 3차 공간을 확보하여 초기 정착촌 가옥과 현대적 주거환경이 섞여서 나타나는 독특한 피난민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어 속초 갯벌나 해안선, 이북음식 등을 파는 상가가 늘어나고 이를 관광산업화하여 실향민역사와 관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속초시 실향관광문화촌이 들어서고 북청사자놀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속초나 동해, 주문진의 이북출신 피난민들은 이제 고령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며, 살아도 어디론가 다시 떠나야 할 운명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통일과 귀향의 한을 품은 채 이미 다른 세상 사람들로 되었다. 그것을 개인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과거사로 묻혀버린 그들의 삶과 생활터전은 결코 묻어버릴 수 없는 한민족 분단사와 피난사, 그리고 정착사이다. 길지 않은 시기에 이뤄진 이러한 눈물과 한스러움의 적충들이 평화통일과 통일문화을 지향하는 민족사의 새로운 토양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분단시대 한국인들 가운데 천만이산가족의 아픔은 여전하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의 실향 1~2세대 이북도민은 전체 50만 명으

로 이 가운데 10%인 5~7만 명 내외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어렵다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은 그것이 민족통일과 문화통합, 통일이후 혈맥잇기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이 속초시의 주관 하에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강원도내 이북출신 2,000명을 조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이북출신 중앙도민회 임원, 시장, 군수, 읍면장 등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피난정착과정 구술 및 영상촬영, DB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추진인력과 경험부족, 성과물의 활용계획 부재 등으로 이북5도위원회의 연차별 사업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향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조기완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6.25이후 정치적·이념적 영향으로 북한지역의 고유한 풍속과 문화예술이 변형되거나 단절되어 이에 대한 복원과 계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6.25이전 북한지역의 사료가 부족하고 연구성과 또한 그리 많지 않음에 따라 실향민의 구술을 통한 자료수집이 긴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이북지역의 고유한 풍속 및 실향민 정착생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민족적 대사업이다.

기록보존사업의 중점대상은 이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민속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특히 민속분야는 음식,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의 분야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이북5도 향토문화의 복원과 계승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정착과정에 대한 기록보존은 정착촌형성과정, 직업·주거

환경관계, 실향민문학, 또는 분단문학에 나타난 정착생활사 등이 구체적으로 수집되고,⁴⁰⁾ 한국전쟁 체험문학의 아카이브를 통해서⁴¹⁾ 민족통일을 앞당겨 통일이후 하나 된 민족으로 살아갈 제반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분단으로 갈라진 혈맥잇기 사업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겠다.

강원도에 정착한 피난민의 삶과 정체성과 특이한 상황은 문학적 소재로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시인 이상국, 김춘만, 최명길, 고형렬, 김영준, 권정남, 채재순, 극작가 이반, 최재도, 문영남, 소설가 강호삼, 이은자, 아동문학가 박용열 등도 분단문제와 실향1세대의 소멸과 2세대의 정착과정, 실향민의 그리움, 아바이마을, 통일에의 염원 등을 선명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5년 11월 개관한 속초시립박물관의 실향민문화촌에서 개최한 보여주고 들려준 ‘특별기획전시 – 사진과 음악으로 들려주는 실향민의 삶 展’은 실향민 문화의 메카를 꿈꾸는 속초시의 정체성을 감동적으로 잘 보여주었다.⁴²⁾

또한 속초시의 이북도민 실향민문화촌은 개성의 ‘ㅁ’ 자형 한옥인 땅리집, 평양의 ‘ㄴ’ 자형 한옥인

꺾음집, 평안도의 쌍채집 등 이북 5도의 전통한옥 5채를 비롯하여 청호동 아바이 판잣집 등을 복원해 놓았으며, 다양한 북한문화체험, 피난살이 체험행사 등 체험 프로그램과 실향민관련 학술·연구·교육행사가 펼쳐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에서 추진하는 실향민문화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2010년에 개최된 실향민축제 등은 속초시가 실향민문화메카로 발돋음하는 기초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향민문화중심의 특색 갖춘 전시실 운영,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과 피난생활 등이 있으며, 실향민문화의 보존전승과 문화관광사업추진으로 속초북청사자탈만들기 상설체험장운영, 북청사자놀음의 전수와 상설공연추진, 실향민 문화피난살이 체험행사로서 피난민 음식주먹밥 맛보기, 피난민 복색입어보기, 통일염원 그림그리기, 실향민사랑방 운영, 전쟁영화상영 등 다각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국가적 사업으로도 승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나아가 실향민 대표이미지 개발 및 활용사업, 실향민 문화원형 콘텐츠개발 및 활용사업, 실향민문화축제 개최, 실향민만남의 장 조성, 실향민사랑방,

40) 채재순은 실향민문학을 ‘남한에 정착한 북한출신 전쟁유민들의 삶이나 의식을 소재 또는 주제로 다룬 문학’ 분단문학을 ‘분단 상황을 제재로 다른 문학작품’이라는 뜻으로 정의하였다.〈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속초시 거주 피난민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322쪽

41) 예를 들면 박완서는 많은 작품에서 한국전쟁체험을 형상화하였다. 작품을 차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나목〉(1970),〈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2),〈부처님근처〉(1973),〈카메라와 워커〉(1975),〈겨울나들이〉(1975),〈더위 먹은 벼〉(1977),〈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목마른 계절〉(1978),〈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엄마의 말뚝2〉(1981),〈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아버지의 훈장〉(1983),〈저녁의 해후〉(1984),〈어느 이야기꾼의 수령〉(1984),〈비애의 장〉(1986),〈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해〉(1989),〈엄마의 말뚝3〉(1991),〈그 많던 싱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1995)

42)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 기획전, 2008, 10.14–11.30 이 특별전은 실향민의 삶, 피난과정의 이야기 피난사진, 피난민의 노래(대중가요)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획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6.25)은 분단의 고착화와 이산가족의 확대 재생산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남과 북에서, 그리운 고향은 있으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으로서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고향을 잊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통일의 일념으로 약착같이 살아온 실향민의 고단하고 애절한 삶의 이야기를 피난과정의 사진과 당시의 유행하던 유행가를 통해 들려주고자 한다. 실향민의 제2의 고향에서 펼쳐진 가난과 그리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저절한 노력들은 경제적인 삶의 향상은 가져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속에 더욱 깊이 남아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실향민의 삶과 그들의 바램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향사람 만남의 장 운영, 북한민속문화 보전·전승체계수립, 실향민 영상기록화 사업, 실향민문화연구센터 등도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속초시가 평화통일의 밀거름이 될 이북출신 실향민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국내유일의 실향민문화촌이 개관되어 그 뜻을 다하고 있으나 설악문화제에 속한 실향민축제의 독립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러한 취지는 신문사설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속초시가 지난달 30일 이북5도민위원회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우리나라 1,000만 실향민 가운데 300만 명이 황해도민이다. 실향민 중 가장 많다. 시 입장에서 이번 황해도와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 최대 실향민도민회와 교류의 물꼬를 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속초시가 실향민과 통일의 상징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속초시는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 일대를 실향민의 메카인 '통일관광 실향민 문화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실향민 문화타운은 실향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 북한지역의 민속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50여동의 실향민 판자집도 재현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천만 실향민들의 애환과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실향민 1·2세대 구술사 조사와 이북5도민 기록보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대 산학협력단이 오는 7월까지 한국전쟁 발발후 실향민들의 피난과 속초정착과정, 이북고향의 모습, 가족들에 대한 실향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녹취해 정리하게 된다. 한국전쟁과 실향민의 생활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료도 받고 있다. 속초시는 분단과 실향의 상징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추진한 특별한 사업은 많지 않았다. 오래 전에 한 교수가 실향민문화축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냥 묻혀졌고, 실향민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지만, 그들 삶을

정리하고 기록하는데도 소홀했다. 되레 실향민의 상징이었던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지금, 그 형체가 많이 훼손됐고, 얼마 안 있으면 역사 속의 마을로 남겨질 상황에 처해있다. 지금이라도 속초를 실향민의 메카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하겠다.⁴³⁾

2008년 7월 25일부터 2009년 2월 24일까지 7개 월간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은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이북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속초권(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650명, 강릉권(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350명, 춘천권(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700명, 원주권(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300명이었으며 출신도는 강원도 34%, 함남 28%, 황해도 13%, 평남 9%, 평북8%, 함북4%, 경기 4%였다.

따라서 5만 명 가운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북도민의 강원도 정착과 정조사·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제군, 태백시, 양구군의 경우는 한 명도 조사대상으로 삼지 못했고, 정선군, 횡성군, 영월군은 단 1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 조사 성과로 보기 어렵다. 이북출신 강원도민 정착생활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러한 과제가 도내에서 재 논의되고 지역별로 꿈꿨던 다시 자료수집과 내용을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실향민문화 콘텐츠로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 정착 이북도민 조사는 1940년 이전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실향이북도민 가운데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물로서 대부분 간단한 구술녹취에 머물고 있다. 구술녹취자료 1,800명인데 반하여 동영상자료는 불과 200명에 그치고 있으며, 당초의 과업목적 가운데 하나인 분단으로 단절된 친족관계 회복을 위한 협력하기 기초자료 확보 및 DB

43) '속초를 실향민의 상징도시로' <주간 설악신문>사설, 2007.4.2~4.8, 23면

구축사업을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전쟁-피난-정착'의 세 단계별로 미시적 체계적 집중적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고령화 상황에서 시급한 현재적 과제다. 통일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북도민들의 월남사유, 피난, 정착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원지역 이북도민의 월남사유⁴⁴⁾

가. 전쟁발발 전(1950년 6월 이전)

① 정치·이념적 요인

- 한국전쟁발발 이전 북한체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가족 월남
- 해방직후 북한의 농지개혁 및 재산몰수로 인한 가족 월남

② 경제적 요인

- 이북에서의 생활고로 일자리 찾아 월남
- 남쪽에 친척이 있는 경우 월남

나. 전쟁발발 후(1950년 6월 이후)

① 난민

- 전쟁 중 피난민으로 가족월남
- 피난과정 또는 전시에 국군에 입대하여 복무 한 경우도 있음

② 전쟁포로

-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반공포로로 석방, 정착

○ 이산가족 형성 배경

① 가족구성원 일부 월남

- 대가족이 한꺼번에 월남하지 않고 소인원으로

나누어 월남

- 전쟁 중 일시적 피난으로 생각하고 가족 일부 만 월남
- ② 단신 월남
 - 혼자서 인민군에 징집, 전쟁기간에 포로가 되어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 월남 및 피난과정

① 육로월남

- 전쟁 전 38선을 넘어올 때 길안내자의 인도반음
- 기차, 트럭, 도보 이용 월남

② 해로월남

- 소형어선 타고 가족 월남
- 1.4후퇴 때 군 함정을 타고 월남

○ 피난과정의 어려움

① 배고픔, 식량부족

② 전염병, 추운 날씨, 높은 파도

③ 전쟁포로 시절

④ 가족의 죽음

⑤ 시체, 폭격 등 비참한 상황

○ 정착과정

① 월남 시 첫 도착지와 현거주지 상이

- 피난과정에서 남쪽에 처음 도착 후 여러 지역 거쳐 강원도 현 거주지 정착
- 북강원도 출신들은 휴전 후 고향 가까운 지역에 정착(속초, 고성, 철원, 화천 등)

② 강원도 정착이유

- 이북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까움
- 이북 고향사람들이 많이 거주함

44)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보고서』이북5도위원회·강원도·속초시, 2009. 2

45) 김귀옥은 이북도민들의 속초지역 이주의 현실적 동기로서 ①속초는 고향에 가까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②군 후생사업자 38선 이북으로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속초 정착촌에 이동하였다 ③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동향인과 함께 일하게 되어 이동하였다 ④속초에 이미 정착한 연고자와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였다 ⑤속초가 어항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⑥속초 청호동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이동하였다. 『이산 가족』 역사비평사, 2004, 268쪽

- 군 제대 후 근무지 인근에 정착함
- 직장 소재지, 친척거주, 결혼 등으로 정착⁴⁵⁾

이북도민 실향민문화의 보존과 계승, 활용은 이북도민의 정체성 유지, 자긍심의 제공, 이북도민사회 통합, 지역사회 문화콘텐츠 확대, 통일 후 전통문화계승, 남북분단 정체성의 극복 등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북도민 문화정체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분류한다면 이북고향의 고유문화, 월남이후 새로 형성한 접합문화, 그리고 이북도민의 창출문화 등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 유일한 분단도로서 분단의 1번지인 강원도에서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의 새 번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된 시설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통일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으며 강원도에서는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통일교육권역에 맞는 주제와 통일교육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강원 7개 시군을 동해안권과 중부접경권으로 나누고 전자는 속초·고성·양양·인제, 후자는 철원·화천·양구를 권역화 할 것으로 향후 비전과 전략적 로드맵 설정을 제안하였다.⁴⁶⁾

강원도에는 바람직한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천혜의 관광, 문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동해안권과 중부접경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권]

- 속초시, 양양군: 통일교육의 산실(속초실향민문화

- 총, 청호동 아바이마을, 낙산사)
- 고성군: 통일의 길(통일전망대, 김일성별장, 금강산 자연사박물관, 6.25전쟁체험전시관, DMZ박물관)
- 인제군: 생명의 터(평화생명동산, 만해마을)

[중부접경권]

- 철원: 안보의 장(철원평화전망대, 노동당사, 월정역, 안보관광지)
- 화천군: 평화의 산실(평화의 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비목문화제, 북한강, 남북이 갈라지는 유일한 강, 금강산 옥밭봉)
- 양구군: 통일의 중심(한반도 정중앙, 땅굴, 도솔산 전직문화재)

3. 속초실향민 생활문화와 민속예술

분단의 일번지인 강원지역은 고향을 북에 둔 실향민 1·2세대가 5만 명 내외 거주한다. 따라서 이들 이북도민의 민속문화를 역사자료로 보존하고 나아가 통일지향의 문화자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북5도민 실향민 민속 및 구비문학을 목록 자료화하고 통일문화의 정책 연구 자료와 실향민관광문화자원화를 추구해야 한다. 민속자료는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세시풍속, 향토음식, 통과의례를 영상과 자료로 구분하여 구연자료, 동영상, 사진자료 등을 수집정리하며 구비문학자료는 설화, 민요, 속담·수수께끼, 북한사투리 등을 정리되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실향민 자료는 현재의 북한민속

46) 장정룡, 강원도 통일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통일교육권역 설정을 통한 상생공영론적 접근〉, (재)코리아하나재단, 강원동부지역통일교육센터, 2009.3.23

사, 생활사, 문화사, 언어사 자료도 함께 수집 정리하여 문화변동을 파악하고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통합하는 원천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북도민 실향민문화 아카이브센터를 설치하여 북한민속자료 원전전시, 영상물 상영, 사이버실향민문화박물관등을 운영하고 실향민문화원형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북한의 세시풍속 관련된 명절은 설·한식·단오·추석이 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이북주민들은 명절 때 고향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한다. 북한에선 민속명절 가운데 단오를 가장 크게 보내며 다양한 놀이를 한다.⁴⁷⁾ 하지만 2005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문화유산 결작에 등재된 이후 1989년에 복원한 단오를 ‘여름철 명절’로 이름을 바꾸고 ‘단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⁴⁸⁾ 따라서 공식적으로 북한법정민속명절에서 단오는 다시 우리들 앞에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이북도민들은 북쪽에서 살았던 동안에 함경남도는 정월대보름 만세교, 장수교 다리밟기가 성행하였고 단옷날 사자놀음, 씨름과 그네뛰기를 주로 하였다. 남쪽에 내려온 이북도민들에 의해 재현된 민속놀이와 민속극, 인형극은 다양한데 한국민속예술축제에도 출연하였다. 남쪽에서 재연되고 있는 민속놀이 가운데 함경남도의 돈돌라리, 단천아리랑 민요와 춤이 유명하고 민속극은 북청사자놀음이 전승된다. 현재도 함남지역에서는 여전한 전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함경남도의 북단인 단천은 원라선을 비롯한 철도의 본선들을 끼고 만덕과 허천, 금골 등 북관땅의 내륙지대를



속초북청사자놀음(1958년, 실향민들이 대보름과 농한기에 즐겼던 북청사자놀음은 속초에서 처음으로 재현되었으며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대이다. 더욱이 단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의 도회지로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가 깊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워진 노래도 그 역사가 깊기 마련인데 〈단천아리랑〉은 함남땅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민요의 하나이다.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띠여루 바다로 가세, 선창에서 정든 님이 손저어주네, 아리랑 띠여루 바다로 가세,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띠여루 만선이로세, 갈매기야 너도 좋아 춤을 추느냐, 아리랑 띠여루 만선이로세…’ 단천아리랑에 대한 전설은 본조아리랑의 김좌수란 지주대신에 황진선이라고 하는 선주가 등장하고 성부라는 이름대신에 곱게라고 하는 어부의 딸이 등장한다. 어부 리랑과 곱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선주님이 곱게를 탐내여 이들의 사랑을 방해여 나선다. 그리하여 곱게는 가슴에 피맺히는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고 리랑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종당에는 이들의 사람이 행복으로 귀결되는데 본조아리랑에 등장하는 리랑과 성부에 대한 전설을 바다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듈다.

북청의 〈돈돈라리〉는 민속무용곡의 하나인데 돈돌라리는 어원은 알 수가 없고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유래된 노래라고도 전한다. 음력 3월 한식무렵이면 녀인들이 남대천 기슭 모래밭에서 달

47) 장정룡, 〈민속〉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집문당, 2003, 145쪽

48) 선희창, 〈여름철의 절기와 민속풍습〉 《민족문화유산》 2007.2, 45쪽 “상상한 쑥을 뜯어다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 말리워 두었다가 속앓이 악으로 쓰기도 하였으며 부시깃으로 쓰기도 하였다”

49) 장정룡, 〈북한지역 단오절의 실제와 양상〉 《강원민속학》 제22집, 강원도민속학회, 2008, 523쪽

래를 캐다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돈돌라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노래와 춤은 당대시대의 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므로 1930년대부터는 반일집회를 하다가 경찰이나 밀정놈이 온다는 신호가 오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돈돌라리 춤을 추었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이렇게 북청의 돈돌라리는 이 지방에서 창작된 민요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애창곡의 하나이다.⁵⁰⁾

물론 분단이후 이러한 민요나 민속극의 남북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월남하면서 지나고 온 가락과 춤사위가 원형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이후 북쪽의 민속예술에는 사상성, 주체성, 집체성이 반영되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놀이는 남자는 팽이치기, 자치기(메뚜기치기), 연날리기, 눈썰매타기, 빙판타기, 여자는 널뛰기, 공기놀이, 오자미, 줄넘기를 주로 하였다.

함경도 출신은 스스로 ‘지루비’(험하게 생활했다는 뜻인)라고 할 정도로 외롭고 힘든 피난생활을 했고 남쪽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수산업, 노점상, 구두딱이, 지계쟁이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북출신들이 모이는 도민회에서는 통소도 불고 돈돌라리춤을 추고 신고산타령도 불렸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을 가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맹향의 동산에 함께 묻힌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남쪽에 정착하고도 이들은 북한의 음식과 놀이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고향음식이라고 하면, 함경도 음식이 돼지순대라고 있습니다. 이북식하고 여기식하고 틀리지요. 여기서 동네 시장 솜씨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잔치, 음식자랑 이래서 한번 했어요. 동네 시장이 바로 이게 솜씨라는 거야. 솜씨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자랑이지만, 이북에는 민요로서 돈돌라리라는 게 유명합니다. 노래 중에 실향민 정착촌에 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지만 민요로서 ‘돈돌라 돈돌라’ 하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할마이들이 잘 합니다. 지금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바지 장단이라고 있어요. 물장단. 그 두드리면서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지요.(필자조사:박임학, 남 · 78, 속초시 청호동, 2007.3.31)



1970년대 전마선경기(피난민들이 월남에 주로 사용한 전마선)

북한의 향토음식은 아주 특별한 편이다. 입맛은 결코 벼릴 수 없다는 이북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대표적인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비롯하여 옥수수떡, 수수떡, 가재미식혜, 명태식혜, 명란, 채빔이(송어고기를 말려서 나물을 넣고 양념을 해서 비벼먹는 함경도 음식), 수수가루로 만든 지짐이, 개순대, 별감자, 감자떡 등이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준다.

북 강원출신들은 메밀막국수를 즐겨먹는다. 이미 송나라 때 고려에 왔던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도 메밀국수가 등장하는데 한자어 목맥(木麥)에서 ‘목’의 ‘ㄱ’이 탈락하여 모맥이 ‘모밀’이 되었다가 메밀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⁵¹⁾

이 음식은 북한출신 뿐 아니라 지금도 강원도 사

50) 최창호,〈민요기행(2) 단천아리랑과 북청의 돈돌라리〉《금수강산》1991년 3월호, 오늘의 조국사, 53쪽

람들이 즐겨 먹는데 어려운 시절 구황식품이기도 했지만 명절이나 잔치, 손님접대에도 필수적인 음식이다. 메밀전병, 메밀산자, 메밀국수, 메밀떡, 메밀밥, 메밀적, 메밀전병, 메밀묵 등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했고 북강원 출신들이 남쪽 강원도에 정착 해서도 즐겨 먹고 있다.

북강원 국수 가운데 특색이 막국수다. 북강원 막국수는 메밀가루를 뽑아 김치국에 만 다음 김치나무를 얹고 고추양념을 따로 곁들인다. 평양냉면이나 함흥녹말국수와 달리 좋은 꾸미나 고명을 쓰지 않고 김치 물에 말았다고 하여 막국수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이 국수는 반드시 동치미에 맡고 배추김치를 잘게 썰어 고명으로 얹는다. 특히 회양 지역에서는 메밀국수를 자주 먹었고 1956년부터 북강원도에 조합이 생겨 공동작업으로 메밀을 생산했다고 한다.

북강원의 음식인 막국수는 ‘막’이 ‘대충·마구·함부로’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정교하게 공들이지 않고 막 해서 먹는 국수라는 설, ‘지금·방금’이라는 의미로 ‘메밀을 여러 번 뽕아 가루에 하얗게 만드는 공정을 생략하고 거친 상태에서 그대로 국수 밭을 뽕아 양념도 없이 그냥 동치미 국물에 막 말아 먹는 국수’라는 설,⁵¹⁾ 메밀의 특성상 흰색의 국수가 아니라 검은 색이 나는 ‘묵(墨)’ 국수에서 ‘막’ 국수로 변하였다는 설, 메밀의 제분과정에서 잘 선별하지 않은 메밀알을 제분한 가루인 막가루로 만든 국수라는 설, 메밀 걸껍질을 벗긴 맵쌀을 팻돌에 간 가루를 ‘맵가루’ 또는 ‘막가루’라고 하므로 이것으로 만든 국수라는 뜻 등이 있다.⁵²⁾ 북한지역의 특

색지방음식은 남쪽으로 월남하여 정착한 이북도민들의 입맛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도, 평양 등지의 음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함경도 음식이라고 하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당기는 가재미 식혜가 제일 유명하다. 가재미식혜는 토막 낸 가재미에 양념을 섞어서 만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젓갈반찬이다. 가재미식혜는 그 맛이 달고 상쾌하며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다. 함경도지방에서는 가재미뿐 아니라 명태나 도루묵기로도 식혜를 맛있게 담가 먹는다. 함경도에는 김자농마국수, 강냉이농마지짐, 장국밥, 태식, 반어반찬, 감자떡, 귀밀떡, 갓김치 등도 명산물로 알려져 있다. 함흥에서 이름있는 함흥국수는 양념으로 들깨가루를 치고 들기름을 줄여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명천앞바다에서는 미역과 다시마가 많이 나는데 이 고장에서는 미역과 다시마를 국수오리처럼 기늘고 길게 썰어 무쳐먹는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송이버섯, 고사리가 또한 유명하며 그 것으로 만든 음식들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평안도음식이라고 하면 노치를 들 수 있다. 노치는 찹쌀이나 기장쌀, 조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길금가루를 넣고 삭혀서 지진 떡이다. 주로 명절 때 만들어 푸짐한 명절음식상에는 놓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떡이다. 평안도지방에서는 가지로 만든 음식이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가지나물, 가지순대, 가지김치가 잘 알려져 있다. 가지요리는 평안남도 특산물이다. 평안도 음식으로는 또한 녹두지짐을 들 수 있다. 다른 지방에서도 녹두지짐을 해먹지만 평안도지방에서는 녹두를 갈아서 거기에 남새, 돼지비계를 넣는다. 평안도는 서해에 면한 지방으로서 수산물이 많이 나는데 그중에서도 건뎅이젓과 새우젓이 유명하다.

황해도음식이라면 해주비빔밥, 칼국수, 메밀국수, 녹두묵, 녹두농마국수 등이 알려져 있다. 한해에 한번이라도

51) 노영식,〈메밀과 막국수의 어원〉《메밀》3권1호, 한국메밀연구회, 1999, 63쪽

52) 전상국,〈막국수→막국수?〉《메밀》5호, 한국메밀연구회, 1999, 4쪽

53) 정현숙,〈남북강원도의 음식문화연구〉《강원도 인문학 기초자료조사연구》 북스힐, 2005, 493쪽

54) 김복조 외,《조선음식》근로단체출판사, 1985, 30~32쪽

녹두농마국수를 해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여 옛 날에 이 지방에서는 여름철에 녹두농마국수와 녹두묵을 해먹는 관습이 있었다. 황해도음식으로서는 도미국수, 송어찜, 김으로 만든 김쌈, 김구이와 나물이 또한 유명하다. 술로서는 해주의 박문주가 알려져 있다.

평양음식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평양냉면과 대동강승어국을 생각하게 된다.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평양지방에서 고유하게 만들어오는 이름난 국수이다.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며 고기국물에 동치미국을 섞어서 만든다. 평양냉면은 오리가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며 달고 새콤한 배맛이 잘 어울려 뒷맛을 감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대동강에서 많이 나는 송어로 끓인 대동강승어국이 유명하다. 대동강승어국은 맛이 각별하고 영양가가 매우 높다. 이밖에도 평양에서는 평양온반, 평양장반, 평양어죽, 갈비국, 갈비구이, 뱃장어구이, 평양군밤 등이 유명하다. 평양어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닭고기로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평양어죽은 영양가가 높고 매우 맛이 있다. 술로서는 예로부터 감흥로가 유명하다.

분단이후 남쪽으로 이주한 이북5도 실향민 민속예술은 북한지역민속문화의 원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실향민들의 정신적 결집과 애향의식이 표출되는 분야다. 현재 남쪽에 전승된 이북5도의 실향민 민속예술은 다음과 같다.⁵⁵⁾

(1) 함경도 민속예술

○ 함남

- ① 민속놀이-재가승마을극놀이, 재가승마을세시놀이, 재가승주지놀이, 토성관원놀이
- ② 민속무용-삼삼이와 돈돌라리
- ③ 민속극-북청사자놀음, 신창탈놀이
- ④ 민요-북청돈돌날이

○ 함북

- ① 민속놀이-구정대보름놀이, 홍해룡의놀이
- ② 민속무용-어베주지춤
- ③ 민요-고무산타령, 월기타령, 두만강뗏목노래, 애원성

(2) 황해도 민속예술

- ① 민속놀이-대동굿(해주본영), 연평도놀이, 작두타기, 평산지경당기소놀음 및 작두그네뛰기, 해주장군놀이, 황해도민속범몰이, 만수대탁굿
- ② 민속무용-해주검무
- ③ 민속극-강령탈춤, 봉산탈춤, 은율탈춤, 호랑이탈춤
- ④ 민요-배따라기, 황주난봉가, 황해도민요

(3) 평안도 민속예술

○ 평남

- ① 민속놀이-다리굿, 베짜기놀이, 인간칠십고려장 하직굿놀이, 제석방아놀이, 조심기놀이, 항두계놀이
- ② 민속무용-평양검무
- ③ 민요-진아리, 서도가요, 서도소리제석방아찧기, 서도소리경사거리, 서도입창, 서도잡가, 평양염불과 제석방아찧기

○ 평북

- ① 민속놀이-달구놀이, 달래강망패싸움, 발망아놀이, 성황부군도당굿, 영변성황대제, 평안도다리굿
- ② 민요-배따라기, 수십가엮음, 영변가늘량, 입체공명가 및 영변가

55) 문화부,《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1958~1992), 1992, 34회~48회(2007)자료는 문화관광부,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발간자료를 참고함.

이상의 이북 5도 실향민 민속예술을 살펴보면 함남지역은 민속놀이, 민속극, 민속무용, 민요 등 고루 발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함북은 민속극이 없고 민요가 많이 발굴되었다. 월남민들에 의해 재현된 북한의 가면극은 봉산탈춤은 김진옥과 이근성, 북청사자놀음은 윤영준 씨 등이 초창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봉산탈춤은 김진옥을 중심으로 봉산군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가면과 의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여주었는데 월남한 이북사람들의 망향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후원으로 재현되었다. 황해도는 민속놀이로 굿놀이와 민속극이 많고 평남은 서도소리를 중심으로 발굴되었고, 평북은 민요와 민속놀이가 많은 편이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민요를 말한다. 콧소리를 가미하여 한탄스런 느낌을 주는데 수심가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함경도지역은 민속놀이, 황해도는 탈·굿놀이, 평안도는 민요가 남쪽에서 민속예술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제

실향민의 속초정착은 이른바 문화이식(文化移植, *culturation acculturation*)의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문화이식은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화, 정복이나 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전체 사회나 개인, 가족단위에서도 일어나는데 경제교역, 관광, 노동자 파견, 지식전파, 매스미디어 등이 통로로 활용된다.⁵⁶⁾ 이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문화이식은 그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쟁으로 인한 이북출신의 속초정착이 가져온 문화적 접촉, 동화, 문화변동은 중요한 연구논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방적인 문화갈등이나 문화충돌의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대체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이후 피난민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나 정착 후 피난민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동력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지역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적 기반과 정서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뒤따라야 하며, 북한지역 문화가 강원지역에 융화되게 한 토착민의 배려와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기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함경도를 비롯한 이북5도의 문화들이 지역문화와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면서 독자적 문화권역을 형성하여 생존해왔음을 보여주는 표식도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함경도 사람들이 속초의 정치경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함경도 문화를 이식하여 기존의 토속적인 속초문화를

56)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8쪽

수렴하는 문화이식 현상을 보이기보다는 북한문화가 속초문화의 하나로 접맥되었다는 시각이 오히려 균형적이다. 필자의 경험을 보더라도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란 북한 출신 피난민 후손들이 겪은 심리적 갈등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또한 함경도 등의 북한문화가 속초의 주류문화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 견해다. 조양동 유적에서도 밝혀졌듯이 신석기 시대 이후 속초 나름의 문화적 기반이 축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부터 국가적 제사로 행해진 설악산 산악제를 비롯하여 근래에 들어와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문메나리 농요도 속초지역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장사동 뱃소리, 대포동 용왕제, 논뫼호 불꽃놀이, 울산바위 전설, 설악산 심메마니 풍습 등 속초민속과 구비문화들은 북한의 이식민속이 아니다. 그러므로 속초에는 민속과 문화의 특징이 없었다가 북한 이주민속으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표피적 관찰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분단지역이 되었으며 지리적으로 38선에 가까운 어항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접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속초의 고유한 문화와 북한이주문화가 접맥되어 속초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보는 관점이 오히려 균형적 시각이다. 속초시가 환동해안 시대의 허브 도시로 발전하고, 북방진출의 교두보로서 주목받고 있으므로 속초가 지닌 독특한 접합문화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도 실향민문화, 분단문화, 통일문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대한 국가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제의 하나로서 첫째, 실향민문화연구소의 설립이 요망된다. 이미 실향민 1세대는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고 1.2세대, 2세대들에게 민족분단과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교육, 연구과제는 매우하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 산재한 분단의 산물을 통합과 통일의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이북5도 자료관의 건립이다.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문화의 이질화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민족의 원대한 꿈을 성취하고 갈라져 있는 혈육을 이어나갈 기초적 자료관건립과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센터가 요구된다. 이북5도 자료관과 함께 북한민속알기센터, 북한음식문화센터 건립, 실향민축제등 북한문화와 민속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강원도에서는 금강산에서 남북민속축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1950년대 이후 그 원형을 견지하고 있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실태조사와 발전방안 모색, 속초실향민축제 등의 연구와 행사는 지속되는 것이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간, 남북간, 한민족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천만이산가족을 혈육 찾기 차원에서만 자료를 축적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합형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에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실향민 영상 구술 및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를 통한 지속적 수집과 정리, 민족평화통일자료 활용이다.

넷째는 통일교육 특구지정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콘텐츠개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분단도인 강원도가 평화통일에 앞서는 사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속초시가 있다. 따라서 속초시의 실향민문화에 대한 창의적 발전계획과 그 실천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金光洲 · 趙演鉉 · 韓戊淑, 피난민의 서글프다. 首都文化社, 1951

金宗文 編, 戰時 韓國文學選 詩篇, 國防部政訓局, 1955

張虎崗, 抗戰의 祖國, 人間社, 1955

金東鳴, 避難回想記(一)(二)(三) 思想界, 思想界社, 1957, 1~3월호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金東鳴, 越南記 1~5, 自由文學, 韓國自由文學者協會, 1958, 7월호~10월호

沈基淵, 關北 第二輯, 咸鏡道民會(春川), 1962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金東鳴文集刊行會, 金東鳴隨筆 · 手記集 모래위에 쓴 落書, 新雅社, 1965

江原道, 接敵 및 收復地區實態調查報告書, 江原道內務局地方課, 1968

張虎崗, 虎崗戰陣詩選, 亞成出版社, 1969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 사로청출판사, 1974

홍종혁,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문출판사, 1974

河瑾燦 編, 韓國戰爭小說 9人集, 오리와 階級章, 金蘭出版社, 1977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束草文化院 束草文化 創刊號, 1984

김복조 · 정순화 · 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1, 조선음식, 근로단체출판사, 1985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구상 · 장호강, 分단상황의 문학적 특성, 한국참전시인협회 제6회 문학심포지엄, 1987.7.25

K 굽타 외, 정대화 번역, 한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신학문사, 1988

리제오, 조선민속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김열규, 오늘의 북한민속 –동질성회복을 위한 진단, 조선일보사, 1989

조범희 · 오금순, 계절음식, 근로단체출판사, 1989

최철 · 전경숙,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오창원, 우리나라 지리와 풍속, 금성청년출판사, 1991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한성경,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朴益勳, 落穗集, 강원일보사 출판국, 1996

문화재관리국, 北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장정룡 · 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 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강원사회연구회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9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아바이 마을과 김제 용자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장정룡, 동해시의 어로문화, 동해시, 2000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리정순 외, 열두달 민속놀이, 근로단체출판사, 2002

장정룡 외,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 집문당, 2003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김문흡 · 리길황, 민속명절료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5

림찬영, 조선의 특산료리, 평양출판사, 2005

장정룡, 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거주실향민 생애사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정금철 외, 강원도 인문학기초자료 조사연구, 북스힐, 2005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장정룡,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 속초시박물관, 2007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개발, 속초실향민문화콘텐츠학술세미나, 2007.12.15

강원지역이북도민 정착과정조사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 · 이북5도위원회 · 강원도 · 속초시, 2009

장정룡 외, 강원지역이북도민정착사, 속초시 · 속초시립박물관, 2009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사진으로 바라 본 1950년대 속초의 모습

설악
신문
프린서
기자
이수영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말~1954년까지 미군정 치하의 속초에서 근무한 폴 뷔포드 팬처씨(81,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거주)가 50여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당시 속초지역 사진 100여점을 속초시립박물관에 보내왔다. 팬처 씨가 보내온 사진은 지난 53년~54년 미군 복무 시 속초지역의 생활모습과 자연환경을 천연색 컬러사진과 흑백사진으로 촬영한 희귀자료다. 다소 아쉬운 것은 주둔지가 현 시청 앞 일대라 부월리, 운정리, 대포, 도문동 등 속초의 옛 풍속이 담겨있을 법한 곳에 대한 사진이 없다.

처음 사진은 지금의 시청 옆 삼육어린이집 위에서 **동명동과 영금정**쪽으로 찍은 모습이다. 사진의 왼쪽 아래 건물은 지금의 시청 민원봉사실 건물 터로 보이며 54년~55년에 의료기관 건물로 축조된 듯하다. 바로 위 밭은 지금의 옛 경찰서 인근 부지로 보인다. 사진 맨 오른쪽 아래 군사시설은 속초항 항만통신 파견대로 보이며 옛 헌병대 부지로 추정된다. 사진 중간지점에 축조 중인 수복탑의 골격이 보인다. 이 수복탑은 1954년 5월10일 건립됐다.

1

동명동 성당이 확 눈길을 끈다. 동명동 성당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건립됐고 1953년 8월15일에 낙성됐다. 당시 초대신부는 네덜란드 태생의 원바오르 시오 신부였다. 동명동 성당 모습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성터가 바로 장골이다. 지금의 춘천지법 속초지원 · 지청과 감리교회, 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이다. 성벽이 뚜렷이 보인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이 일대를 단천마을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전쟁 중 피난 온 함경도 단천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고 해 붙여진 별칭이다.



일제 때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는 바로 이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장안이란 '성 안쪽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문현 상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고려 현종 2년(1011년)부터 숙종 2년(1097년)까지 약 80여년 동안 20여 차례나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다. 왜구의 침입도 만만치 않았다.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보면 고려 문종 즉위년(1046년) 병부랑중 김담(金擔)을 보내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기

까지 성곽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고려 목종 10년(1007년) 10월에 흥화진(興化鎮 : 평북 의주군)·익령(翼嶺 : 강원 양양군)·울진현(蔚珍縣 :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성 흥화진 익령 울진현-城 興化鎮 翼嶺 蔚珍縣). 아직 양양군에서는 고려시대의 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금정 옆에 돌산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60년대까지 이 돌로 방파제를 축조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영금정 옆 바로 옆 산 위에 보이는 시설은 일종의 사이렌 시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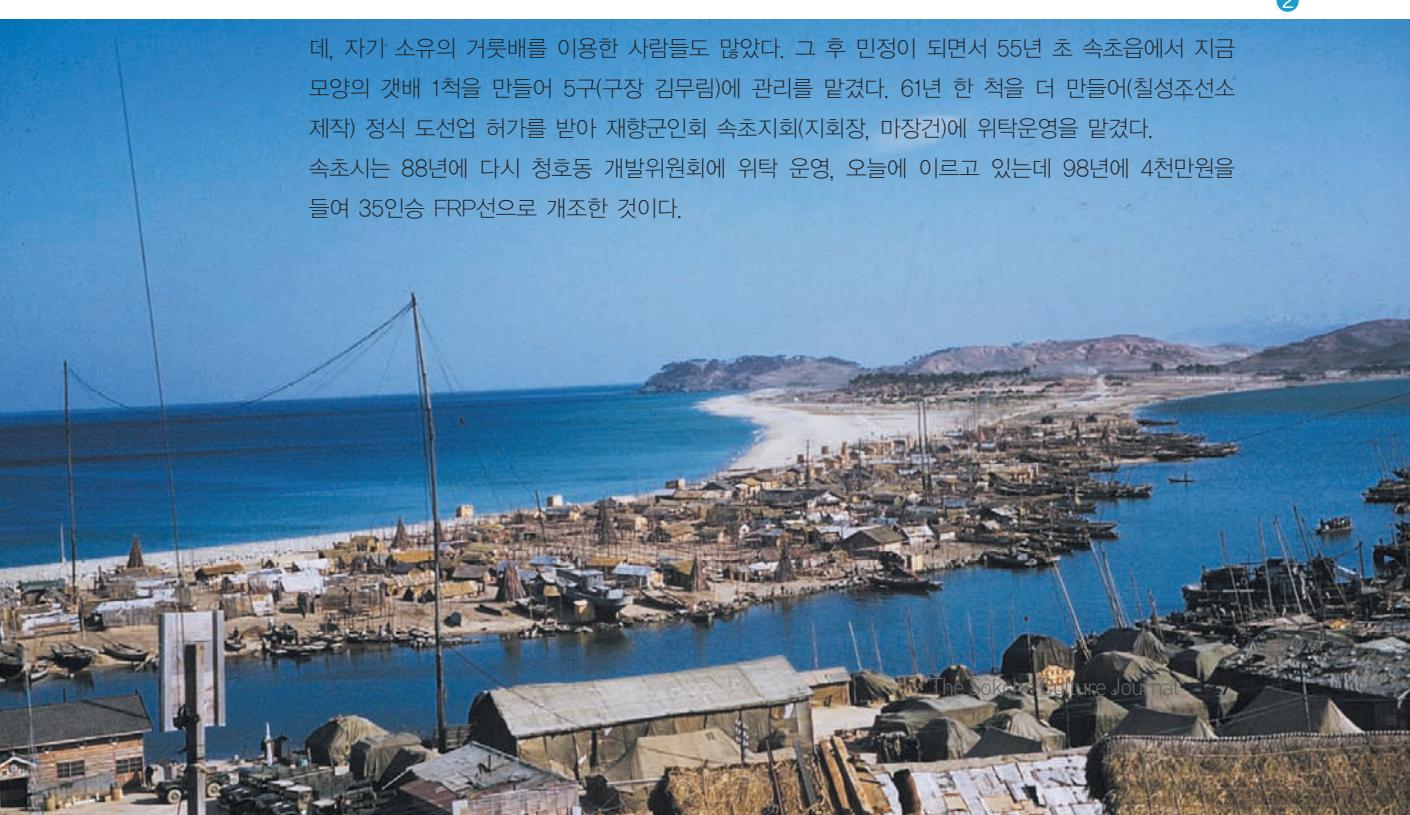
두 번째 사진은 전쟁직후 청호동 일대다.

덕장에 명태나 오징어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면 춘궁기에 찍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곳곳에 고랑대를 곤추 세운 모습에서 이 즈음부터 실향민들이 하나 둘씩 유입돼 온 듯하다. 멀리 외옹치가 송림을 잔뜩 짚어지고 의연히 자리하고 있고 청호동과 부월리를 잇는 도로가 보인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갯배가 보인다. 갯배(도선)는 일제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생긴 것이다. 당초 부월리2구(청호동)와 속진(중앙동)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해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였는데, 당시의 갯배 크기는 트럭 한대와 우마차 한두 대를 같이 실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속초문화원 자료에 적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폐선, 그 후 수복이 되면서 거룻배(종선)를 사용하게 됐다. 동문성 전 속초시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김만수 행정서사 부친)이 주업으로 하였는

②

데, 자기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 후 민정이 되면서 55년 초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구장 김무림)에 관리를 맡겼다. 61년 한 척을 더 만들어(칠성주선소 제작)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지회장, 마장건)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속초시는 88년에 다시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 운영,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98년에 4천만원을 들여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사진과 같이 그 당시엔 집들이 몇 채 없었고, 북녘고향 가까이에 살려고 1953년부터 실향민들이 청호동에 모여들었다. 실향민들은 척박한 모래땅을 맨손으로 다져서 선사시대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 유독 덴마(경상도 사투리로 노를 젓는 작은 배)가 많이 보인다. 그 당시 시멘트 탱크들이 많았다고 한다. 함석집과 기다란 전주대가 눈에 들어온다. “전쟁 직후 속초 앞바다에 미군 수송선 용역배가 드나들었어. 기름을싣고 위에다 널빤지나 스키목(삼나무)을 까는데, 이 배가 기름을 다 부리고 갈 때는 이것들을 바다에 버렸어. 그걸 가지고 덴마도 만들고 소

형어선도 만들어 생계기반을 삼았지. 전쟁직후 물량이 출자 정착민들이 땅을 파고 돌과 흙을 이겨서 쌓고 위에다 흙벽을 만들고 지붕도 올렸어. 그 당시 지붕은 전부 시레이션(미군 전투식량) 박스였는데, 시레이션은 기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가도 비가 새지 않아 그 이후엔 드럼통으로 이었지. 1950년대엔 전부가 둑이 달린 목선이었고, 이후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동선이 생겼지.”(동 전 시장)

사진 우측 산이 부월리쪽이고 가운데 송림은 한때 공동묘지였던 지금의 청소년센터자리이고 그 위쪽이 속초해수욕장이다.



③

세 번째 사진은 현 **우리은행** 주차장 부지에서 조도를 향해 찍은 사진이다. 흙먼지 풀풀 날리며 정복(한복) 차림의 학생들이 무슨 기념식 행사에 동원돼 가는 풍경을 포착한 사진으로 보인다.

동 전 시장은 이 당시 사진 왼쪽(미군 짚차)에 LST기지가 포진해 있었다고 했다. 예로부터 동명항이 번성해야 하나 바다 밑에 임조들이 많아 입항에 어려움을 겪어 대포항과 중앙동 항포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50~60대 속초 본토배기들은 초등학교 시절 매립 전동명항 앞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암초에 붙은 섭을 따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뉴동춘호의 스크루가 암초에 부딪쳐 출항하지 못한 사건도 이 일대에 수많은 암초가 널브러져 있기 때문이다.

탱크를 실어 육지에 상륙시키는 배인 LST(Landing Ship Tank)선이 조도 근처에 많았다고 한다.

흙먼지 풀풀 날리며 정복(한복) 차림의 학생들이 무슨 기념식 행사에 동원돼 가는 풍경을 포착한 사진으로 보인다.

〈내고향 지명록〉을 낸 김정우씨에 따르면 멀리 보이는 조도는 예전엔 대섬(竹島)이라 불렸다. 농사철에 이 섬에 들어가 대나무를 베어 빗자루를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새섬(鳥島)이란 명칭은 지난 62년 김치룡 속초읍장이 용초정이란 정자를 이 섬에 건립하고 소나무를 식재했다. 이 섬에 굴이 있었는데 그곳에 박쥐와 갈매기들이 몰려들면서 생긴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부터 이 섬엔 자연산 돌김과 미역, 고루매, 까시리, 국수나물, 진동아리, 전복, 섭 등이 많아 배를 이용한 천렵코스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네 번째 사진은 지난 54년 조여름 지금의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수복탑과 영금정**을 향해 찍은 컬러사진이다.

사진 좌측 중간이 지금의 영금정 정자위치며 사진 한가운데 위치한 초소는 국군1군단 헌병 초소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2명의 아낙네가 보이고 미 군함도 떠 있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수복탑은 모자상(母子像)으로, 한국전쟁 때 이남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휴전 후인 1954년 5월10일 건립됐다. 미군정 치하에 세워진 이 수복탑은 지난 83년 4월27일 강풍으로 붕괴돼 범시민적 참여와 수복기념탑 복원건립위원회의 주관으로 83년 11월17일 복원됐다.

54년 당시 수복탑 어린아이 동상의 오른손이 어머니 왼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인 반면, 83년 복원된 동상은 아이의 왼손이 북녘을 가리키는 형상으로 왼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4



다섯 번째 사진은 명태 잡이 배마다 ‘**물지게**’

라 부르는 여자가 꼭 동승했다. ‘물지게’는 배에서 필요한 땔감과 식수를 책임졌다. 물지게로 보이는 아낙네가 낚시함지 2개를 포개서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땔감을 실은 후 반합과 수고비로 받은 생태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5

명태잡이는 줄낚시로 했다. 목선 1척에 5~6명의 어부가 동승해 각자가 낚시함지 몇 개씩을 공동으로 지참하고 새벽에 출항해 해질 무렵 귀항한다. 50년대엔 노젓는 배에 둑달고 작업했다고 한다.

〈내고향 지명록〉을 낸 김정우씨에 따르면 파도가 잔잔할 땐 샵쪽(현 동명동주민센터 앞쪽) 항구에 배를 대고 파도가 높을 땐 속초항에 배를 댔다. 당시 샵쪽 항구에 배를 댄 이유는 명태 건조용 덕장이 대부분 영랑동 백사장 해변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배가 들어와 명태를 육지에 풀 때 20마리(한 두름)씩 코다리를 펜 채 바닷물에 던져 긴 장대(갈고리 나무)로 명태를 끌어냈다. 많이 잡은 날은 상인에게 팔고 양이 적을 땐 어민 각자가 나눠가져 집에서 건조했다. 명태 잡는 배마다 ‘물지게’라 부르는 여자가 꼭 동승했다. ‘물지게’는 배에서 필요한 땔감과 식수를 책임졌다. 물동이에 이고 온 물을 배에 봇고 땔감도 단을 맨 채 싣는다.

명태가 많이 잡히면 여자 수입으론 적지 않았다고 한다. 명태바리가 끝나면 ‘물지게’는 선원들에게 성대한 음식대접을 하는데, 그 사연인 즉 ‘물지게’ 담당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일종의 로비인 셈이었다.

사진에 나오는 아낙네도 ‘물지게’로 보인다. 낚시함지 2개를 포개서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땔감을 실은 후 반합과 수고비로 받은 생태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반합에 숟가락이 꽂힌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50대 이상의 묘한 향수를 자극한다. 이 당시 덕장에서 아낙네들이 품팔이로 명태때기 기를 했는데, 명태알은 주인에게, 아가미와 내장은 명태때긴 사람 둘이었다. 아낙네들은 집에 가져온 아가미와 내장을 밤새 손질해 아침에 돈 주고 수거해가는 상인에게 넘겨줬다.

덕장에서 마른 명태 관태(貫太)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때 동네 아낙네와 아이들이 괴챙이로 명태눈알을 빼다 팔았고 동절기 긴긴밤 집집마다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다.

명태의 이름도 가지가지다. 생태만 해도 선태, 망태, 애기태, 노가리, 은어받이, 동지받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잡히는 시기에 따라서 동태와 춘태, 꺽태, 막물태로 불린다. 연근 해산 명태는 ‘지방태’, 원양어선이 잡아오는 명태는 ‘원양태’라 불렸다.

제사나 고사상 위에 마른 명태가 꼭 올라간다. 명천에 사는 태 서방이 처음 잡았다고 해서 명

태란다. 명천은 함경도에 있는 고장이다.

겨울이면 꼭 상에 오르던 생태지리가 간절하다. 무에 싱싱한 명태, 다진 마늘과 파를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명태지리가 된다. 꼬들꼬들하게 절인 명란젓이며 창란젓, 서거리를 섞어 담근 깍두기, 명태식해, 명태김치가 침샘

을 자극한다.

예로부터 겨울이면 고성에서 속초에 이르는 항구엔 명태가 풍년을 이뤘다. 바다수온 상승과 남획으로 작지만 얌전한 색깔과 깊은 맛을 자랑하던 지방태가 고성과 속초 앞바다에서 사라졌다.



6

여섯 번째 사진은 지난 54년에 속초에 온 **금광(錦光)서커스단**이 서커스 홍보를 위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지금의 우리은행에서 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중곡예, 줄타기, 철봉, 오늘뿐(오늘 뿐의 표기잘못)' 이란 깃발을 들고 서커스단 뒤를 따라가는 어린이들 모습이 50대 이상 된 우리들에겐 친근하게 다가온다.

〈내고향 지명록〉을 낸 김정우씨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에 유랑극단과 서커스단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북치고 나팔 불며 깃발을 높이 앞세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것이 공연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이 때 깃발을 들고 다니는 기수는 동네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었는데, 서로 기수를 하려고 싸우기도 할 만큼 인기였다고 한다. 기수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 날 공연이 공짜였고, 입장객들의 팔뚝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이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속초에서 서커스공연이 잦았다. 청학동 옛 해경대 일대(육구)가 이 당시엔 공터였는데 이 곳에서 동춘서커스단 등 굴지의 곡예단 공연이 열렸다. 대규모 풍을 치고 입장객을 받았지만 풍의 틈새로 몰래 들어가 줄타기와 원숭이 쇼 등을 관람하던 옛 추억이 또렷하다.



7

일곱 번째 사진은 지난 53년 한국전쟁 직후 외신에 암시장(暗市場)이라고 보도된 **1구(영랑) 시장**의 모습이다. 북강원 북고성 출신인 이관희 옹(78, 속초고 1회)은 1·4후퇴 때 아버지를 따라 남으로 피난 나왔다고 한다.

지난 52년 한여름 묵호에서 군대 후생사업 트럭을 용케 타고 속초에 왔다. 이 옹이 속초고 2학년 때 부친인 이상원 옹과 이창섭 옹이 동업으로 영랑동시장에서 '중석상회'란 간판을 걸고 솥, 냄비, 수저, 철물 등 생필품을 팔면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

얼마 후 부친이 영랑시장에서 우리 포목점을 열었고 중석상회는 지금의 갯배 가는 입구인 소담쌈밥 건물에 자리를 잡고 주로 건축자재 등을 취급했다.

그 후 우리 포목점을 중앙시장으로 옮겼고 후에 백림약국을 운영했다.

53년도 당시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지붕이 모두 하교방이었다. 중석상회는 군부대의 후생사업 트럭에 건어물을 싣고 멀리 부산과 대구에서 솥, 냄비, 수저, 철물 등 생필품으로 바꿔서 오는 등 장사가 하도 잘 돼서 하루 12시간의 중노동도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여덟 번째 사진은 속초시 동명동 450-195번지에 있었던 프랑스식 고깔형 건축구조의 54년도 **속초역사(驛舍)**. 지난 78년 철거되기까지 37년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운명을 함께 했다. 지난 51년 8월부터 54년 11월까지 속초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속초역사(驛舍)는 미군 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사진 속 연설자는 E.A.D.모카티(MoCarthy) 소령이다. 역사(驛舍) 옆에 숨어서 옆듣는 교복차림의 학생이 이채롭다.

동아일보 1937년 9월 14일자에 의하면 37년 12월 1일자로 동해북부선 양양역~공현진역까지 42km구간 개통을 목표로 역명이 결정됐다. 양양역(7.5km)~낙산사역(3.7km)~대포역(5.5km)~속초역(6.5km)~천진역(5.9km)~문암역(5.9km)~공현진역(6.7km)~간성역까지다.

동아일보 37년 9월 18일자엔 낙산사와 전진해수욕장이 명승지로 유명해 수천명의 유람객들이 찾았는데, 기차역 배정이 없자 강현면이 철도당국에 수차례 진정해 결국 임시역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제가 동해북부선을 양양까지 부설한 것은 양양의 철광석을 원산으로 수송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의 목적 때문이었다.

양양역과 대포항은 당시 서면 장승리 자철광광업소에서 생산되는 철광수송기지였다. 당시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즐겨다니던 봄·가을 소풍지는 금강산이었는데 그 이동수단이 기차였다고 한다.



⑧



9

아홉 번째 사진은 현 농협중앙회 속초지부 도로 건너편으로 전 중앙파출소 뒤(경북여관 자리)에 있었던 **우물**이며 옆 건물은 미군부대 숙소와 사무실 건물이다. 이 당시 청호동 일부 주민들이 갯배를 타고 건너와 이곳 우물에서 물을 길어갔다고 한다. 사람과 물은 반드시 함께 하는 법이니 그 당시 우물의 역사가 속초의 압축된 역사였을지도 모른다.

〈내고향 지명록〉을 낸 김정우씨에 따르면 주민의 분포에 따라 우물이 하나씩 생겨났는데, 샵쪽마을(현 동명동주민센터 앞쪽) 우물이 제1호이고 맞은쪽과 영랑동, 수복탑, 시청 쪽 순으로 민가가 뻗어가면서 차례로 우물이 생겨났다. 특히 속초우물 1호라고 주장하는 샵 쪽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1년에 한번 동네의 연중행사가 거행될 때 설달 그믐날이 오기 며칠 전 우물을 청결하게 한다. 이 우물물로 제사음식을 만들어 영금정 호랑이굴 앞 동네제사에 올렸기 때문이다. 우물청소 때 빗줄과 긴 사다리를 늘어뜨리고 2~3명이 우물 안에 들어가 물을 푸고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뚜껑을 깨끗한 명석으로 덮었다. 청소가 끝나면 우물둘레에 새끼줄로 인준을 띠우고 송침을 해 부정과 잡귀를 막았으며, 이 기간엔 동네사람들이 우물물을 짓지 못하고 사전에 먹을 양의 물을 받아놓았다고 한다.



10

열 번째 사진은 현 속초시청 뒤 일명 ‘싸이렌 동네’로 추정된다.

가운데 희미하게 솟은 산봉우리가 고성군 운봉산이며 왼쪽 멀리 보이는 돌배나무 근처가 지금의 공설운동장 근처로 ‘짱터’라고 했다.

그 뒤쪽으로 국사봉이 보인다.

공설운동장 입구엔 수백년 묵은 돌배나무 한그루가 서 있었고 그 배나무 둘레엔 오가는 사람들이 쌓은 돌멩이탑이 정성스레 서 있었다. 돌탑엔 새끼줄로 인줄을 매놓고 배나무엔 갖가지 실과 종이(한지)를 매달아 마을사람들이 소원을 빈 곳이었다. ‘짱터’의 지명유래가 재밌다. 동네 나무꾼들이 지게를 지고 산에 땔감을 하려 미시령과 울산바위 쪽으로 다녔다고 한다. 이들이 아침부터 이곳에 모여 지게 작대기나 골프채 모양의 옹이 진 징채로 시합을 벌였다. 골대에 먼저 짱을 넣으면 이기는데 진 쪽이 이긴 쪽을 위해 땔감을 대신 해주는 내기를 한 나무꾼들의 놀이터였던 곳.

속초시립박물관(관장 이원찬)은 지난 54년 속초에서 통신장교로 근무한 미국인 폴 뷰포드 펜쳐씨가 기증한 사진들로 엿은 ‘50년대 속초리 풍경 속으로 특별전’을 지난 2010년 11월27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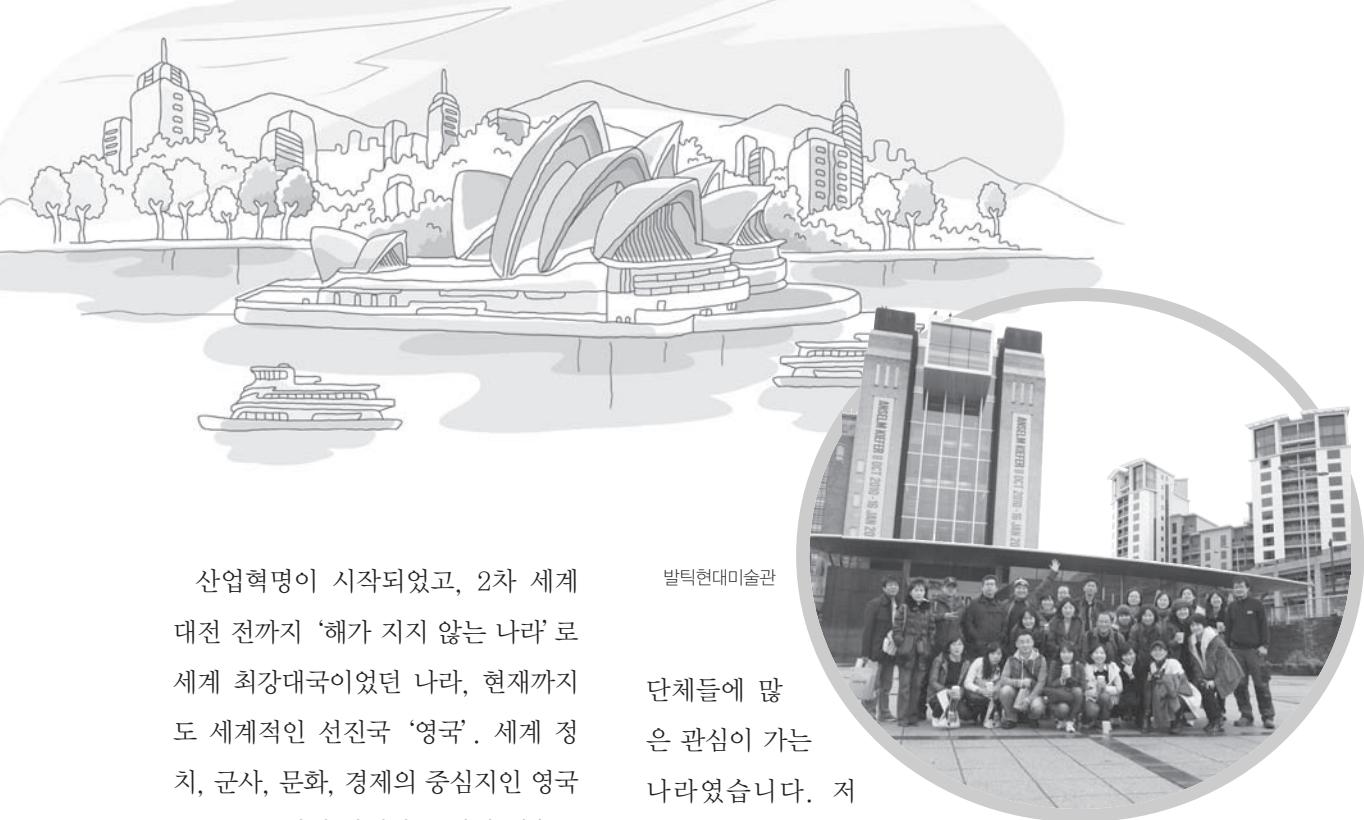


테이트모던미술관 내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창조산업을 배우다

이정무
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전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나라,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선진국 ‘영국’. 세계 정치, 군사,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영국은 70~80년대 아시아 등지의 신흥공업국의 성장으로 2차 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공업지역들이 급속하게 쇠락해 가는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비틀즈’의 고향이라는 콘텐츠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개발하여 성공한 리버풀, 전 세계 공연단체들이 가장 참가하고 싶어하는 축제인 ‘에딘버러축제’ 개발 및 지원으로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에дин버러 등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라는 “창조 산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나라. 영국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정부 및

발틱현대미술관

단체들에 많은 관심이 가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또한 문화활동가 연수, 책자 등을 통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문화활동가 및 행정가 연수에서 운이 좋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니 영국문화연수 특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0 지역문화아카데미 ‘통합해외연수’는 11월 1일 ~6일(4박 6일) 동안 전국 22명의 문화활동가, 문화단체 실무자, 문화관련 행정가들과 함께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4명, 멘토 등 총 27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일정으로는 1일은 서울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2일에는 테이트 모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 영국문화원 방문



코인스트리트

후 런던아이와 밀레니엄브릿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3일은 아이디어 스토어, 바터시아트센터 방문 후 게이츠헤드로 이동. 4일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발틱현대미술관, 세이지게이트헤드 방문 및 북쪽의 천사 견학하는 일정. 5일에는 게이츠헤드문화원 미팅 후 런던 이동, 마지막 6일 오후 서울로 도착하는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연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와 아이디어 스토어였습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는 근래에 많

은 이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런던 내에서 슬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우스뱅크 지역을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룬 사례이죠. 사우스뱅크의 버려진 땅과 유휴시설을 개발하여 30여년 동안 식당, 카페, 공원,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수익을 낸 후 이를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도시재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다양한 수익사업과 함께 영세민을 위한 주거시설, 탁아

시설 등의 개발로 지역이미지 쇄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보며 벤치마킹하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적극적 주민참여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 의지 통합, 마지막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등이 꼭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디어스토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와는 다르게 ‘게이츠헤드’는 관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성장하였던 게이츠헤드는 영국 2차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락해져가는 도시였습니다. 실업률의 증가, 도시민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던 도시를 20여 년 간 창조산업을 활용한 지속적 노력으로 현재는 EU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영국의 문화예술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을 활용한 작은 축제를 개최하며 다양한 조각물, 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게이츠헤드를 지금의 도시로 발전한 계기는 발틱현대미술관, 세이지게이츠헤드음악관, 북쪽의 천사, 밀레니엄브릿지 조성 등에 있습니다. 발틱현대미술관과 세이지게이츠헤드음악관은 이 지역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어 주었고, 밀레니엄브릿지와 북쪽의 천사는 지역의 상징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게이츠헤드에는 대학 및 기업 유치 등 지역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토어’는 우리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어진 위치입니다. 우리지역 도서관과는 다르게 시장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죠. 두 번째는 도서관을 카페처럼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문을 낮추었다는 점도 재미있는 발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아이디어스토어를 방문하며 속초관광시장 상가 내 유휴시설에 아이들을 편하게 맞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화두가 문화계에서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마 그 화두의 시발점이 ‘테이트모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테이트모던은 가동 안 된지 오래된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만들어 현재는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영국 최고의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입장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카페, 기념품점, 세미나실 활용, 메세나 등으로 수익을 만드는 점은 적극 수용해야 하는 점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들은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만을 받아들여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연수 중 방문하였던 바터시아트센터, 발틱현대미술관 또한 옛 구청과 정미소를 리모델링한 건물인 것과 지금도 다양한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모습을 보면 영국인들의 옛 것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니엄브릿지



영국 창조산업의 성공사례가 되는 기관들을 방문하며 위와 같은 햇빛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활용문제,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문제, 각 기관들의 외부자금 의존 문제 등 많은 그늘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



영국문화원

서는 안 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영국문화원,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등의 문화행정가들의 장기적 안목에 의한 전폭적인 지원과 각 단체 관계자들의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노력 및 자부심 등이 어우러져, 이러한 그늘 속에서도 영국의 창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 지역문화 관련 일을 하며 영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기적 지원과 팔길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제가 그 단체 관계자만큼의 노력을 했었던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 또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 얼마나 일정이 빼듯했는지 트라팔가공원, 베킹검궁처럼 유명관광지는 버스 이동하며 볼 수 있었다는 점과 창조산업 성공사례지 방문과 각종 문화원 및 예술위원회와의 미팅이 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서울 도착 후 한 2주 동안은 어디를 방문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글 쓰는 시점은 연수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12월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영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의 만남, 같이 연수했던 문화활동가와의 대화 등을 회상하며 글로 쓰다 보니, 그들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과 비록 졸필이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 글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최 광 철 (의사)

아기를 보면 아름답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아기 천사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라면서 대개 부모의 모습을 꼭 닮아 가는 유전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된다. 게다가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과 돌연 사고를 당하여 生老病死생로병사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태초에 이 땅에 나타난 인류(Homosapiens)는 한 개체에 암수를 공유한 인간으로서 남녀양성(Androgynous)이었다고 한다. 암수를 다 가진 이 인간은 두뇌가 우수하고 초인적 능력을 가졌기에 급기야 신의 고유 권한까지 넘보게 되어 신은 심기가 불편하게 되고 대노하셔서 구조 조정의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결국 신은 사람의 몸을 두개로 분리 시켰다.

즉 암·수를 분리시켰다고 한다. 성(sex)이란 그 때부터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거나 사랑의 열병에 걸린 에로스(eros)가 형성되었다. 즉 진정한 나의 반쪽을 찾아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본능을 성(sex)이라고 한다. 이성을 찾아 다니다보니 남의 눈에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자연히 꾸미는 생활을 하게 된다. 진정한 성은 부부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던지 어느 한 곳이라도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는 매력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 하여 짹지어 결혼하게 되지 않던가. 때론 남이 갖지 못한 “끼”라도 있다든지 교육과 독서의 힘으로 박식한 지성미를 갖추고 주위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덕망이 있는 분이 되기도 한다.

나는 걸어서, 전철타면서, 버스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점

심시간을 이용하여 물 맑은 청계천, 전통문화의 한옥 마을, 숲이 우거진 남산 등을 산책 하면서 하루 평균 한 시간 삼십분 정도 시간을 보낸다. 그때마다 보고 스쳐가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나 그들 개개인을 보면 모두 끼와 멋이 있다. 주로 젊은 사람이 많이 눈에 띈다. 한정된 공간에서 내 일과인 환자치료에 매달리다보면 출퇴근 시간에 접할 수 있는 모든 풍경이 나의 일상의 색다른 부분임에 틀림없다.

흔히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남성은 시각적이고, 여성은 청각적이라고 한다. 한때는 예쁜 얼굴에 놀씬한 키가 미의 표준인양 생각했다. 과거 겉모양에 치중했던 내 젊었던 날의 기억도 지금 생각하면 미숙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아무리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는 자세가 흐트러졌다던지,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깔깔 웃어대며 큰소리로 전화를 한다던지, 입을 크게 쪽쪽 벌려가면서 껌을 씹어대고, 금연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물고 있는 젊은이가, 설령 화려한 옷과 빛나는 패물로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달리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여성이 간혹 있는가 하면 아름답고 멋과 끼가 있는 여성들도 많다.

간혹 옆자리에 있는 여성의 두 다리는 모아지고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각선미가 아름다운 다리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이 겹쳐있는 교양이 듬뿍 풍기는 그런 여자와 마주 앉아 있을 때, 후자가 아름답다는 말이 더욱 어울릴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적 감각이 월등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미를 가꾸게 된다. 자기 형편에 맞는 의복과 신발이나 화장품까지 선택은 자기의 뜻이 대부분 반영되고 거기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교양미까지 갖추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여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시각적이고 능동적인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잃어버린 반쪽을 서로 찾겠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는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무관심하고 자기만의 과욕을 부려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나 너무 원리 원칙만 따져 우겨댄다면, 모난 돌이 정을 맞듯 자기에게 그 이상의 상처가 찾아 올수도 있다.

어떤 일에 불평불만 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남의 어려운 일에 귀 기울이고 소매를 걷어 올려서 도와야 하는 것도 멋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일에 같이 웃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멋과 끼가 되지 않겠는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은 어머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씨를 남기듯, 여자는 결혼해서 천사 같은 아이를 낳아 길러 보면서 비로소 자기 부모의 노고를 알게 되고, 자식을 기르는 동안에 많은 경험에 쌓여 사리 판단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로써 정을 뿜어내는 자상함도 얻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만든 독단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험이나 독서는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뉴스나 신문이라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쌓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개척하는 것이 미와 멋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신문에는 각기 전문가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에는 아마추어 보다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우가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나눔은 자기의 품위를 아름답게 높여주기도 한다. 인간의 미와 멋은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노력과 준비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궂은 일에 앞장서고 좋은 일에 동참한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멋과 끼가 돌아 올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름답고 멋진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 만은 알아야 한다.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 즉 미와 끼를 부리면서 Joy and Fun 으로 살자는 것이다.

끝으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즉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함박 웃음을 띠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 보자고-.



청간정

박명선

재잘대는 남실바람 진달래 꽃눈 열어
꽃잠 깬 소쩍 소리
지천으로 떠다니고
지붕 밑
처마 끝자락
물이랑에 너울댄다.

세모시 고운 숨결 대밭 속에 등지 틀고
강물 속 은빛 비늘
온몸으로 차오를 때
마루 위
낯선 얼굴들
이웃인 양 정겹다.

자지러진 귀뚜라미 보듬느니 달빛이여
수줍은 아기 단풍
곰살갑게 얼굴 붉혀
난간 앞
들녘 너머엔
황금물결 일렁인다.

언 소식 엮어 들고 철책 넘은 밤 샌 눈발
돌계단 인적 끊겨
분분이 쌓이지만
초석 뒤
푸른 금강송
어깨동무 의연하다.

속초문화의 힘!

문화예술부문 / 조수웅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 유경춘

제22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문화예술부문에 조수웅(조수웅법무사 대표),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분에 유경춘(유미미용전문학원 원장) 씨가 그 주인공.

조수웅씨는 2003년~2010년까지 설악제 위원장으로 차별화된 설악제로 축제문화 및 지역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특히 자매시인 훈춘시의 재중국 동포 2세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산교육을 행하는 등 설악문화제를 위해 노력하셨고, 여타 지방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축제를 만드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장자로 선정되었으며, 유경춘씨는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3년에 걸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등을 상대로 한 이·미용봉사를 실시해 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속초시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2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접수한 가운데, 모두 2개 부문에 대하여 5명의 수상후보자가 접수되었다. 9월 28일 오후 4시 속초시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부문의 후보자 2명,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의 후보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2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제22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식

은 10월 2일 개막한 제45회

설악문화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2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으로 속초시는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유경춘

유미미용전문학원 원장

2010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소	비고
원장	노광복	중앙동 468-142	
부원장	오윤근	교동 656-5 13/2	전) 교사
	최현식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606호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전) 교사
	곽철신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충청향우회 대표
	권순완	노학동 972-1	주)척산온천 휴양촌 상무이사
	권영석	조양동 부영아파트 603-1205	순오텐트 대표
	김계남	교동 780-130 15/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김계양	대포동 470-3	속초대포하우스 대표
	김동익	중앙동 476-12	si 속초대리점 대표
	김병학	중앙동 503-44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문광철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박명기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 관리사무소	영랑호리조트 본부장
	박무웅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풍원기업(주) 대표
	박정기	조양동 230 연회동 / 자택636-7025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양재호	교동 627-32	전)교육행정공무원
	엄시용	교동 780-156	성우산업 대표
	윤광훈	조양동 1292-15	이정종합광고 대표
	윤숙자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치원 원장
감사	이춘실	노학동 설악럭기1차APT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임동환	대포동932-8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장옥	장사동 518-7 우림연립 마-101	속초시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주영래	장사동 600번지 12/4	속초시재향군인회 회장
	최원근	교동 767-224 럭키1차 3-808	전)천일주유소 대표
	탁동식	교동 로얄골든APT 303호	고성고등학교 교감
	한남호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설악고등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함봉식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어재석	중앙동 468-67	전) 속초시의회 과장
	허우린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속초간호학원 원장
사무국	김인섭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사무국장
	이정무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사업과장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2/2	사무주임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손녀와 [같이] 걸은 길

세상에 [같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NH농협이 만들어가는 [같이]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